

4-19-2004

베이비붐 세대의 영적 패러다임

Chon Noh Ka 가천노

Follow this and additional works at: <https://digitalcommons.fuller.edu/kdmin>

 Part of the [Missions and World Christianity Commons](#)

Recommended Citation

가천노, "베이비붐 세대의 영적 패러다임." 박사학위논문, 풀러신학대학원, 2004.

This Project is brought to you for free and open access by the Korean Studies Center at Digital Commons @ Fuller. It has been accepted for inclusion in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jects / 한인 목회학 박사 졸업 논문 by an authorized administrator of Digital Commons @ Fuller.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archives@fuller.edu.

Dissertation Approval Sheet

This Dissertation Paper entitled

A SPIRITUAL PARADIGM OF THE BABY BOOM GENERATION

written by

CHON NOH KA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Jeong Kii Min

Moon Sang Kwon

Seyoon Kim

April 19, 2004

**A SPIRITUAL PARADIGM OF THE BABY BOOM
GENERATION**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CHON NOH KA

APRIL 2004

베이비 붐 세대의 영적 패러다임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민종기 교수

가 천 노

2004년 4월

ABSTRACT

A Spiritual Paradigm of the Baby Boom Generation

Chon Noh Ka

Doctor of Ministry

2004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ere happen radical changes in almost every aspect: humanity, society and the ministerial environment in Korea. In the center of the changes lies the problem of generation, especially baby boom generation. The baby boomers not only make up the largest generation of Korea, but they have been taken over positions of leadership through our culture. Therefore the baby boomers should be set the Korean agenda during the next years.

Baby boomers are unique in their attitudes, values, and lifestyles. There are significant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the baby boomers and the generations that both proceed and follow them. And now the baby boomers enter middle age, their interest in the church is increasing. If the church is to be effective in the 21st century, it must face the demographic reality and meaning. So this dissertation explores the baby boom generation in terms of the spiritual paradigm.

Baby boomers are a unique generation which has been shaped by the historical events of seventies and eighties. They has had an impact of their view of religion, government, family relationships, and work. This view of life is just what I call baby boomer spirituality which is the foundation of their world view. Those are: Brokenness, Loneliness, Rootlessness, Self-Seeking, Spiritualism, Adventuresome, Millennialism, Globalism, and Wholeness.

In order for churches to reach this generation it is important to have a knowledge of these spiritual values. For that reason, this dissertation show the myths and the music, the history and culture that has shaped a generation which is in fateful need of a message of love and hope. Besides, rather than offering

some prescription and solution, this study challenges Christians to take another look at their attitudes and beliefs in order to get handle on how to meet the deepest needs, tastes, and interests of the baby boom generation.

Theological Mentor: Jeong Kii Min, Ph. D.

감사의 글

21세기 한국 땅과 교회의 필요를 알게 하셔서 그것을 사역과 학문의 비전으로 인도하시고 희미하던 한 편의 글이 뚜렷하게 제 모습을 드러내도록 생각의 방향과 내용을 경륜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결실의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립니다.

탁월한 지적 통찰력으로 학문의 지형을 그려주신 김세운 교수님, 엄예선 교수님, 피터 왜그너(Peter Wagner)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스승님들의 가르침과 특히 한편의 논문이 완성되도록 긍정적인 격려와 필요한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민종기 교수님과 권문상 교수님, 그리고 애써 주신 김태석, 양우준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부르지 않아도 언제나 영혼 속에 함께하시는 나의 어머니, 인생길을 같이 가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은 아내, 늘 생각하면 자랑스러운 딸 민경이와 아들 민석, 그리고 우리 동틀녘교회의 귀한 가족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큰 나무로 가는 작은 결실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늘 부족함에 대한 부끄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 이제 누구도 열어보지 못한 미지의 문을 여는 설레임으로 앞으로 펼쳐질 다음 목적지를 향해 나가려 합니다. 그 여정을 함께 걷는 모든 이에게 이 결과물을 바치고 싶습니다.

2004년 4월

가 천 노

목 차

ABSTRACT.....	ii
감사의 글	iv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제 2 절 연구 방법과 범위	3
제 2 장. 베이비붐 세대의 영적 뿌리	6
제 1 절 상실감(Brokenness)	6
1. 그들의 꿈과 열망	6
2. 10월 유신과 민주화	9
3. 광주 항쟁과 6월 항쟁	12
4. IMF의 최대 피해자	15
제 2 절 외로움(Loneliness)	18
1. 이들 세대의 증후군	18
2. 유난히 심했던 경쟁	21
3. 의미 있는 관계의 부재	24
4. 라이프스타일(lifestyle)	28
제 3 절. 단절성(Rootlessness)	30
1. 강한 저항적 기류	31
2. 국가주의에 대한 거역	33
3. 성장주의에 대한 거부	37
4. 권위주의에 대한 저항	40

제 3 장 베이비붐 세대의 영적 현실	43
제 1 절 자기애(Self Seeking)	43
1. 이기적인 자기표현	43
2. 믿을 건 자기 자신 뿐	46
3. 늦깎이 인생들	49
4. 자기 안의 영웅 찾기	51
제 2 절 초자연(Supernaturalism)	55
1. 점보는 중년들	55
2. 반문화의 인격화	58
3. 확산되는 수련문화	61
4. 새로운 종교의식	65
제 3 절 모험성(Adventurousness)	67
1. 모험과 탐험의 일상화	67
2. 자기 발견의 즐거움	70
3. 개인의 승리 추구	73
4. 시도되는 영적 도전	76
제 4 장 베이비붐 세대의 영적 미래	80
제 1 절 새천년(Millennialism)	80
1. 시대가 주는 의미	80
2. 역사를 바꾼 경험	83
3. 떨치지 못하는 부채감	86
4. 세상을 바꾼다	89
제 2 절 세계화(Globalism)	92
1. TV와 컴퓨터의 세대	92
2. 다양한 해외 경험	95
3. 올림픽을 치른 자신감	98
4. 삶의 질을 찾아서	101

제 3 절 통전성 (Wholeness)	104
1. 중년의 문제들	104
2. 생활의 재발견	107
3. 직접적인 의미 체험	110
4. 영성의 추구	113
제 5 장 베이비 부머 패러다임의 적용	117
제 1 절 패러다임의 목회적 적용	117
1. 다양한 선택의 제공	117
2. 질 높은 예배와 어린이 사역	119
3. 평신도를 세우는 목회	121
4. 소그룹과 네트워크	123
제 2 절 패러다임의 선교적 적용	124
1. 선교대상의 분명한 설정	125
2. 편리한 시설과 편안한 분위기	127
3. 현실적 필요에 응답하는 설교	129
4. 선교에 대한 강한 비전	131
제 3 절 패러다임의 구조적 적용	133
1. 지역 필요 중심의 조직	134
2. 모델로서의 지도력	136
3. 단순한 구조와 시스템	138
4. 건물보다 첨단 장비	140
제 6 장 결 론	142
참고문헌	145
VITA.....	158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지금 한국 교회는 커다란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그 변화는 이미 80년대 중반부터 시작하여 그 속도를 빨리 하면서 한국 사회의 변화와 병행하여 우리의 주목을 끌고 있다. 그 변화의 현상적으로 드러난 외적 형태는 신앙생활에 대한 관심 감소, 교인들의 영성과 헌신의 퇴조, 젊은이들의 교회로부터의 이탈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즉 과거와 같은 신앙에 대한 열심은 식어지고 교인들의 헌신은 눈에 띄게 떨어지며 교회의 전반적인 영성이 현저히 퇴조하고 있다. 신앙생활이 더 이상 사람들의 관심과 대화의 소재가 되지 못하고, 교회를 위한 헌신이 개인과 공동체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되지 못한다. 이제 영적 발전과 체험보다는 개인적 여가와 자기 발전을 위해 시간과 비용을 지출하려 한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 교회의 성장은 196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었다. 1987년 최고조에 이르렀던 교회 성장은 1992년까지 수평을 이루다가 그 이후부터 소폭의 감소를 보여 주었다. 즉 1960년대 교회 수의 증가는 연평균 15.7퍼센트, 1970년대에 7.5퍼센트, 1980년대에는 6.9퍼센트, 그리고 1990년 이후에는 5퍼센트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교회의 감소보다 더욱 뚜렷한 현상은 교인수의 감소이다. 교인의 연평균 증가율이 1960년대에 41.2퍼센트이던 것이 1970년대에 와서 12.5퍼센트로 감소하였고, 1980년대에는 4.4퍼센트로 낮아지다가 1990년대에는 아주 3퍼센트 이하로 줄어들었다.¹⁾ 그래서 1994년 말 현재 교인 수가 전년도에 비해 1퍼센트 이하의 성장을 보이는데, 이러한 현상은 교인의 이동 율과 출석 교인의 감소를 감안하면 교세의 전

1) 이성희, 미래사회와 미래교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178-179.

반적 하락은 너무도 분명하다.

물론 이러한 출석 교인의 감소 현상 배후에는 여러 원인이 자리하고 있다. 현대 사회의 이동성과 임시성, 기독교를 대신하는 기능적 대형물의 발달, 한국 사회의 교육적 문제점, 사회성 결여가 가져온 젊은 세대의 교회 외면, 출석율의 전반적 하락 등이 그 원인으로 거론된다.²⁾ 그러나 그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의 변화를 정확하게 포착하여 분석하는 설명으로는 총량에 있어서 미흡함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원인들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같은 한국 사회 안에서도 성장하는 교회가 존재하고, 그러한 변화의 시점이 왜 일정한 시기를 중심으로 본격화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아울러 그러한 분석들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는 하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들 간의 각기 다른 갈등과 차이를 설명해 주지 못한다. 따라서 그런 변화와 현상의 배후에는 그런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분명한 다른 요인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변화가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과 문제의식은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요청한다.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적 변화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 변화의 주체와 원동력은 과연 무엇인가? 그 변화를 만드는 패러다임은 무엇이고 그것이 전개할 미래는 과연 무엇인가?

그런 맥락에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핵심을 세대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한다.³⁾ 즉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핵심에 세대의 문제가 있고 그 세대의 문제가 현재의 변화를 파악하는 열쇠라는 인식이다. 이렇게 세대라는 렌즈를 통해서 한국 사회를 관찰하면 현재 일어나는 변화를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한 설명이 분명해진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의 변화도 한국 사회의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세대의 관점에서 관찰하는 것은 분명 설득력이 있다. 즉 교회 변화의 배후에 세대가 있고 바로 그 세대가 교회 변화의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 변화의 원인을 분석하고 현상적인 변화의 원동력과 한국 교회의 미래적인 추이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 세대 문제의 규명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여기서 다루려는 세대는 다름 아닌 베이비붐 세대이다. 그렇다면 왜 하필 베이비붐 세대(Baby Boom Generation)인가? 우리나라에서 베이비붐 세대란 일차적으로 6·25 전쟁 이후 급증한 출산율로 인해 인구 폭발을 몰고 온 특정 연령층을

2) Ibid., 179.

3) 송호근, 한국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3).

나타내는 인구학적 용어이다.⁴⁾ 또한 이 세대는 단순히 출생아의 폭증 뿐 아니라 다른 세대⁵⁾에서 볼 수 없는 그들 세대만의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비대한 인구 구성비와 함께 2차 베이비붐을 조성하거나 아니면 다른 세대가 가지지 못하는 수적 다수라는 세대적 파워에 기초한 정치·사회적 영향력은 물론 그들의 라이프스타일(Life style)에서 기인한 구매력과 같은 경제적 함의를 소유하고 있다.⁶⁾

그 뿐 아니라 베이비붐 세대는 이제 한국 사회의 중심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다. 전체 인구 분포에서 수적 다수를 점할 뿐 아니라⁷⁾ 사회적 리더십의 증추가 되고 있다.⁸⁾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교회 구성원의 다수를 구성하는 동시에 교회 지도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이 세대를 연구하는 것은 다수 교인들을 보살핀다는 의미와 함께 잠재적 다수에 대한 선교적 동기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⁹⁾ 따라서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에 살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영적 패러다임을 연구하여 선교적 적용의 가능성을 찾아보는 것이다.

제 2 절 연구 방법과 범위

그렇다면 왜 베이비 부모들의 패러다임을 영성과 관련하여 다루어야 하는가? 그것은 기본적으로 패러다임의 형성 배후에 영성이 있고, 그 영성에 의해 패러다임이 구형되기 때문이다. 이 영성이란 정의하기에 따라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러

4) 이승재, "베이비붐," 동아일보, 1998년 2월 18일, 11. 미국의 경우, 세계 2차 대전 이후 출생률이 갑자기 팽창하던 1946년부터 출생률이 떨어지기 시작한 1964년까지 태어난 사람들을 말한다. Paul C. Light, Baby Boomer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90), 20.

5) 그들은 부모 세대(Builder Generation)와 그들 다음 세대인 베이비 버스터(Baby Buster) 혹은 X-세대(X-Generation)들과도 현저히 다른 세대적 특성을 소유하고 있다.

6) 오철우, "베이비붐 세대가 최대피해자," 한겨레신문, 1998년 3월 23일, 12. "60-70년대 성장기엔 높아진 입시경쟁률에 시달리고 80년대엔 민주화 운동의 중심에 섰다가 90년대에 왕성한 소비문화의 주역으로 떠올랐다. 베이비붐 세대의 결혼 적령기인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엔 주택수용가 갑자기 커져 집값을 크게 올려놓는데 한몫 한 것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7) 함인희, "베이비붐 세대의 문화와 세대경험," 임희섭 외, 한국의 문화변동과 가치관 (서울: 나남출판사, 2002), 244.

8) 지난 2002년 대선을 기해 한국 사회의 리더십이 일차로 베이비붐 세대로 건너갔다고 본다. 고건, "인터넷·한류는 베이비붐 영향," 주간조선, 2003년 10월 23일, 130.

9) William Easum, How to reach Baby Boomers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91), 17-23.

나 기본적으로 이 논문에서 사용되는 영성이란 “인간 문화의 핵심적인 부분 혹은 인간의 삶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미들의 체계”¹⁰⁾로 정의한다. 그래서 개인의 영성은 ‘인간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¹¹⁾ 따라서 패러다임을 다루되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런데 세대 연구의 권위자인 사회학자 칼 만하임(Karl Manheim)에 의하면, 한 세대의 영적 패러다임을 찾아내려면 그들의 집단적 경험을 찾아내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에 의하면, 사회 과정 중에서 동시출생집단(Cohort)인 세대(generation)는 단순히 같은 연령 대에 속한다는 의미를 넘어 하나의 공통의 사회적 경험을 소유한다. 그 공통의 경험들로부터 그들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집단의식을 발전시켜 일련의 가치나 신념, 상징 등에 대해 거부하거나 받아들임으로써 자신들을 정의해 나간다. 이러한 방식으로 한 세대는 그들 나름대로의 독특한 역사-사회적 의식을 형성하며, 이러한 과정이 주로 일어나는 기간은 사춘기와 청년기에 해당하는 기간이다.¹²⁾

따라서 이 글은 베이비붐 세대가 집단적으로 경험한 역사적 사건들과 이 세대의 연관성을 살핌으로써 그들의 영성과 패러다임의 내용과 형성 과정을 찾아갈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같은 베이비붐 세대 안의 구성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역사적 경험과 해석, 반응의 다양성을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즉 그들의 의식 구조와 가치관과 삶의 스타일에 나타나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주목할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은 어디까지나 세대의 공유된 의식과 정신성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경향성을 중심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그것을 위해 베이비붐 세대의 범위를 1955년에서 1963년을 기준으로 하되 통계 자료의 미흡¹³⁾과 세대적 특성의 공유 정도를 감안하여 그 연대는 1968년까지 확장할

10) Wade Clark Roof, A Generation of Seekers: The Spiritual Journeys of the Baby Boomer Generation (San Francisco: HarperSanFrancisco, 1993), 266.

11) Ibid., 5.

12) Karl Manheim, Essay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2), 276-320.

13) 통계청에 의하면 베이비붐 세대의 기준 년도로 삼는 1955년에서 1963년도의 정확한 통계 자료가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통계청이 보유한 인구에 관한 정확한 자료는 주로 1970년 이후의 것이고, 그 이전의 자료들은 소실되었거나 아니면 조사 사업의 미흡으로 정확한 자료를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천노, “통계청 인구 분석관과의 인터뷰,” 2003년 12월 10일.

것이다. 그것의 근거로는 그 기간 동안 나타난 출생률의 연평균 증가율과 공통의 경험에 터한 연대의식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1955년에서 1960년까지 자연증가율이 28.7퍼센트, 1960년에서 1966년까지가 26.6퍼센트를 기록, 높은 출생률이 계속되었고, 1966년에서 1970년까지의 기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자연 증가율이 19.0퍼센트로 낮아지고 있다.¹⁴⁾

또한 베이비붐 세대 안에서 나타나는 의식의 분화 현상이나 서로 다른 행동 양식 역시 세대를 분절하는 요인이라기보다 한 세대의 다른 스펙트럼이다. 즉 그들의 세대 의식 형성 과정에서 나타난 진화의 정도가 서로 다르고 역사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대응방식의 차이가 가져온 결과라는 관점이다. 따라서 소위 475 세대와 386 세대를 나누는 인위적인 방식을 탈피하여 두 세대를 아우르는 연령을 대상으로 할 것이다.¹⁵⁾ 대신 베이비붐 세대를 소위 475에 해당하는 전기 부머(Older Boomers)와 386에 해당하는 후기 부머(Younger Boomers)¹⁶⁾로 나누어 한 세대 안의 다름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분석의 통일성을 기할 것이다.

14) 구체적으로 1960년대 초반부터 피임약이 시장에 공급되었고, 1962년 가족계획사업이 시작되었다. 동시에 사회경제적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출산력 저하에 기여, 1966년 백 말띠 해에 대도시 출산율이 급감하는 결과를 보였다.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를 참조하라. 또한 학계에서도 ‘한국 전쟁 이후 급속한 인구 증가를 주도했던 베이비붐이 1960년대 말까지 누그러지지 않고 지속되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송호근, 한국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108.

15) 조대엽, “386세대의 문화와 세대 경험,” 임희섭외 한국의 문화변동과 가치관 (서울: 나남출판사, 2002), 268-269.

16) Wade Clark Roof, A Generation of Seekers, 266. 미국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를 1945년부터 1954년 사이에 태어난 연장자 부머(Older Boomers)와 1955년에서 1964년까지를 연소자 부머로 (Younger Boomers) 나눈다

제 2 장

베이비붐 세대의 영적 뿌리

제 1 절 상실감(Brokenness)

베이비붐 세대를 특징짓는 그들의 정신성은 우연히 형성된 것이 아니라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그들이 성장하며 경험한 역사적 사건들과 그것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틀에서 기인한다. 베이비 부모들이 성장하던 시기를 설명하는 가장 커다란 특징으로는 그 시대가 상실의 시대였으며, 그런 경험 속에서 자라난 그들의 영적 배후에 형성된 가장 뚜렷한 영성은 상실감이었다는 것이다. 부모들의 정신에 각인되어 그들 영성의 뿌리가 된 상실감은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진 것일까?

1. 그들의 꿈과 열망

베이비붐 세대가 태어나서 자라던 50년대 중반 이후 60년대는 이들에게 아직 자의식이 형성되기 이전이기는 하지만 척박한 땅에서 희망이 싹트던 시기였다. 6·25 전쟁으로 전 국토는 파괴되고 국민 의식은 깊은 상처와 황폐화를 낳았지만¹⁷⁾ 제1 공화국의 독재와 혼란의 과정을 거쳐 4·19혁명을 통해 새로운 제 2공화국이 출범하여 민주사회의 건설을 꾀하였다. 61년 5·16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군사 정부는 '조국 근대화'라는 국가 목표를 설정하고 새로운 정책과 개혁을 단행하며 의욕적인 국가 건설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박정희 군사 정권은 자신들의 정통성을 높이고,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원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주적인 경제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미국은 한

17) 유재일, "한국전쟁과 반공 이데올로기의 정착," 역사비평 1992년 봄, 141.

국에서 공산혁명을 막고 안정을 이룩하기 위해 한국 정부에 50년대 중반부터 장기적인 경제발전 계획의 수립을 제안해 왔다. 그 후 박 정권이 “1960년대 초 의욕적인 경제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했지만 적어도 60년대 초반에는 정치적 혼란과 곡가 파동, 외환 파동, 잇따른 인플레이션 등으로 경제는 위기 상황”¹⁸⁾에 있었다. 그러나 1965년 한일회담 결과 대일 청구권 자금을 비롯한 해외 자금이 국내로 들어오면서 투자가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65년, 1966년에는 수출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1966년에 끝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처음의 예상 7.1퍼센트를 넘어 8.5퍼센트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였다.¹⁹⁾ 이것은 분명 전후 복구에 치중했던 50년대의 상황을 극복하고 도약을 통한 산업화의 단초를 여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한국은 1965년, 미국 존슨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 미국이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는 전제 하에 월남에 군대를 파견한다. 미국은 월남 전 파병의 대가로 2억 달러의 무상 원조와 한국에 대한 군사, 경제적 대가를 약속하였던 바, 이 월남전 특수는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은 한국 기업과 한국 노동자의 베트남에서의 경제 활동을 보장하고, 대한 경제 원조 증대, 한국 상품 구입 확대 등을 보장하였다. 이리하여 65년부터 73년까지 연 31만 명의 한국군이 남 베트남의 공산화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참전하였다.²⁰⁾

이 전쟁에 참전한 한국군의 전투수당은 참전국 병사 가운데 가장 낮았으나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은 적지 않았다. 66년 이후 베트남 특수²¹⁾는 한국의 GNP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예를 들면, 67년의 경우 베트남 특수를 전제 수출 총액과 견주어 보면 47.3퍼센트, 외환 보유액 대비 43.6퍼센트, 무역외 수지 대비 40.3퍼센트를 기록하고 있다. 결국 베트남 특수와 미국의 원조, 대미 수출 시장의 개방 등에 힘입어 한국 경제는 60년대 후반 고도성장을 할 수 있었다.²²⁾

18) 조대엽, “386 세대의 문화와 세대 경험,” 257.

19) 이완범, “현대사 다시 쓴다: 제1차 경제개발계획,” 한국일보, 1999년 7월 13일, 18.

20) 한도현, “현대사 다시 쓴다: 베트남 참전,” 한국일보, 1999년 7월 27일, 14. 이 전쟁을 통해 한국은 약 5000명의 전사자를 냈고, 많은 사람들은 전쟁 후유증과 고엽제 고통을 경험하였다.

21) 베트남 특수는 월남으로의 상품 수출과 파월 군 관계의 서비스로 구성된다. 베트남 특수의 구성을 보면 물자조달이나 상품 수출보다는 무역외 수지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기술자와 군인들의 송금, 건설 및 군납 등이 베트남 특수 총액의 70퍼센트를 차지했다.

22) 이 베트남 전쟁과 한국 경제의 발전에 관한 문제는 박근호, 한국의 경제발전과 베트남 전쟁 (서울: 수서방, 1993)을 참조하라.

이런 기조에 힘입어 당시 한국은 '잘살아 보세'라는 구체적인 목표 아래 경제적으로 수직적인 외형 성장을 기록하였다. 자연스럽게 이 시기 한국 사회는 '하면 된다'는 성취동기와 성공 지향의 가치관이 국민들에게 익숙해지면서 상향 이동의 열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기대 상승을 경험하게 되었다.²³⁾ 그 결과 베이비붐 세대는 이런 외형적인 경제 성장과 사회적 부의 총량이 확대됨으로써 부모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경제적 혜택을 입으면서 성장할 수 있었다. 그것은 두 번의 전쟁으로 인한 폐허와 가난을 경험한 부모 세대의 허리를 졸라맨 헌신적인 노동과 절약의 결과이기도 했다. 이런 양적 경제 성장은 이 세대로 하여금 최소한 부모들이 경험한 가난의 공포나 생존을 위한 맹목적인 처세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하였다.²⁴⁾

이 베이비붐 세대는 수적 평창에 따른 중학교 무시험제도나 고교 평준화를 거치면서 치열한 경쟁과 함께 성장했지만²⁵⁾ 부모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교육적인 혜택과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부푼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그들은 부모나 선생님으로부터 '너희들이 사는 세상은 무엇이든 가능한 세상'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들으면서 성장하였다. 1969년에는 당시 기술과 경제력의 향상으로 폭넓게 보급된 TV를 통해 미국의 암스트롱(Neil Armstrong)과 올드윈(Edwin Aldwin)을 태운 아폴로 11호가 사상 처음 달에 착륙하는 광경도 지켜보았다.²⁶⁾ 그것은 당시를 살았던 세대의 구성원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준 대표적인 광경이었다.

아울러, 당시 사람들은 1970년 7월에 경부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전국이 일일 생활권이 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성장하는 수출액과 교역 규모,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생활 수준의 향상은 한국 사회로 하여금 서서히 그 자신감을 되찾아 가도록 고무했다. 마찬가지로 베이비 부머들도 56년 5월부터 방송되기 시작한 TV와 다른 매체들을 통해 발전하는 세계와 더불어 자신들의 밝은 미래를 동일시하며 미래에 대한 꿈과

23) 임희섭, "한국 문화의 변화와 전망," 임희섭 편, 한국 사회의 발전과 문화 (서울: 나남출판사, 1987), 240.

24) 이해영 편, 1980년대 혁명의 시대 (서울: 새로운 세상, 1999), 386.

25) 이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시작한 72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 입시가 너무 치열하여 고교 평준화라는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관해서는 이길상, "입시제도 개혁의 역사와 평가" 이길상 외, 한국 교육개혁의 종합적 평가 (서울: 정문연, 1995), 정상윤 편, 한국신교육백년사료 (서울: 서울문예사, 1974), 김영철 외,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방향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5)를 참조하라.

26) Gary L. McIntosh, Three Generations (Grand Rapid: Fleming H. Revell, 1995), 79.

“높은 열망”²⁷⁾을 키워 나갔다. 결국 이들은 높은 교육열과 교육 기회의 급격한 향상으로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동시에 자신들이 좀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바꿀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내면에 형성하였다.

2 10월 유신과 민주화

이렇게 이들 세대는 50년대 중반과 60년대의 민족 분단과 군부 독재체제라는 사회적 시·공간을 세대적 위치설정으로 하여 태어났다. 이 세대는 일찍이 독재체제라는 한국 사회의 강요된 환경에서 자라기는 했지만 경제적으로는 강력한 독재 정권의 추진력에 힘입어 전쟁으로 인한 가난에서 벗어나 외형적인 성장의 결과물을 받으면서 유년시절을 보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유가 억압된 독재체제와 저임금 노동에 기반한 수출 정책과 소수 특혜 재벌의 기형적 구조로 인해 가능한 것들이었다.²⁸⁾ 결과적으로 그것은 향후 많은 구조적 위기와 전 사회적 문제가 확대 재생산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었다.

“1960년대 열망의 시대에는 열악한 조건과 가혹한 노동 시간도 오직 가난을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와 열망을 통해 이겨낼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기대와 현실의 격차는 점점 더 커져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상황”²⁹⁾이 되었다. 베이비 붐 세대가 청소년기를 보낸 70년대는 ‘전태일 분신’³⁰⁾이라는 충격적인 사건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1970년 11월 13일, 서울 평화시장의 젊은 노동자 전태일이 스물 두 살의 나이로 근로기준법 책자를 손에 쥔 채 몸을 불사른 것이다. 이 사건은 “80년대 사회 운동의 장을 연 광주민주항쟁과 비견되는 70년대 사회 운동의 지평을 연 획기적인 사건”³¹⁾이었다.

27) 함인희, “베이비붐 세대의 문화와 세대 경험,” 244.

28) 당시 한국 경제의 구조에 관해서는 정성진, “한국 경제의 사회적 축적구조와 그 붕괴”, 6월 민주항쟁과 한국 사회 10년 I (서울: 당대, 1997)를 참조하라.

29) 조대엽, “386세대의 문화와 세대 경험,” 260.

30) 전태일에 관한 연구자료로는 전태일, 내 죽음을 헛되여 말라: 일기, 수기, 편지 모음 (서울: 돌베개, 1988), 조영래, 전태일 평전 (서울: 돌베개, 1990), 이소선, 어머니의 길 (서울: 돌베개, 1990), 이태호, 최근 노동운동의 기록 (서울: 청사, 1986) 등을 참조하라.

31) 김금수, “전태일 분신자살 사건”, 동아일보 편집부 편, 현대 한국을 뒤흔든 60대 사건 (서울: 동아일보사, 1988), 170.

당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급속하게 진행된 산업구조의 재편은 농촌 인구의 이농과 급속한 도시화를 초래하였다. 구체적으로 70년대 들어서서 매년 50만 명의 순 이농 인구가 생겨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었다.³²⁾ 도시로 몰려온 이농민들은 대부분 이른바 비공식 부문에 취업을 해 전체 취업자 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년 기준 23.3퍼센트를 기록했다. 이 때의 우리나라 노동 조건은 일반적으로 저임금, 열악한 노동 환경, 장시간 노동으로 그야말로 열악하였다.³³⁾ 구체적으로 약 10퍼센트의 고도성장을 기록하던 60년대 10년 동안 제조업 노동자의 실질임금 상승률은 연평균 2.4퍼센트에 불과하였다.³⁴⁾ 이러한 경제 성장과 축적은 이미 그 속에 심각한 자기모순을 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전태일 분신자살은 사회적 모순 아래 짓밟히고 있던 처참한 노동 현실에 대한 분노이자 폭로이고 고발이었다. 이것을 바라보는 베이비 붐 세대는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었다(Something was terribly wrong)!'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였다. 인간을 물질화 하는 세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짓밟는 비인간화와 희망을 자르는 사회에 대해 그들은 분노하고 절망하였다.

이렇게 70년대 초반 충격적인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가운데 한국사회는 길고 어두운 독재체제의 터널로 빠져 들어갔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10월 17일, '급변하는 주변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일대 유신적 개혁을 단행'한다는 명분으로 '10월 유신'³⁵⁾을 단행한다. 그 후속조치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여 모든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시키고,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국무회의를 신설하여 국회권한을 대행하는 초헌법적 조치를 취한다. 이어서 같은 해 11월 21일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 1인에게 입법, 사법, 행정부의 모든 권한을 집중하는 이른바 '영도자적 대통령제'를 91.9퍼센트의 투표와 91.55퍼센트의 찬성으로 통과시킨다.³⁶⁾

물론 1970년 2월에는 '아시아인은 아시아인의 손으로'라는 이른바 '닉슨 독트린'

32) 박진도, "현대사 다시 쓴다: 이농과 도시화," 한국일보, 1999년 8월 3일, 14.

33) Ibid., 14.

34) 김금수, "전태일 분신자살," 170.

35) 10월 유신에 관해서는 장을병, 전환기의 한국정치 (서울: 범우사, 1987), 청사편집부, 70년대 한국일지 (서울: 청사, 1984), 한승헌 편, 유신체제와 민주화 운동 (서울: 삼민사, 1984), 장을병 외, 우리시대 민족운동의 과제 (서울: 한길사, 1986) 등을 참조하라.

36) 정영국, "현대사 다시 쓴다: 유신체제," 한국일보, 1999년 9월 14일, 16.

이 발표되었다. 적대적인 국가인 중공과 국교 정상화를 표방하며 주한 미군 감축을 선언한 닉슨 독트린은 한국의 집권세력이나 '레드 콤플렉스(Red Complex)'에 젖어 있던 일반 국민들에게도 충격적인 안보 위기감을 불러일으킨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7·4 남북공동성명에 기초한 새로운 남북관계의 변화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라는 명분이 그 배후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박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한 친위쿠데타의 성격이 강했다.³⁷⁾ 10월 유신은 다른 여러 요인들보다도 국민들의 정치적 지지를 상실한 박 정권이 점차 확산되던 반독재 국민운동의 도전을 억압하고 자신들의 정치권력을 연장하려는 집권세력의 정권욕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 후 계속된 긴급조치를 통해 10월 유신은 수많은 인권 탄압과 민주주의 파괴를 가져와 한국 정치의 민주화를 근본부터 말살하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체제유지를 위한 정치군인의 양산은 80년대 신 군부에 의한 비극적인 사건들을 배태하는 원인이 되었다. 또한 그 유신체제 기간 동안 한국 경제는 정부주도의 고도성장을 계속하고 있었으나 그것은 합리적인 시장 경제 질서와 소득 분배를 가로막는 재벌 특혜정책과 노동자들의 희생 위에 구축한 것들이었다.

이렇게 70년대는 참으로 격동의 시대였다. 전태일의 분신자살을 시작으로 교련 반대 데모와 위수령 발동, 유신헌법 공포와 긴급조치 1-9호의 발동, 민청학련사건, 장발족 일제단속, 신민당사 여성 노동자 강제 해산, 부마사태,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과 12·12 쿠데타 등을 함께 경험하였다. 이 시기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군부에 의한 독재 정권이 위헌적인 권력체제를 완성하며 광기 어린 권력 유지를 시도하던 때였다. 그래서 일제 식민하의 병사적 인간을 육성하던 규율이 유신 체제적 인간형을 내면화시키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검은색 교복과 짧은 머리, 국민교육헌장의 암송과 학교에서의 집단 조회는 이 세대에게 전체주의적 사회화를 내면화하게 하였다.³⁸⁾

이 과정에서 베이비붐 세대는 책 속에서 배운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윤리인 자유, 평등, 인권과 전통적인 양심과 정의라는 도덕적인 윤리가 노골적으로 무시된 채 억압적이고 비인간적인 폭력과 모순적인 사회현실을 강요받았다. 이들은 유년기에 습득한 꿈과 열망에 기초한 상승 기대가 무너지고 독재 권력의 횡포와 그것에 대한 저항이라는 현실을 체험한다. 이것을 통해 노골적으로 드러난 부패와 불평등의 불만을

37) Ibid., 16.

38) 조대엽, "386세대의 문화와 세대 경험," 261.

잠재한 채 부머들은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갈망했고, 민주화에 대한 사명을 공통의 정서로 소유하였다. 결과적으로 그만큼 기대했던 열망이 사라진 깊은 절망과 좌절을 공통의 '우리 정서'로 내면화하였다.

3. 광주 항쟁과 6월 항쟁³⁹⁾

이어 계속된 1980년대는 베이비 부머들에게 있어 민주화를 쟁취하기 위한 활동이 가장 격렬하고 가장 대중적으로 확산된 시기였다. 베이비 부머들은 그나마 1980년의 봄을 비교적 후련한 마음으로 맞을 수 있었다. 18년 동안 유신 체제에 억눌려 있던 한국 사회가 박정희의 퇴장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숨통이 트이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유신 체제의 상징이었던 긴급조치 9호가 1979년 12월 8일 해제되었고, 1980년 2월 28일에는 윤보선 전대통령을 비롯한 재야인사 678명이 사면복권 되는 동시에 민주화의 상징적인 인물이었던 김대중이 묶여있던 활동에서 풀려 정치 무대에 복귀하기도 했다.⁴⁰⁾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은 한 자연인의 죽음이라는 의미 이상의 권력공백이라는 불안정한 상황을 불러왔다. 1979년 12월 6일, 계엄 하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최규하(崔圭夏)씨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였으나 곧 이어 정승화 계엄 사령관이 납치되는 12·12 쿠데타가 발생하였다. 결국 대통령 시해사건의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전두환 보안 사령관과 신 군부가 실권을 장악하게 된다. 그 상황에서 1980년 5월이 되자 계엄령 하에 있던 학생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계엄 해제'와 '유신 잔당 퇴진' '정부 주도의 개헌중단'을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당시 신 군부는 정치권과 대학생들의 그런 요구를 국가 안보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였고 1980년 5월 17일 자정을 기해 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였다. 동시에 3김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와 학생 대표들, 종교계, 학계 인사들이 구속되었다.⁴¹⁾

39) 이 세대의 연령 집단에 속하는 후기 부머들인 소위 '386세대'를 대상으로 1999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1순위 사건으로는 87년 6월 항쟁(37퍼센트)과 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이었다. 그리고 2순위 사건으로는 51퍼센트가 IMF 경제 위기를 들었다. 한상진 엮음, 386세대, 그 빛과 그늘 (서울: 문학사상사, 2003), 16.

40) 김용삼, 베이비붐 세대의 대폭발·민주화·올림픽·IMF (월간조선 1998년 11월호 별책부록) (서울: 월간조선사, 1998), 16.

41) Ibid., 17-21.

그 와중에서 광주에서는 1980년 5월 18일 군과 학생, 시민 간에 충돌이 촉발되었고, 그 항쟁은 5월 27일까지 계속되었다. “광주에 진입한 군인들은 광폭한 진압작전을 펼쳤고 이에 맞서 학생과 시민들이 저항” “광주 곳곳이 피로 물들었고 광주 시민과 진압군 간에 총격전”이 벌어졌다. 그 과정에서 “사망자 2백37명, 부상자 2천6백27명, 전시도 아니고 적군과의 전투도 아닌 광주 시민과 대한민국 국군과의 충돌에 의해 야기된 인명 피해”⁴²⁾를 낳았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당시 계엄 사령관이었던 이희성은 1980년 5월 21일, 광주에서 5월 18일부터 4일째 학생들과 시민들이 합세한 소요사태가 벌어졌다고 발표하였다. 특히 이 날 광주 시민들에게는 이 사태가 “상당수의 타 지역 불순인물 및 고정간첩들이 사태를 극한적인 상태로 유도하기 위해 여러분의 고장에 잠입 터무니없는 악성 유언비어의 유포와 공공시설 파괴 등을 통해 지역감정과 난동 행위를 선동한데 기인한 것”⁴³⁾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신 군부의 만행과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부머들(Boomers)은 말할 수 없는 분노와 함께 절망감을 맛볼 수밖에 없었다.

특히 베이비 부머들은 12·12, 5·17, 5·18을 거치면서 미국의 신 군부에 대한 용인적인 태도와 군인 동원과 관련한 미국의 존재에 대해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기존 체제가 유지되는 한 민주화와 사회정의는 실현될 수 없다는 판단과 더불어 신 군부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는 신념을 강화시켰다.⁴⁴⁾ 그것은 “미국이 제공한 옥수수 빵과 분유를 배급받아” 먹으며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고, “밀가루 포대에 새겨진 한국과 미국이 악수하는 장면에 익숙한”⁴⁵⁾ 세대로서는 배신감 그 자체였다. 결국 미국을 혈맹과 우방이라는 믿어왔던 부머들에게 그러한 배신감은 또 하나의 깊은 상실감으로 남았다.

광주를 유혈진압으로 분쇄하고 권력을 찬탈한 전두환 정권은 군사독재 지배에 대한 재야와 학생 운동의 도전을 강압적으로 탄압했다. 이 과정에서 1987년 1월 19일,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⁴⁶⁾이 발생하였고, 치안본부는 박종철군이 조사 과정에서 ‘책상

42) Ibid., 21-22.

43) 김용철, “현대사 다시 쓴다: 광주민주화운동,” 한국일보, 1999년 10월 12일, 16.

44) Ibid., 16.

45) 김용삼, 베이비붐 세대의 대폭발·민주화·올림픽·IMF, 26.

46) 그 이전에도 1986년 6월, 소위 부천서 성 고문 사건, 민청련 의장 김근태 고문사건 등이 있었다. 서울대 제적생 권인숙 양이 연행되어 조사 받던 중 담당 형사 문귀동에 의해 옷을 벗

을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1987년 5월 21일, 박종철군은 물고문에 의해서 죽었고, 그 사건 자체가 축소, 은폐,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여기에 1987년 4월 13일에 나온 대통령직선제 불가와 호헌 조치 발표는 민주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강한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⁴⁷⁾

이렇게 대규모 국민 저항에 부딪친 권력 핵심은 6월 19일 군을 동원하여 진압하려했으나 군부 일부와 미국의 반대로 좌절되자 민주화 세력의 요구를 수용하는 수습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전두환과 김영삼의 청와대 회담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얻지 못한 민주화 세력은 6월 26일, '민주헌법정취 국민평화대행진'을 벌였고 30여 개 시, 도에서 총 130만 명이 참가하였다. 그 결과 집권 세력은 8개항의 6·29 선언으로 국민항쟁에 항복하였다.⁴⁸⁾ 이 6·29 선언은 대통령 직선제, 김대중 사면복권, 구속자 석방, 지방 자치 조속 실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야말로 고대하던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었다.

그러나 국민들은 1980년의 봄에 이어 민주화 세력의 분열상을 다시 한번 목격해야 했다. 김영삼을 지지하는 측은 막판에 가면 우세한 쪽으로 표가 몰릴 것이라고 낙관했고, 김대중 지지 세력은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이 분열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선거가 시작되자 지지 세력은 영·호남으로, 영남권은 다시 노태우의 대구·경북과 김영삼의 부산·경남으로 분열되었다. 결과는 그러한 분열 덕분에 36퍼센트의 지지를 획득한 노태우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되었다.⁴⁹⁾ 이러한 결과를 맞이한 베이비 부머들은 다시 한번 민주화를 이룰 기회를 잃어버린 절망감과 함께 깊은 상실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긴 채 극도의 공포심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 고문을 당했고, 1986년 9월 삼민투 배후 조정 혐의로 김근태씨가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에 의해 10여 차례 전기고문, 물고문, 고춧가루 고문, 소금물 고문을 당한 사건들이 있었다.

47) 김일수,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동아일보 편집부 편, 현대한국을 뒤흔든 60대 사건 (서울: 동아일보사, 1988), 341-345.

48) Ibid., 345.

49) 김용삼, 베이비붐 세대의 대폭발·민주화·올림픽·IMF, 52-53.

4 IMF의 최대 피해자

이와 같이 베이비붐 세대는 그들의 학창 시절을 그야말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면서 보냈다. 그들은 성장기에 가부장적 권위주의와 개발 독재, 경제 성장 지상주의의 분위기 속에서 자랐다. 청소년기와 학창 시절을 유신과 광주 민주화 운동, 가깝게는 6·10 민주항쟁을 체험하며 한국 사회의 민주화에 직접 나섰거나 그것을 지지했다. 이제 그들은 몇 번의 역사적 좌절 끝에 학교를 졸업한 후 직장에 등지를 틀고 기성세대가 이룩한 부와 성장의 신화를 쫓아 열심히 뛰는 세대가 되었다. 그런데 그들이 한참 활동할 나이에 'IMF 체제'가 그들을 갑자기 덮쳤다.

김영삼 대통령은 집권 초기인 1993년 4월 실시한 대중적인 인기스타 여론조사에서 10대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우상으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당시 톨런트와 운동선수를 제칠 만큼 높은 인기는 그가 퇴임할 때인 1998년 3월에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지탄받을 인물 2위로 곤두박질쳤다. 과연 그 중간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김영삼 대통령이 이끌던 문민정부 시절인 1995년 5월 11일, 통계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앞두고 25개 OECD 회원국들의 경제지표를 발표하였다. 거기에서 한국은 경제성장을 1위, 국내 총생산(GDP) 규모 9위, 무역량 10위 등 경제적 지표에서 대부분 상위권을 기록하였다.⁵⁰⁾

그러나 문민정부 지도자들이 낙관하고 있는 사이 “외채 규모는 1992년 4백39억 달러에서 96년에 1천 45억 달러, 97년 말에는 1천 5백 30억 달러로 눈 깜짝할 사이에 폭증”⁵¹⁾했다. 이는 그동안 지속해온 정실 자본주의와 정경 유착으로 인한 비능률과 경제적 자원 분배의 왜곡이 가져온 결과였다. 특히 외환 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재벌들은 방만한 차입경영과 몸집 불리기를 계속해 온 결과 한국 경제에는 경상수지 적자와 외채가 누증되었다. 게다가 국제 금융질서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정부의 정책과 대응의 미숙함이 결국 IMF 사태를 불러온 것이다.⁵²⁾

한국 정부는 1997년 11월, 극심한 외화 부족을 견디지 못하고 IMF에 구제금융

50) Ibid., 62-63.

51) Ibid., 63.

52) 김진영, “현대사 다시 쓴다: 경제위기 발생과 IMF 구제 금융신청,” 한국일보, 1999년 12월 27일, 21.

을 신청하기에 이른다. 일인당 국민소득이 일만 달러에 이르고 선진국의 모임인 OECD에 가입하여 세계 선진 권에 접어들었다는 환상에 젖었을 때 IMF는 모두에게 충격 그 자체였다. 여러 원인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일반인의 것이었다. IMF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IMF가 요구한 혹독한 구조조정 고통을 겪어야 했고, 적절치 않은 정책으로 흑자부도와 실업자 양산이라는 희생을 감내해야 했다.⁵³⁾ 이렇게 기업이나 기존의 고용시장에 실직 사태가 급증하자 이제 막 직장을 얻으려는 청년실업 문제도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하였다.⁵⁴⁾ 이들은 학교를 막 졸업하거나 사회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른바 '상실 세대'가 된 것이다.

이러한 IMF 체제하의 감원과 해고, 실업의 최대 피해자는 뭐니뭐니해도 베이비 붐 세대였다. 구체적으로 당시 실업 급여 신청자의 연령 계층별 비중을 살펴보면, 30대 중반과 40대 중반 사이의 연령층인 베이비 붐 세대가 실업 대란의 가장 큰 피해자임을 알 수 있다.⁵⁵⁾ 전체 실업 급여 신청자 중 이 전후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7.8 퍼센트를 차지하여, 25-34세의 24.4퍼센트와 45-54세의 24.5퍼센트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⁵⁶⁾ 그래서 엘지경제연구원의 김성식 연구원은 "실직자의 연령층을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인구 구성비를 이뤘은 베이비붐 세대의 실직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고 있다"⁵⁷⁾고 말했다.

이 베이비붐 세대는 6·25의 폐허 속에서 베이비붐을 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 콩 나물 시루 같은 교실에서 3부제 수업을 받고 자랐으며 치열한 입시경쟁과 취업 경쟁을 뚫고 성장했다. 피끓는 젊은 시절에는 가장 암울한 유신체제를 겪었고, 10·26이

53) Ibid., 21. 당시의 정서를 대변하는 신조어들에는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일그러진 자화상이 잘 표현되고 있다. 명예퇴직과 정리해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해고되자 IMF의 머리글자를 따서 "I am fired," "I am finished,"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그 해고의 위기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I am fine!"이라고 안도했다. 또 이렇게 IMF의 고난과 맞서 싸운다는 뜻의 "I am fighting"이 유행하기도 했다.

54) 당시 젊은이들 사이에는 대학 졸업 자체를 미루거나 학업을 마친 후에도 계속 학교에 머무는 현상이 많이 나타났다. 그들을 가르켜 '캥거루족', '모라토리움(moratorium) 인간' 이라고 불렀고, 또한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외출마저 삼가는 '잠수족', 방바닥에 달라붙어 있다가 누가 와서 뒤집어야 돌아놓는다는 백수를 '호떡족'이라 불렀다.

55) 장혜경 외, 실업에 따른 가족생활 및 여성의 역할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1999)를 참조하라.

56) 오철우, "베이비붐 세대가 최대 피해자," 한겨레신문, 1998년 3월 23일, 12.

57) Ibid., 12.

났을 때는 애도하던 기성세대와 교실에서 눈물을 흘리던 후배 세대 사이에서 남몰래 희망을 찾아내던 이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직장에 들어가서 밑바닥에서 죽어라 일하다 이제 막 지위를 누릴 만하니까 IMF 퇴출 바람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크게 보아 이들은 경제적 고도성장의 토양 위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IMF 위기를 관통하는 삶을 통해 중산층의 기본적인 꿈을 접어야 했다. 자기 집을 마련하고 가족들을 잘 부양할 충분한 소득을 얻는 꿈이 날아가 버린 그들은 인생의 황금기에 오하려 좌절과 방황 속에서 헤매는 비운의 세대가 되었다.⁵⁸⁾ 역사의 격동을 거처 오며 그래도 가능하다고 믿어왔던 가정이나 일에 대한 기대가 환상일 수 있다는 상실감이 이들을 괴롭혔다. 그래서 이 세대 원 중의 하나인 구형진(서울대 의예과 87학번) '눈에미소안과' 원장은 이 세대가 "이 시대의 주축이면서도 가장 푸르려야 할 청년기에 가장 우울했던 시대를 산 사람들이 아닌가 싶다"⁵⁹⁾라고 했다.

이렇게 역사의 격동기를 질풍노도와 같이 달려오는 동안 그들의 꿈과 열망이 무산된 자리에 남은 정서적 결정체는 일종의 상실감(傷失感, Brokenness)이었다. 이 상실감은 근본적으로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느낌과 기대하던 환상이 깨지는데서 오는 복합적인 상한 감정이다.⁶⁰⁾ 이것은 그들이 향유해야 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코 온전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아픈 감정이다. 또한 원하던 바람이 깨어져 더 이상 기대를 가지고 살 수 없다는 실망스런 감정을 포함한다.⁶¹⁾ 사실 그들의 부모세대는 상대적으로 상실감이 적었다. 왜냐하면 생존이 문제되었던 부모 세대는 미래에 대해 무엇을 기대할 수 없었고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실감도 적었다. 그러나 이 부머 세대는 다른 어떤 세대들보다 풍요롭고 보장된 삶이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성장하였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높은 기대는 그것이 깨어졌을 때 오는 더 큰 상실감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상실감이야말로 베이비붐 세대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부정할 수 없는 영적 특성이다. 이 상실감은 이들 세대의 공통의 정서를 구성하는 기본 소재가 되어 이것과 더불어 나타나는 다른 영적 특성들을 만드는 배경이 된다. 또한 이 깨어지

58) 송호근, 한국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24.

59) 한상진 역음, 386세대, 그 빛과 그늘 (서울: 문학사상사, 2003), 291.

60) Craig K. Miller, Baby Boomer Spirituality: Ten Essential Values of a Generation (Nashville: Discipleship Resources, 1992), 14.

61) Ibid., 14.

고 잃어버린 상실감은 향후 이들로 하여금 끈질기게 자기를 찾도록 하는 자기 추구의 근원지가 되기도 한다. 결국 이 상실감은 이들 세대가 흡수하여 그 세대를 형성하는 깊이 내린 영적 뿌리이다.

제 2 절 외로움(Loneliness)

이러한 상실감의 세대 정서는 그들로 하여금 내면의 기저에 우울하고 슬픈 감성을 갖게 하였다. 이러한 정서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으로 보면 단순한 외로움의 정서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상 그것의 깊은 뿌리는 그들이 살며 맺었던 관계 경험에 기초한다. 그들에게는 다른 세대와는 다른 그들만의 시대와 그것을 헤쳐오는 동안 경험한 독특한 관계들이 있어 그것으로 인해 유난히 외로운 시대를 살고, 지금도 그것에서 연유한 삶의 스타일을 간직하고 있다.

1. 이들 세대의 증후군

베이비붐 세대 중에서 전기 부머에 속하는 소위 “475세대”들이 그들의 경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한 그들만의 인터넷 사이트를 구축하였다.⁶²⁾ 거기에 ID가 ‘새드무비’인 한 부머는 글을 올려 고등학교 시절 이후 자신이 경험한 정서를 적고 있다. 그는 고등학생 이후 슬에 취해서건 아니건 버스 뒷자리에 물끄러미 앉아 차창 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가 버스 종점에 내려 낯선 동네를 어슬렁거리는 버릇이 있었다. 그는 스스로 그런 행동의 원인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아마도 그것은 외로움....슬에 취해 까닭 없이 친구 건 그저 아는 사람한테 전화를 하던 내 친구 녀석과 그 친구의 구부정한 뒷모습을 담은 늦은 밤 공중전화 박스의 풍경과 같은....그건 외로움의 표현이었을 겁니다.⁶³⁾

이러한 외로움은 비단 그 한 사람의 정서라고 말할 수 없다. 그것은 베이비 붐

62) www.people475.com.

63) 이만동 외, 그들은 우리를 475라 부른다, 217.

세대의 세대원들이 공감하고 있으며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그들만의 정서이기도 하다. 그것은 이 세대가 성장할 때 특히 많이 불렀고, 그들의 정서를 담아내어 그들의 “절망과 희망을 도도하게 포착한”⁶⁴⁾ 대중가요들 속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다. 그 가운데에는 대표적인 절편으로 송창식이 부른 ‘고래사냥’이 있는데, 이것은 “70년대의 내면의 증속도를 압축적으로 형상화”⁶⁵⁾한 것이었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 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보이는 건 모두 돌아앉았네
자 떠나자 동해바다로 삼등 삼등 완행열차 기차를 타고
간밤에 꾸었던 꿈의 세계는 아침에 일어나면 잊혀지지만
그대로 생각나는 내 꿈 하나는 조그만 예쁜 고래 한 마리
자 떠나자 동해바다로 신화처럼 숨을 쉬는 고래 잡으러...⁶⁶⁾

이들 세대가 청춘을 보냈던 70-80년대는 슬과 화염병이 책보다 훨씬 가까운 시절이었다. 그들은 강요된 현실과 자신들이 삶에 대해 기대하던 것들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보지만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었다. 그 슬픔을 딛고 일어나 무엇을 하려해도 억압과 강제된 이념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들은 꿈꾸던 희망이 잠을 깨면 사라지는 상황 속에서 우울하고 슬픈 정서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즉 자신들의 삶에서 채울 수 없는 상실감으로 깨어진 마음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정서 속에 외로움을 배태하게 되었다.

이들이 경험한 외로움은 단순히 홀로 남겨졌다는 일시적인 감정 상태 이상의 훨씬 깊은 어떤 것이다.⁶⁷⁾ 이들은 역사의 격동을 온몸으로 부딪쳐 살면서 나름대로의 세대적 연대를 확인하고 살았다. 극복해야 할 공통의 과제와 공유된 시대정신은 그들로 하여금 공통의 정서와 연대 의식을 자연스럽게 하였다. 그런 맥락에서 이들이 경험한 외로움은 단순히 홀로 남겨졌다는 감정이나 고립감이 아닌 그들 경험의 산물로 생성된 것이다.

이 외로움의 주제로 광목할만한 저서를 남긴 로버트 S. 웨이스(Robert S.

64) 강현, “고래사냥,” 조선일보, 1997년 11월 10일, 34.

65) Ibid., 34.

87) 최인호 작사, 송창식 작곡, 송창식 노래. http://www.windbird.pe.kr/no_goraesanyang.htm.

67) Craig K. Miller, Baby Boomer Spirituality, 18.

Weiss)는 외로움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다른 곳에서 찾는다.

외로움은 항상 어떤 특별한 형태의 관계가 부재하거나 아니면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여 어떤 특별한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어있지 못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것은 가깝고, 정말로 친밀한 결속에 대한 준비 부재에 대한 반응이다.⁶⁸⁾

즉 외로움이란 홀로 있기 때문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관계가 깨어졌을 때 나타나는 결과이다.⁶⁹⁾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과 같이만 있으면 치유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외로움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최근에 배우자가 죽거나 이혼하여 홀로된 사람은 단순히 어떤 사람과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 외로움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이 외로움은 깨어진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든지 아니면 새로운 인간관계가 의미 있게 형성되든지 하지 않으면 결코 치유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외로움을 근본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그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선 살펴야 한다. 그것과 관련하여 제임스 프랜더(James Flanders)는 그의 연구에서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인간 접촉의 개념'을 소개한다. 즉 의미 있는 관계가 형성되려면 진정한 인간적인 접촉이 일어나야 하고, 그 인간적인 접촉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요인 몇 가지가 있다고 한다. 그에 의하면, 의미 있는 인간관계가 형성되려면 1) 잦은 상호 접촉과 시간, 2) 역할 부담이 전제되지 않는 비공식적인 만남, 3) 자기 노출과 폭로, 4) 감동, 5) 오랫동안의 자원의 나눔, 6) 쌍방 책임의 공정한 나눔, 7) 친밀감 등이 핵심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⁷⁰⁾

만약 그러한 인간 접촉이 인간 관계를 형성하고 의미 있는 관계만이 외로움을 방지한다면 이 세대의 외로움은 그런 관계 형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을 전제한다. 특히 이 외로움의 영성이 개인이 아닌 세대적 현상이라면 인간 접촉의 결여와 의미 있는 관계 형성을 막는 집단적이고 공통의 어떤 현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다. 과연

68) Robert S. Weiss, Loneliness: The Experience of Emotional and Social Isolation (Cambridge, Massachusetts: MIT Press, 1973), 14.

69) Craig K. Miller, Baby Boomer Spirituality, 18.

70) Letitia Anne Peplau and Daniel Perlman, Loneliness: A Source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 (New York: John Wiley & Sons, 1982), 172-174.

그들의 정서를 외로움으로 형성시킨 공통의 경험과 현실은 과연 무엇이었나?

베이비붐 세대는 태어나서 상급학교나 사회로 진출할 때마다 어김없이 과밀과 과잉의 현실을 통과 의례처럼 경험하였다. 이들 세대의 명칭대로 이들은 한국 전쟁이 끝나고 출산율이 급증하던 시기에 태어나고 자랐다. 1955년 이후 1960년대 중반까지는 한국 역사상 가장 높은 다산의 시기였다. 1957년 한해에만 91만 3천 6백 명이 태어나 1941년 신생아 수의 두 배를 기록하였다.⁷¹⁾ 이러한 현상은 1962년 가족계획 사업이 시작되어 1966년 소위 '백 말띠 해'의 대도시에서 출산율이 급감하던 시기까지 계속되었다.

2 유난히 심했던 경쟁

이 세대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부터 넘치는 학생들로 인해 비좁은 교실에서 3부제 수업을 받아야만 했다. 실제로 1965년에서 1966년 기간 중 졸업한 수가 감소현상을 보인 반면 베이비 붐 세대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1966-1967어간의 졸업생 수는 6만 2576명으로 증가하고, 그 이듬해에는 다시 10만 3931명으로 급증하였다. 또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도 주로 이들이 초등학교를 다닌 1965-1968 기간 중에 약 65명으로 1960년의 57.4명과 1978년의 53.0명과 현격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⁷²⁾ 그래서 많을 때는 한 반에 70-80명이 함께 공부하는 '콩나물시루'와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기도 하였다.

이들이 중·고교에 진학하자 무시험 추천제가 시행되었다. 해방직후 초등학교 졸업생들의 중학교 진학률이 15.6퍼센트(46년), 16.8퍼센트(47년), 20.8퍼센트(48년), 19.7퍼센트(49년), 25.8퍼센트(50년)로 향상되고는 있었으나 여전히 매우 낮은 상태였다.⁷³⁾ 그러나 베이비붐을 타고 출생한 이들이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를 진학하기 시작하자 입시의 과열화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 되었다. 1970년 문교부의 통계에 의하면 중학교의 한 학급당 인원수가 51-60명인 곳이 전국적으로 32.7퍼센트, 61명에서 70명인 곳이 55.1퍼센트, 71-80명인 곳이 7.3퍼센트, 81-90명인 곳이 0.6퍼센트였으며, 91명이 넘는 학급도 8군데나 되었다.⁷⁴⁾ 이렇게 이들은 중학교 입학에는 무시험의 헤

71) 함인희, "베이비붐 세대의 문화와 세대 경험," 232.

72) Ibid., 234.

73) 이길상, "현대사 다시 쓴다: 중학 무시험 입학시험과 고교평준화," 한국일보, 1999년 8월 10일, 14.

74) 이규환, "중학무시험입학제 실시", 현대 한국을 뒤흔든 60대 사건 (서울: 동아일보사,

택을 누렸지만 많은 동료들 사이에서 고교 입시를 위한 치열한 경쟁에 내몰렸다.

대학에 진학할 때가 되자 이들 세대 앞에는 재수생 누적과 과외 문제라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대학 입시에 실패하면 인생의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회 분위기가 대학 입시를 치열한 경쟁으로 내몬 것이다. 대학에 입학해서도 후기 부모들은 입학은 쉽게 하고 졸업은 어렵게 한다는 졸업 정원제라는 다분히 의도된 경쟁 체제의 상황 속에서 대학생활을 해야 했다. 결국 이들은 계속 경쟁에서 이기고 올라가야만 생존권이 담보되는 경쟁을 하면서 다시 비좁은 취업문을 뚫기 위해 모진 애를 써야만 했다.⁷⁵⁾

사회에 나온 이들은 서서히 연령적으로 직장 내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세대가 되었다. 20대의 젊은 세대와 기성 질서를 연결하며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중심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들은 외형적으로 튀는 젊은 세대와 권위주의에 익숙한 기성세대의 틈새에서 가교 역할을 무사히, 그리고 원만하게 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70-80년대의 권위주의 시대에서 성장했으면서도 민주화의 치열한 현장을 살아온 경험으로 그 역할을 건강하게 행함으로써 그들은 밖에서 바라보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기도 한다.⁷⁶⁾

그러나 이들의 생활은 바쁘고 쪼들리는 일상의 연속이었다. 25평 내외의 아파트, 자동차, 중간 직급의 직장 내의 지위, 휴가철의 해외여행, 한 달에 두 세 번의 외식, 얼핏 살펴보면 이들의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넉넉한 것이다. 그러나 한 꺾질만 벗겨보면 주름살투성이의 상대적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30대 남성의 경우, 평균 저축액은 1,640여만 원, 이들이 지고 있는 빚의 평균은 2,817만원, 1년 치 수입 역시 1,800만 상당이다. 소형 아파트에 불과 하지만 그나마 주택 보유율도 48퍼센트로 절반을 밑돈다. 한 주간지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30대 셀러리맨의 36퍼센트와 40대 34.7퍼센트가 '직장생활의 스트레스 때문에 부부의 성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들 중 30대는 이혼율이 25퍼센트로 가정생활도 다른 세대에 비해 많이 불안정하다.⁷⁷⁾

이 중에서 이들 세대를 가장 주눅 들게 하는 것은 집 값만이다. 1980년에서 1990년 초에 사회에 진출한 부모들은 엄청나게 치솟는 집값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1988), 158.

75) 김용삼, 베이비붐 세대의 대폭발·민주화·올림픽·IMF, 10-11.

76) 이동국, "한국의 30대 그들은 어디에 서 있나: 자화상·타화상," 한국일보, 1997년 1월 1일, 32.

77) Ibid., 32.

계속 치솟는 집값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88년에 14.6퍼센트, 89년에는 21퍼센트를 기록하는 상승을 보였다. 설사 이들이 어렵게 집 장만을 하였다 하더라도 한국의 상황에서 사교육비라는 복병이 기다리고 있다. 이 사교육비의 부담은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큰돈을 벌지 못하는 대다수 부모들에게는 공통적인 부담인 것만은 틀림없다. 여기에다 교통비, 외식비 부담 또한 만만치 않다. 현대생활의 필수품이라는 자가용 유지비도 만만치 않고, 외식비도 89년 6.5퍼센트에서 95년 9.6퍼센트로 늘어났다.⁷⁸⁾ 그래서 경제사회연구원 이태열 박사는 “이들은 전반적으로 볼 때 경제적으로 쪼들리면서도 부지런히 경제적인 삶의 기쁨을 마련해 가는 개미 같은 존재들”⁷⁹⁾이라고 말한다.

이런 이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보여주는 보고가 있어 눈길을 끈다. 1994년 대한생명의 조사에 의하면, 자사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한 사망 보험금 및 장애, 입원급여금 지급 내용을 분석한 결과 30-40대 사망이 전체의 65퍼센트를 차지하였다. 특히 사망사고 중 30-40대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36.4퍼센트, 28.95퍼센트를 차지하여 전체의 65.3퍼센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사고의 원인으로는 재해가 36.9퍼센트로 가장 높았고, 암, 뇌혈관 질환, 간장 질환 등으로 인한 사망도 47.6퍼센트에 이른 것으로 분석되었다.⁸⁰⁾ 이들 사망사고 중 남자가 71.1퍼센트를 차지, 여자(28.9퍼센트)에 비해 크게 높았다.

그렇다고 여성 부모들이 쉬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면 그것을 큰 오해이다. 육아는 이들에게 있어 가장 큰 짐이다. 직장을 갖고 있는 이 연령층의 주부들치고 아이 맡길 곳이 없어 애태운 경험이 없는 사람이 없다. 탁아나 보육 시설은 턱없이 모자라고 가족 관계가 변하고 있는 요즈음 예전처럼 시댁이나 친정에 기대하기도 어렵다. 먼 친척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아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도 적지 않다.⁸¹⁾

예를 들어, 지난해(1996년)까지 서울 K대학 홍보실에 근무하다 사직서를 낸 김 모(35세·여·강동구 암사동)씨의 경우 탁아문제 때문에 8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다. 첫 아이(4세)는 친정 부모님이 맡아 주었지만 둘째 아이(2세)는 도저

78) 서사봉, “한국의 30대 그들은 어디에 서 있나: 30대의 살림살이,” 한국일보, 1997년 1월 16일, 15.

79) Ibid., 15.

80) 안의식, “30-40대 사망 전체 65퍼센트,” 서울경제신문, 1995년 2월 17일, 4.

81) 최윤필, “한국의 30대 그들은 어디에 서 있나: 아이 키우기,” 한국일보, 1997년 7월 28일, 21.

히 그럴 수 없었다. 한동안 보모(Baby Sitter)에게 아이를 맡겼지만 신뢰가 가지 않는 데다 자신의 수입 중 100여만 원이 보육료로 거의 나가는 상황에서 직장생활을 계속하는 것은 어려웠다. 결국 직장을 그만 두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⁸²⁾ 그래서 삼성복지재단이 1996년 6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육아는 맞벌이 부모의 가장 큰 갈등요인(58.7퍼센트)으로 꼽혔다.

이렇듯이 여가 없이 바쁘고 쪼들리는 삶을 사는 부머 세대들은 갖은 인간 접촉이 가져다주는 의미 있는 관계를 갖기가 어렵다. 성장 과정에서 계속되어온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잠재되고 실제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바쁜 생활과 가정에서의 바쁜 나날은 이들에게 단순히 필요에 의한 만남이 아닌 의미 있는 관계를 박탈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정서 속에는 의미 있는 관계 부재가 야기한 외로움이 심화되어 내면화된 공통의 영성이 자리하게 되었다.

3. 의미 있는 관계의 부재

그 뿐 아니라 이들의 바쁜 일상은 자녀 양육이나 집안일을 처리하는 방식에도 일대 변화를 가져왔다. 즉, 어머니 중심의 전통적인 가치관이 무너지면서 자녀 양육에서 아버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는 점이다. 1996년 모 그룹이 400쌍의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30대 응답자 중 50.1퍼센트가 '남편이 가사 노동의 30퍼센트를 분담한다'고 대답했다. 50퍼센트를 분담한다는 응답도 14.8퍼센트에 달했다. 회사원 이진욱(36세, 관악구 신림동)씨는 "직업상 출장 야근이 잦아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지 않지만 짬이 나면 거의 모든 시간을 아이와 함께 보낸다"고 했다. 이런 경우 설거지와 식사준비를 아내와 철저히 분담하고, 휴일이면 집안 청소 등도 역할을 나누어 맡는다.⁸³⁾

이러한 역할 분담의 변화는 단순히 육아나 가정 일에 그치지 않고 부부관계 그 자체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들은 재산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그 재산을 공동의 명의로 등기를 하고, 월급 통장이 따로 있어 자연스럽게 개별적인 수입·지출 관리가 이루어지는 추세이다.⁸⁴⁾ 예를 들어 만화 '반쪽이'의 작가 최정현(37세)씨와 그

82) Ibid., 21.

83) Ibid., 21.

의 아내 영화평론가 변재란(36세)씨의 경우 생활비 부담에 부부별산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상대방 월수입이 얼마인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⁸⁵⁾ 결국 이 세대는 과도기이기는 하지만 학창시절에 몸에 배었던 민주방식이 가정이나 사회 생활에서 적용되면서 역할 분담이 뚜렷하게 전제됨으로써 예전과는 다른 인간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결국 그러한 인간관계의 변화는 그들에게 외로움이라는 정서를 자신들의 것으로 받아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베이비 부머들은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공부 이외에는 쓸데없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았다. 그들은 오직 성적을 위해 지나치게 경쟁하고 미래에 대해 초조해 해야 하는 환경 속에서 자랐다. 그들은 콩나물시루 같은 교실에서 3부제 수업을 받으면서 치열한 입시 전쟁과 취업 전쟁을 뚫고 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주변의 또래 집단을 자신들과 함께 성장하는 동료로 보기보다 자연스럽게 경쟁의 대상으로 간주하였다.

그러한 설정 아래서 그들은 또래들 앞에서 자신의 문제를 꺼내 놓고 깊이 있는 내면을 나눌 수가 없었다. 또래 집단이 동료라기보다는 자신을 감춘 채 경쟁을 통해 넘어서야 할 적대적인 대상으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여겨지기 일쑤였다. 그래서 그 경쟁심과 경계심은 대학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았고 그들의 내면에 숨어있는 복병이었다. 1987년 서울대학교 의예과에 입학했던 한 부머는 그런 심정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아무 것도 모르는 학교에 들어왔을 때, 우리 과 아이들에게 처음 느꼈던 것은 왠지 모르는 적대감과 경쟁심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 과 성원들에게서만 느꼈던 것은 아니었다. 고등학교 때까지의 삶이 나도 모르게 너와 나 사이의 벽을 두텁게 쌓아 놓았기 때문이다.⁸⁶⁾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을 내보이거나 자신의 문제를 내놓고 함께 나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경쟁 상황에서 자기를 쉽게 드러내고 보여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84) 이동국, "한국의 30대 그들은 어디에 서 있나: 탈 권위의 가정," 한국일보, 1997년 2월 27일, 29.

85) Ibid., 29.

86) 김명희, "우물 밖에서 본 하늘," 한상진 엮음 386세대, 그 빛과 그림자 (서울: 문학사상사, 2003), 43.

아니라기보다는 오히려 위험한 일이다. 따라서 사람들과의 깊이 있는 접촉 없이 형식적인 인사나 관계만을 맺으며 그런 관계로 만족하는 상황에서는 관계가 주는 안정감이나 감정적 필요 충족은 아예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결국 이들은 필요에 의해 자신을 노출해야 하는 경우에도 그 대상을 가까운 동료보다는 모르는 익명성에 자신을 노출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⁸⁷⁾

또한 빠르게 변하는 사회를 살아가며 어떻게든 이겨야 하는 개인주의 사회를 살다보니 부모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짧은 접촉도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익숙해져 버렸다. 더욱 슬픈 현실은 그렇게 자신이 주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접근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접근해 오는 것조차 꺼려하고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그들은 인간 접촉의 깊이를 통해 관계가 주는 감동을 일상적으로 차단하고 산다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이들의 학창 시절은 그 시대적 암울함과 현실의 극복이라는 요청 앞에서 역설적으로 서로가 하나 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한편에서는 시위와 최루탄과 싸우는 이들이 있는 반면 도서관 열람실에서 책과 씨름하며 땀을 흘리는 학생들도 많았다. 한 세대 안에서도 현실 인식의 차이와 행동 양식의 대별은 같은 현실을 사는 이들을 양극화하여 대척점에 세우는 꼴이 되었다. 그래서 내일보다 오늘을 중시하며 운동권의 시위와 집회에 무관심하거나 반대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사회변화세력을 자임하는 현실 참여파로 나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런 양극화가 보여준 극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1988년 6월 12일, 6·10 남북학생회담 시위의 와중에서 발생하였다. 한 학우가 시위 주동혐의로 구속되고 전경인 다른 학우는 대학생이 던진 화염병을 피하려다 다쳐 숨진 사건이다. 구속된 김일(21세)군과 숨진 김용덕군은 같은 외국어대학교 아랍어과 학생으로 한 때 같은 하숙집에 살았던 사이였다. 둘은 함께 바둑을 두며 친한 사이였으나 1학년 농촌봉사활동을 다녀온 이후 자주 논쟁을 하였다. 전직 경찰관의 아들인 김용덕군은 현실참여의 회오리 속에 고민하다가 시위 진압이 주 업무인 전경에 자원입대 했고, 광주가 고향인 김일군은 총학생회 사회부장을 맡으며 운동의 핵심멤버가 되어 향후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⁸⁸⁾

87) David Sheff, "What really matters," *Rolling Stone*, May 5, 1988, 54. 미국의 부모들의 경우, 자기들에게 문제가 생겨 그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 부모나 친구, 성직자보다는 아예 익명성이 보장되는 정신과를 찾아가는 비율이 전체의 63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의 양극화는 그것이 만들어내는 문화도 양분시켜 각각의 언어, 노래, 서적, 복장, 술 마시는 형태도 판이하게 갈라놓았다. 운동권에 속해 있는 학생들은 시위 때 자주 불리는 노래를 듣거나, '소외된 이웃' '민족' '통일' 등의 말을 주로 사용하고 수수한 옷만을 고집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사회과학계통의 서적을 커리큘럼에 따라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이들의 결혼식 풍경 역시 다르다. 대개 재야인사의 주례로 사회단체 강당에서 주로 열리는데 신랑 신부는 보통 한복을 입는다. 서클 후배들이 집단으로 몰려와 '상록수' 등 의식가요를 축가로 합창하고, 결혼식이 끝나면 '이 험한 세상에 행복하게 결혼 따위를 한 선배를 치죄(治罪)하는' 타작 한마당을 벌이는 것이 보통이다.⁸⁸⁾

이런 양극화는 이념의 양끝 사이에서 고민하다 급기야 죽음을 부르는 일도 있었다. 1986년 5월 22일, 서울대 국문과 4학년 박혜정 양이 육군 장교 출신의 보수적인 아버지를 둔 가정과 사회의 부조리를 맞서 싸워야 한다는 의식의 틈바구니에서 고민하다 한강에 투신자살하였다. 그녀는 서클을 탈퇴하고 휴학 후 복학했으나 서클 동료가 구속되거나 분신자살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용기 없음과 이기성을 고민하다 다음과 같은 유서를 남기고 결국 목숨을 끊었다. "아파하면서 살아갈 용기 없는 자...살아감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없는 자, 부끄러운 삶일 뿐 아니라 죄지을 뿐이다."⁸⁹⁾ 또한 박양은 그녀의 일기장에서 성적 불량으로 학사 제적당할 처지에 놓인 학생이 시험장에 들어가고 싶어도 동료들의 눈총 때문에 결시, 결국 제명당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경우가 서로 다르기는 해도 그들이 살았던 시기는 그렇게 자의든 타의든 어느 한쪽에 서기를 강요하던 시대였다. 그 시절에 어느 편을 설 것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쪽과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서로 다른 입장에서 자기를 정직하게 노출하고 자기감정을 솔직하게 폭로하는 것은 쉽게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자기 노출의 정도가 인간관계의 깊이를 결정한다는 인식의 기준에서 보면 당시 사람들 사이의 의미 있는 접촉과 그것이 만드는 의미 있는 관계의 설정은 애초부터 무리인 상황이었다.

88) 한국일보 편집부 편, 신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상 (서울: 한국일보사, 1990), 61.

89) Ibid., 62-63.

90) 진성호 외, "한국의 주력 386세대: 갈라진 세상, 그 틈엔 설 땅이 없었다," 조선일보, 1999년 3월 9일, 42.

4 라이프스타일(Lifestyle)

한편 이들의 라이프스타일 또한 외로움의 영성을 심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예를 들어, 이들의 부모 세대는 결혼이란 서로에 대해 강한 헌신을 전제로 한 오랜 기간의 결속을 의미했다. 우선 남편과 아내 사이의 성적인 결합에 있어서 강한 헌신과 요구가 존재하였다. 설령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그런 이유로 아내가 같은 방식의 행동을 취함으로써 대응하는 일은 드물었다. 둘째로 이전 세대의 결혼은 경제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었다. 남편은 집 밖에서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일을 하고, 아내는 집 안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셋째로 부부 사이의 역할이 너무도 분명하여 결혼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다.⁹¹⁾

이러한 측면에서 베이비 부머들은 이전 세대와는 너무나 다른 것이 사실이다. 부머들의 성에 대한 규범은 부모세대의 그것보다 훨씬 허용적이어서 여러 상대들과 성적 필요를 채우는 것에 대해 관대해졌다. 사회적인 기준이 너무나 급속하게 변화되어 어떠한 행동이나 라이프스타일(Life Style)도 안전하기만 하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경향으로 바뀌었다. 규범의 성격도 옳고 그르다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선택의 성격을 띠게 된 것이다. 그래서 서로의 필요만 만족시킬 수 있다면 어떤 라이프스타일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가 일반화되었다.

그래서 베이비 부머들에게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큰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한 예로서 30대 독신 층의 비율이 급증하는 추세를 들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결혼 적령기를 넘긴 30대 미혼 남자의 비율은 90년 3.5퍼센트에서 95년 13퍼센트로 증가하였다. 30대 여성의 경우, 90년 41퍼센트에서 95년 48퍼센트로 늘어났다. 이것은 이 세대의 결혼관이 기성세대인 부모세대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특히 여성의 경우 여성의 사회 참여와 취업이 활발해지고 고학력이 늘어난 데 큰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⁹²⁾

이들은 결혼관에 있어 더 이상 기성세대의 것을 그대로 공감하지 않는다. '사회

91) Craig K. Miller, *Baby Boomer Spirituality*, 21.

92) 고재학, "한국의 30대 그들은 어디에 서 있나: 실용주의 사랑법," *한국일보*, 1997년 4월 3일, 15.

적인 지위와 안정감을 위해서'나 '2세를 얻기 위해서' '결혼할 나이가 되었으니 결혼한다'는 식은 이들에게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신경정신과 전문의 정동철 박사(61)도 "기성세대는 결혼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요즘의 30대는 돈, 학벌, 외모 등의 조건이 맞는다면 결혼을 고려할 수 있다는 편의주의적인 생각이 강하다"⁹³⁾고 지적한다.

이러한 경향의 다른 예를 살펴보면, 대기업 영업부 직원인 정모(35)씨는 경기도 일산에 7.5평 임대아파트에 혼자 살며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 그는 결혼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데다 혼자 있는 것이 편해 독신으로 지내고 있다. 결혼을 당연시하는 부모와 색다른 눈초리로 바라보는 주변의 이목이 없지는 않지만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는 결혼은 사양하고 있다. 물론 독신생활의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젊음 만큼 성에 대한 욕구가 강한데 그 해결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 부담 없이 사귀는 여자 친구들과 부정기적으로 만나 나름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⁹⁴⁾

대흥기획 전략연구소가 1999년, 30대 98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이들 세대의 이러한 생활 트렌드(trend)는 여전히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결혼하지 않고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59.4퍼센트가 답변하였고, '내가 능력만 되면 노후에 자녀와 따로 살겠다.'가 90.3퍼센트, '부모를 모시고 살지 않는 것이 더 좋다.'라고 39.3퍼센트가 응답했다.⁹⁵⁾ 이 조사는 베이비붐 세대가 의외로 외로운 세대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부머 세대의 결혼은 이렇게 정도 차이는 있지만 예전같이 오래 동안 지속되는 결속이나 나눔이 아니다. 그들 부모 세대가 결혼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평생에 걸친 헌신으로 받아들였던 것과는 달리 부머들은 결혼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들 세대에게 결혼이란 혼란스럽고 변화하는 세계에서 가능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생활 스타일이다. 이렇게 순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개방된 삶의 스타일은 필연적으로 외로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⁹⁶⁾

93) Ibid., 15.

94) Ibid., 15.

95) 386세대취재팀, "한국의 주력 386세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조선일보, 1999년 6월 1일, 39.

96) David Sheff, "Portrait of a Generation," Rolling Stone, May 5, 1988, 49.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 외로움이 기대와 성취 사이의 모순을 느낄 때 강화된다는 사실이다. 이들의 부모 세대는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로움을 상대적으로 느끼지 않았다. 반면에 부모들은 경제적 호황기에 성장하며 모든 것에서 최고를 기대하며 그 환상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였다.⁹⁷⁾ 그런 맥락에서 부모들은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도 그런 이미지와 싸우고 있다. 그 높아만 가는 기대의 닢에 걸린 부모들은 감정적 고립감과 함께 그 외로움을 내면에 담고 있는 것이다.⁹⁸⁾

요컨대, 이 부모 세대는 그 어느 세대보다도 많은 교육을 받은 세대이다. 높은 출생률과 교육을 통한 높은 기대감은 더 없는 경쟁을 초래하였고, 그 경쟁 과정에서 의미 있는 인간 접촉이 희박했던 이들에게 외로움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이 세대의 영성 중 하나인 '단절성' 때문에 이들은 부모와의 대화보다는 포레 집단과의 연대 의식을 더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막상 그 포레 집단과의 힘겨운 경쟁 과정에서 친구가 되어준 것은 부모나 동료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제 3 절 단절성(Rootlessness)

이와 같이 자신들이 기대하던 꿈과 열망이 강요된 억압으로 상실되고 같은 세대와의 의미 있는 관계조차 어려웠던 베이비 부모들은 자연스럽게 단절을 그 정서로 갖게 된다. 그 단절의 정서는 비단 전 세대와의 공식적 관계 뿐 아니라 전 세대의 이념이나 가치관, 권위와 질서에 대한 태도, 행동 방식 등 전반적인 패러다임과의 거부와 절연의 형식을 띠고 있다. 그 결과 그들이 보여준 강한 단절의 양상은 곳곳에서 표출되어 그들 세대의 선명한 정신적 성향으로 나타난다.

97) 이들의 높은 기대와 실망, 좌절의 정서에 관해서는 Martin E. P. Saligman, "Boomer Blues," *Psychology Today* (October 1988)를 참조하라.

98) Dan Kiley, *Living Together, Feeling Alone* (New York: Prentice Hall Press, 1989), 13.

1. 강한 저항적 기류

베이비 부모들의 정서에는 유난히 저항적인 기류가 강하다. 어떤 새로운 세대도 기성 세대에 대한 반항과 저항을 그들의 특징으로 하지만 경제적 팽창기에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문화적 억압기에 살았던 이 세대의 그것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⁹⁹⁾ 70-80년대의 역사적 경험과 그것과 연결된 정서를 담고 있어 부모 세대에 의해 특별히 애창되는 노래 중¹⁰⁰⁾에 김민기가 작사·작곡하고 양희은이 부른 ‘아침이슬’이 있다.¹⁰¹⁾

긴 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이슬처럼
내 맘에 설음이 알알이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낮고 장중하게 시작하는 이 곡은 그 노래 품으로 인해 70-80년대 시위의 신호탄으로 자주 사용되었다. 비장한 노래 분위기가 80년대 초·중반 전투적인 행진곡 품으로 대체되기까지 시위의 단골 메뉴가 되기에 적절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노래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당시 음반 판매 50만장을 돌파하며 의식적인 그룹이 아닌 사람들에게 의해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던 조용필의 ‘창 밖의 여자’도 잃어버린 사랑을 노래하였지만 그 정서는 80년대 전반기를 사는 시대의 음울한 정서를 대변하였다.¹⁰²⁾

통기타를 메고 히피 풍 청바지를 입은 청춘은 70년대 젊음의 상징이었다. 장발이면 잡혀가 머리를 깎였지만, 치마 길이로 단속의 대상이던 미니 스커트였지만 당시 젊음은 그것을 승배했다. 그 때는 군사 독재 체제를 반대하면 최고 사형까지 당할 수

99) 홍장기, “아침이슬 세대의 통기타 문화,” <http://www.naeil.com/weeklynaeil/naeil/news/306/30653.htm>.

100) Ibid. 77년 샌드페블즈의 ‘나 어떡해’, 78년 썰물의 ‘밀려오는 파도소리에’, 79년 김학래, 임철우의 ‘내가’ 등도 모두 대학가의 애창곡으로 불렸다.

101) 정재용, “낭만세대에서 개인주의까지” 뉴스메이커, 2003년 12월 31일, 38. “당시 젊은이들의 억압된 마음은 청바지와 생맥주, 통기타로 요약되는 ‘청통맥’ 문화 등으로 분출됐다. 당시에는 ‘사랑해’나 ‘왜 불러’ 등의 포크송, ‘아침이슬’이나 ‘고래사냥’ 등 금지곡이 인기를 끌었다. 젊은이는 통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며 마음을 달랬다.”

102) 홍장기, 아침이슬 세대의 통기타 문화, <http://www.naeil.com/weeklynaeil/naeil/news/306/30653.htm>.

있던 암울하고도 삭막한 시절에 통기타 가요는 정치권력에 대한 저항으로 비춰졌다. 요즘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당시에는 그런 노래들이 ‘불온하다’ ‘미풍양속을 해친다’ 등의 이유로 많은 곡들이 금지곡의 낙인이 찍혔다. 그러나 오히려 불법의 딱지가 붙은 ‘금지곡’ 녹음테이프가 길거리 리어카상을 통해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다.¹⁰³⁾

그러나 이런 젊은이 문화는 1970년대 말 이미 양극화 현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통기타 열풍과는 별도로 대학가와 일반 젊은이들 사이에 향락 문화가 이미 침투해 들어왔다. 70년대에는 ‘고고’라고 불렸고, 80년에는 ‘디스코’라는 이름으로 이른바 춤바람이 일어나고 있었다. 전두환 정권이 들어선 80년대 초반까지 캠퍼스에서 쌍쌍파티를 하거나 기성 가수를 불러 공연하는 것조차 용인되지 않을 만큼 당시 캠퍼스는 암울했다. 여기에 청춘을 발산하려는 젊은이들은 학교 밖으로 나가 속칭 고고장이나 디스코텍에서 에너지를 쏟아냈다.

이것은 타는 목마름으로 숨죽여 민주주의를 썩여 했던 세대가 억압적 군사 독재 체제에 대한 문화적 저항으로 표출한 것이었다. 즉 장발, 청바지, 통기타, 포크, 미니 스커트, 쌍쌍 파티 등은 60년대 서구의 히피 문화의 한국적 변주였다.¹⁰⁴⁾ 물론 이 시대의 문화적 현상을 향락 문화의 한 현상으로 치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현상을 단순히 향락 문화라는 비판적인 관점으로만 보아서는 포착할 수 없는 시대정신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경우, 1960년대는 한국의 70-80년대와 같은 격동의 세월이었다. 케네디(John F. Kennedy)의 암살,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의 암살, 베트남 전쟁 등을 겪으면서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아무도, 아무 것도, 심지어 자신까지 믿지 않으려는 깊은 불신과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¹⁰⁵⁾ 이러한 실망감은 반문화 혹은 저항 문화(Counterculture)를 낳게 되어 마약, 프리섹스, 반전 운동의 형태로 표출되었다. 이러한 정서는 1960년 대 비틀즈(Beatles), 롤링 스톤스(Rolling Stones), 밥 딜런(Bob Dylan) 등을 통해 하나의 문화로 전파되었다.¹⁰⁶⁾ 이들은 절망과 실현되지 않은 욕구

103) 진성호, “복고풍의 노래 아련한 우리들의 추억,” <http://best.korealife.com/200202/best06.htm>.

104) Ibid.

105) Annie Gottlieb, Do You Believe in Magic? The Second Coming of the Sixties Generation (New York: Time Books, 1987), 10.

106) Beatles의 ‘I Want to Hold Your Hand’, Rolling Stones의 ‘Satisfaction’, Bob Dylan이

를 초월하는 희망을 노래함으로써 삶의 고된 현실로부터 탈출구를 제공하였다.¹⁰⁷⁾

베이비붐 세대의 이러한 저항 속에는 기존 규범과 가치에 대한 반항이 함축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기성 체제나 기성 복장, 전통적인 신념이나 신앙에 대해 반대적인 양상을 띠었다.¹⁰⁸⁾ 우리나라의 경우, 왜곡되고 변질된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저항으로 사회주의에 대한 선호를 보이거나 단정한 용모와 옷차림에 대한 반항으로 장발과 청바지, 미니스커트를 선택하였다. 또한 기성세대가 규정한 모범적인 생활 스타일에서 벗어난 일탈을 그들의 모습으로 동일시하기도 하였다.

베이비붐 세대의 그런 생각과 주장 속에는 ‘전통 사회로부터 손을 떼겠다.’ ‘기성 질서의 한 부분이 안 되겠다’고 하는 강한 단절의식이 함축되어 있다. 지금까지 기성세대가 만든 실망스런 결과와 혼란을 주목하며 그런 세대적 유산과 결별하고 적어도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없다는 생각이 깔려있다. 전통적으로 사회를 규율하던 제도와 결별하고 보다 정의롭고 그것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자기주장도 깔려 있다. 그들만이 공통으로 가지는 가치와 신념체계에 기반하여 사회와의 관계에서 충족 안 된 욕구를 단절로 표출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들이 단절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 송호근은 그의 책, 한국: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에서 그들이 격렬하게 부정하는 아버지 세대가 만들어 놓은 질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항목들을 적시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정치영역에서 국가주의, 경제영역에서 성장주의, 시민사회 영역에서 권위주의가 이들 세대가 가장 혐오하는 세 가지 축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국가주의에 대한 거역(revolt), 성장주의 대한 거부(rejection), 권위주의에 대한 저항(resistance)”¹⁰⁹⁾을 통해 전 세대와 핵심적으로 벗어나고 단절하려고 한다고 주장한다.

2 국가주의에 대한 거역

베이비붐 세대가 청년 시절을 살며 경험하고 그것으로 인해 공통의 정서로 형성

불러 히트한 ‘Mr. Tambourine Man’ 등이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곡들이다.

107) Todd Gitlin, The Sixties: Years of Hope, Days of Rage (New York: Bantam Books, 1987), 81-85.

108) Annie Gottlieb, Do You Believe in Magic? 84.

109) 송호근, 한국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99.

한 국가에 대한 이미지는 폭력 그 자체였다. 유신 체제를 자신들의 성장과 증척하여 살아온 전기 부모들에게 억압적인 통치 형태와 각종 음모와 폭력으로 다스리는 그 시절 국가는 “총과 칼로 사납게 억박지르고, 논과 밭에 자라나는 우리들의 뜻을, 군화발로 지근지근 짓밟아대고 밟아대던”¹¹⁰⁾ ‘겨울 공화국’이었다. 또한 후기 부모들이 사회에 처음 진출할 무렵 경험한 1980년, 광주 항쟁을 통해 눈에 비친 국가는 수 백 명의 민간인을 죽인 폭력 집단으로 거대한 음모를 꾸미는 부조리한 기관이었다.

사실, 일제의 강력한 식민 지배를 받고 6·25를 겪으면서 경험한 부정적인 정치, 낙후한 경제, 문화적 후진 상황에서 한국 사회의 질서를 구축할 수 있는 강력한 주체는 국가일 수밖에 없었다. 한국 사회를 구축하고 그 변동을 관장하며 강력하게 끌어갈 수 있었던 유일하고 강력한 국가는 필연적이었다. 그래서 국가는 경제, 시민사회, 문화를 압도할 뿐 아니라 한국인의 의식과 행동 양식조차 형성해 가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국가는 경제활동에 대한 기획과 전략 수립, 감독, 자본 조달의 책임과 분배에 이르는 전 분야를 관할하였다.

시민사회도 예외가 아니어서 국가의 의지대로 동원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¹¹¹⁾ 그 당시 공적, 또는 사적 기관에 종사하던 시민들인 회사원, 공장 노동자, 공무원, 교사 등은 일사불란한 행동 원칙을 강요받았다. 아침 출근과 동시에 운동장이나 건물 옥상에 모여 체조를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며 새마을 노래가 동네의 거리마다 울려 퍼졌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매달 중순에는 전쟁에 대비하는 방공훈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비상소집 훈련과 등화관제 훈련이 일상이 되었다. 시민사회는 증산, 수출, 건설이라는 산업화 전략에 의해 동원되었고, 그런 전략은 나아가 시민들의 행동과 의식을 규정하고, 사회를 조직하는 질서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국가가 통제하는 집단적이고 획일적인 규율은 당시 사람들의 의상, 헤어스타일, 시간과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 등, 개인의 사적 영역에까지 침투하는 결과를 빚었다. 당시 유행하던 미니스커트는 무릎에서 10cm를 넘기면 불법이 되었으며, 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장발단속에 걸려 길거리를 감시하던 전투 경찰에 머리를 잘려야 했던 기억은 베이비 붐 세대들에게는 아직도 뚜렷하다. 자정이면 울려대던 사이렌과 함께 야간 통행금지는 사적 일상까지 통제하던 국가의 존재를 실감하게 했고, 공

110) 양성우, 겨울 공화국 (서울: 화다출판사, 1984), 106.

111) 송호근, 한국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82-83.

적 공간 역시 감시와 관찰의 대상이 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 부머들에게 국가는 독재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정치적 탄압과 폭력을 서슴지 않아도 국가와 권력자는 아직 미분화되었다. 그래서 맨주먹 비폭력의 정신으로 장갑차와 전투경찰이 쏘는 최루탄을 뒤집어쓰더라도 국가를 그들의 손에서 구할 수 있다면 행복했다. 가부장적 이념(paternalism)이 아직 남아 있었던 그들에게 국가는 여전히 아버지 같은 존재였고 그래서 국가가 비록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짊어지고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한다고 믿었다.¹¹²⁾

이런 전기 부머들과는 달리 후기 부머들에게 국가는 인자한 아버지의 이미지가 탈색된 독재자와 일체화된 국가기구일 따름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무고한 시민을 그렇게 죽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급기야 독재자의 불합리한 권력이 또 하나의 어두운 시대를 만들고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들은 쇠파이프와 화염병으로 무장하고 폭력적 국가주의를 비판하고 거역하였다. 1987년 6월 항쟁까지 크고 작은 사건들 속에서 그들은 국가에 대한 거역 의지를 분명히 하고 행동으로 그 거역을 실천하였다.

그런 맥락에서 베이비붐 세대는 80년대 독재 권력에 대한 저항을 통해 민주주의의 소중함과 가치를 몸으로 체득한 세대라고 볼 수 있다. 또 이전 세대에 비해 훨씬 풍요롭고 틀에 잡힌 사회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민주주의 시민의식을 소유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96년 통계연감에 의하면 30대의 3분의 1이 넘는 27.8퍼센트가 전문대졸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았고, 이전 세대에 비해 해외여행 경험도 15.1퍼센트로 압도적으로 많다. 외형상으로 이들은 민주 시민의 자격을 갖춘 세대라고 볼 수 있다.¹¹³⁾

그런데 1997년 3월 17일 전국에 걸쳐 대대적인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경찰청은 적발된 사람들의 연령, 직업, 성별 분포 등을 조사 발표하였다. 이 날 적발된 2149명 중 30대 연령층이 914명으로 무려 전체의 42.5퍼센트를 차지 30대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상대적으로 40대는 27.4퍼센트, 20대는 23.4퍼센트, 50대 이상은 5.7퍼센트를 차지하였다. 이 통계는 경제활동인구 중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29.77퍼센트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30대의 질서 의식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¹¹⁴⁾ 그래서 그

112) Ibid., 100.

113) 이동훈, "한국의 30대 그들은 어디에 서 있나: 질서의식," 한국일보, 1997년 7월 21일, 21.

114) Ibid., 21.

때 단속에 참여했던 한 교통경찰관은 30대의 질서 의식을 다음과 같이 꼬집었다. “그분들이 40-50대에 비해 매너는 솔직히 더 나쁩니다. 단속해서 적발되면 분명히 위반한 사실을 알면서도 끝까지 우기는 경우가 많아요”¹¹⁵⁾

이렇듯이 스스로의 질서의식은 수준 미달이면서 사회의 공공질서 의식 부재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질서의식 지체 현상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하고 있다. 이들의 의식과 행위의 분리는 사회적 학습의 결과라는 견해가 있다. 서울대 사회학과 이재열 교수는 “공공질서 개념과 무관했던 우리 사회의 풍토가 비교적 선진교육을 받은 30대들에게도 그대로 배여 있기 때문”¹¹⁶⁾이라고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무시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로 “과거 기존 권위는 공권력으로 상징돼 왔다. 여기에 정면으로 도전해온 30대들에게는 공공질서를 준수하는 것조차 권위에 대한 복종 정도로 받아들이는 심리가 은연중 깔려 있다.”¹¹⁷⁾고 했다.

또한, 기성 국가 질서에 대한 거부의 메카니즘은 이들이 주축이 된 단체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들 그룹이 기성 사회단체와 완전히 단절된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현상으로 분석된다. 이들 단체들이 지향하는 목표는 다양하다. 정치세력화, 대중운동, 자유토론, 경제 동아리 등을 표방하는 이들 단체의 공통점을 굳이 찾는다면 과거 운동권 세력에 의해 주도된다는 점과 21세기를 향한 비전을 모색한다는 점이다.¹¹⁸⁾ 이러한 청년그룹의 러시를 가능하게 했던 배경에 대해 청년정보문화센터 교육위원장이며, 연세대학 총학생회장 출신인 이상호(35세)씨는 “광주 항쟁, 6·10 민주항쟁 등 공통의 역사적 체험이 30대에게 무의식적인 집단성과 비판적 사회인식, 강한 연대감을 길러주었고, 이것이 청년그룹 결성의 내적 원동력이 되고 있다.”¹¹⁹⁾고 말했다. 이렇듯이 이 세대의 국가에 대한 거부와 저항은 이미 당연한 세대적 사명이자 과제로 인식되어 그들의 언어와 행동 양식을 지배하고 있다.

115) Ibid., 21.

116) Ibid., 21.

117) Ibid., 21.

118) 정진황, “한국의 30대 그들은 어디에 서 있나: 청년그룹 결성 붐,” 한국일보, 1997년 1월 30일, 15.

119) Ibid., 15.

3. 성장주의에 대한 거부

부머들(Boomers)이 단절을 그들의 영적 요소로 갖게 된 요인은 국가에 대한 거역만이 아니다. 이들은 그 국가가 주도하고 그것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려했던 전세대가 추구한 성장주의에 대해서도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이 성장주의와 그 결실은 사실 부머들의 아버지 세대가 젊은 세대를 훈계할 때 자신 있게 사용하는 근거이자 그들 세대가 내면에 품고 있는 자부심의 근거이기도 하다.

베이비 부머들의 부모들은 생존의 세대이다. 대부분 30년대에 출생한 연령 집단으로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험난한 시대를 살았던 세대이다. 일제 하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내고, 10대와 20대에 이차 대전과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살아 남은 세대이다. 이들은 바로 그 식민지 지배와 해방 정국의 이데올로기의 혼란, 한국 전쟁이라는 상처투성이 현대사를 관통하면서 그들만의 경험을 통해 그들만의 정서를 형성하였다.¹²⁰⁾ 이 과정에서 때로는 타율적으로 강요된 역사의 무게로 가치관이 무너지고, 세계관의 변질과 패배의식에 기초한 피해의식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즉 기성세대는 전통적인 문화의식과 일제 식민지 지배 아래에서 반서구적 생활양식이 어느 정도 도입된 상태에서 성장하였다. 그들은 4·19, 5·16, 그리고 60-70년대 산업화를 주도한 세대로서 생각으로는 합리주의, 평등주의, 민주주의, 보편주의를 교육받았으나 실제 생활에서는 전통주의, 권위주의, 연고주의에 깊이 뿌리가 박힌 세대였다.¹²¹⁾ 따라서 가난과 정치적 혼란, 갈등 속에서 살아온 아버지 세대들은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을 위해서 개인의 성공과 신분 상승을 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통과 권위를 내면화하였다. 결국, 그들은 현실주의적인 처세와 물질적 출세가 최고의 생존수단이며 삶의 유일한 가치라는 것을 삶을 통해 체득하였다.¹²²⁾

아버지 세대는 이러한 생존방식과 가치관을 가족과 학교, 사회 구조를 통해 자녀 세대의 가치와 규범으로 전수하였다. 이 부모 세대는 사실상 60년대 사회의 중심세대로서 '잘 살아 보자'는 가치와 규범을 가정과 사회에 관철시키는 주역이었다. 베이비붐 세대는 이런 과정을 통해 '공산주의에 반대하여 잘 살아 보자'는 부모들의 신

120) 이해영 편, 1980년대 혁명의 시대, 384.

121) 한국일보 편집부 편, 신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하 (서울: 한국일보사, 1990), 236.

122) Ibid., 236.

념을 자연스럽게 내면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어린 시기에 있었던 부머 세대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다른 사고나 믿음에 열려있는 어떤 자극이나 동기도 존재하지 않았다.¹²³⁾

사실, 이 시기 한국 사회는 강력한 군부 독재 정권에 의해 추진되는 경제개발 덕택으로 수직적인 외형 성장을 기록하였다. 전쟁으로 인한 폐허와 가난을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 아래 부모 세대의 허리띠를 졸라맨 헌신적인 노동과 절약 덕분에 당시 수출 지향적 경제건설이 가능하였다. 이런 양적 경제 성장의 그늘에서 자라난 베이비 붐 세대는 최소한 부모들이 경험한 무서운 가난과 생존의 공포는 벗어날 수 있었고, 생존을 위해 맹목적으로 처세하며 살 수 밖에 없었던 부모들의 행동방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다른 한편, 소위 한국 경제의 기적으로 불리는 국가 주도의 특혜금융과 저임금, 수출정책의 결과로 나타난 외형적인 부는 사회 불평등과 물질 만능주의에 근거한 사회 부패를 심화시켰다.¹²⁴⁾ 이른바 천박한 자본주의 또는 정실 자본주의(crony capitalism)의 결과 정경 유착, 부정부패, 불신과 부조리는 고도성장이 만들어 놓은 덩이 자 부머 세대가 파괴해야 할 힘겨운 짐이었다.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모은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재벌로 대표되는 기업가들이 국가 주도의 자본주의 아래서 적절한 거래를 해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¹²⁵⁾

특히 IMF 사태는 젊은 세대에게 재벌, 기업인, 최고 경영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기회주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계기가 되었다. 이 IMF 사태는 단순히 경제구조의 결과였다기보다는 정치와 경제가 얽힌 구조적인 문제였다.¹²⁶⁾ 즉 관치 금융이나 정실 자본주의가 낳은 부패와 비능률의 결과였다. 정부가 금융기관의 인사와 대출에 깊이 관여하면서 금융기관의 대량 부실 투자와 허약 체질을 가져 왔기 때문이다. 또한 정실 자본주의는 정경유착으로 인한 비능률과 경제적 자원 분배의 왜곡을 가져옴으로써 IMF 경제위기의 심층적 원인을 제공하는 요인이 되었다.

123) 이해영 편, 1980년대 혁명의 시대, 386.

124) 정성진, "한국 경제의 사회적 축적 구조와 그 붕괴," 6월 항쟁과 한국 사회 10년 I (서울: 당대, 1997)를 참조하라.

125) 송호근, 한국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102.

126) 김진영, "현대사 다시 쓴다: 경제위기 발생과 IMF 구제금융 신청," 한국일보, 1999년 12월 27일, 21.

재벌들은 특히 IMF 외환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되었다. 재벌들은 국가의 지원과 결탁을 통해 방만한 차입 경영으로 몸집 불리기에 힘을 쏟았다. 그 결과 한국 경제에는 경상수지 적자와 외채가 점점 증가하여왔다. 97년 초부터 한보철강의 부도를 시작으로 ‘삼미’, ‘대농’, ‘진로’, ‘기아’ 등이 줄줄이 부도위기에 처하면서 재벌 중심의 한국 경제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한보의 부도는 한국의 정경유착 구조를 잘 보여주는 케이스였다. 한보의 대출 과정을 보면 사업성을 점검하지 않은 거액의 투자자금이 정치권의 개입과 거액의 로비 자금 수수와 같은 검은 거래를 통해 진행되었다. 자산 5조 원에 총 부채 6조 6000억원을 안고 있는 한보와 같은 거대 기업 집단의 도산은 곧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고 국민 경제의 기초를 흔들기에 충분하였다.¹²⁷⁾

결국 이렇게 IMF 사태가 재벌기업과 사금융의 탐욕으로 빚어진 사건임이 밝혀졌을 때, 부모들은 성장의 주역이라고 평가받던 재벌에 대한 신뢰를 다시 접을 수밖에 없었다.¹²⁸⁾ 같은 맥락에서 그들은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생존이 어려웠을 뿐 아니라 기업 활동 자체가 어려웠다는 사실을 역설하는 논리를 거부하였다. 동시에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 경제 성장을 해냈다’고 설득하는 기성세대에 대해서도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베이비 부모들은 그런 성장주의가 낳은 뿌리 깊은 습관, 제도, 관행에 대해 저항하고 그것들과의 단절을 그들의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내보이고 있는 것이다.

1985년 한국 꺾림조사연구소가 당시는 신세대에 해당했던 베이비 부모들을 상대로 의식 구조를 조사한 적이 있었다. 이들에게 살아가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것’이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53퍼센트로 경제적 부(23퍼센트), 사회적 지위(5퍼센트), 사회봉사(16퍼센트)보다 높게 나타났다.¹²⁹⁾ 또한 주로 후기 부모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다룬 또 다른 조사에서도 이들은 사회적 성공이나 직장에서의 출세보다 가정의 행복이 중요하다고 답변하고 있다.¹³⁰⁾ 따라서

127) Ibid., 21.

128) 이 세대 원들의 14.4퍼센트만이 ‘대기업이 기업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고 답변했고, 반면에 ‘중소기업이 경제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답변하여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386세대취재팀, “한국의 주력 386세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조선일보, 1999년 6월 1일, 39.

129) 한국일보편집부편, 신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상, 45.

130) 김순덕, “신세대: 동지족,” 동아일보, 1993년 6월 27일, 9.

베이비 부머들은 이전 세대가 보여준 외면적 성공이나 출세에는 관심이 적은 대신 자신들만의 도전과 성취 등 내면적 가치를 추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¹³¹⁾

4 권위주의에 대한 저항

베이비 부머들이 기성세대로부터 자신들을 단절하는 또 다른 측면은 권위주의이다. 흔히 권위주의는 직책, 지위, 연령, 서열이나 경륜에 따른 엄격한 상하 구분을 일컫는다.¹³²⁾ 전통적으로 한국사회 안에서는 직책과 서열, 연령과 지위가 높은 사람이 사리 판단을 가르치고 행동 양식을 지시할 수 있었던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 직책이나 지위, 연령과 서열이 높은 자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거나 그것들이 낮은 자들보다 더욱 지혜로울 때 가능하다.

막스 베버(Max Weber)에 의하면, 그러한 권위는 전통적 권위, 합법적 권위, 카리스마적 권위로 구분된다.¹³³⁾ 한국의 경우, 이미 전통적 권위는 해방과 6·25, 5·16 쿠데타를 거치면서 파괴되어 오직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하는 것에만 국한되었다. 이미 언급한 대로 정당성이 결여된 독재정권 아래에서 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권위를 가지거나 부여할 수 있는 권력자는 있을 수 없었다. 게다가 한국의 지도층이 카리스마적 권위의 조건인 도덕적 감동과 설득력을 소유한 것도 아니었다. 독재 정권 하에서 고도성장을 꾀하는 동안 한국사회에서 진정한 권위는 어느 곳에도 존재하기 어려웠다. 적으나마 어른 대접을 받을만한 소수의 이름 있는 사람들은 독재정권에 포

131) 김순덕, "신세대: 직장인," 동아일보, 1993년 5월 2일, 9.

132) 송호근, 한국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102.

133) 우선 전통적 권위는 관습·전통의 신성함에 기반을 두는데, 이런 전통적 지배의 대표적인 것이 가부장적 지배이다. 가장은 가정 문제를 권위로서 법적인 제재, 공식적인 제재에 구애받지 않고 행사하는데 이는 오로지 전통·관습에 의한 존경에 의해 행사되고 무조건적인 개인의 충성에 근거한다. 둘째로, 카리스마적 권위는 영웅적인 인물이 가진 개인적 마력에 기반한 권위인데, 혁명적 지도자·성인의 지배가 이에 해당한다. 카리스마란 종교적인 예언 능력과 정치적인 지도력의 바탕을 이루는 정신적인 감화력을 말한다. 셋째로, 합리적(합법적) 지배로써 대표적인 것이 관료제인데, 특히 근대사회로 올수록 합법적 권위가 증대된다. 베버는 현대국가에서 실제적인 지배자는 필연적으로 관료제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과거 질서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졌지만 관료제는 규칙 속에서 이루어지고 사람의 제도가 아닌 법률의 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Marx Weber, 경제와 사회, 박성환 역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7)를 참조하라.

섭되어 그 권위를 잃어갔다. 그 결과 권위를 잃은 독재정권은 무력과 강압으로 그 권위를 대신할 수밖에 없었다.¹³⁴⁾

그러한 상황에서 상사는 뇌물을 받았고, 선생님은 촌지를 챙기고, 고위 관료는 부정을 저지름으로써 급속하게 권위를 잃어가게 되었다. 그런 사회에서 이념과 체제의 수호자들이며, 자녀들의 규율 감시자인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출세만을 강조하였다. 치열한 학력경쟁과 사회생활에 임하는 부모들에게 취해진 부모 세대의 이러한 강요는 자녀들과 필연적인 충돌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권위주의를 체질적으로 거부하게 된 베이비 부모들의 탈권위주의적 경향은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기성 체제에 대한 공격과 파괴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부모 세대는 기성세대의 생각과 행동이 오늘날의 정치 사회적 환경에 부적합하며 기성세대가 허구성 짙은 권위주의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믿었다. 반면에 부모 세대는 어렵고 힘들게 학교를 졸업시킨 자식들이 어느 덧 이해할 수 없는 낯선 젊은이가 되어있을 때 엄청난 절망감과 배신감을 느꼈다. 경찰 공무원 A모씨(당시 52세)는 운동권인 딸 때문에 몇 번이나 신분상의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신분상 공무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딸이 대학에 들어갈 때부터 유난히 신경을 썼으나 온갖 노력이 허사였다. 아버지와 딸은 '학생 운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싸워야 한다'는 팽팽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¹³⁵⁾

이것을 반영하듯 학교에서도 일방적인 지시나 명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의 인습과 전통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다. 학내 민주화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대학에서 학생들은 새로운 인식을 갖고 교수들의 권위주의를 정면 비판하고, 예산 공개나 학교 행정의 경직성에 도전하고 있다. 또한 명성과 연륜 만을 내세워 학생들의 견해를 무시하거나 묵살하는 교수의 강의는 여지없이 수강률이 떨어진다. 그래서 1984년 숙명여대 이홍구 교수팀이 전국 대학생 17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수와 학생간의 대화를 막는 가장 큰 요인으로 교수 학생간의 비율(30.5퍼센트)과 교수의 권위의식(20.5퍼센트)을 꼽았다.¹³⁶⁾

이러한 탈권위주의 경향은 직장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중소기업을 하는 김종률

134) 송호근, 한국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103.

135) 한국일보편집부편, 신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상, 148-149.

136) 한국일보편집부편, 신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상, 25-27.

씨(40세, 세원전기 대표)는 “몇 년 전만 해도 종업원들은 월급날 괜히 속스러워하면서 혼자서 몰래 봉투를 뜯어보곤 했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 자리에서 봉투를 뜯어보고 시간외 수당 등을 따지고 대든다”¹³⁷⁾고 말한다. 그래서 회사의 자산 규모를 100퍼센트 공개하는 등 권위주의적 요소를 배제하자 회사의 인화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했다. 또한 1985년 사법 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고 사법 연수원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도 변호사를 택한 박주현씨(25세, 여)는 “시보 시절에 사법부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권위주의적 모순에 빠져있음을 알고 절망했었다”¹³⁸⁾고 했다. 이 같은 베이비 부머들의 탈권위주의 현상에 대해 한양대 양건 교수(법학)는 “60년대 이후엔 정치적 권위가 철저히 부정돼 왔으며 관료적 권위주의의 뿌리가 깊은 행정조직과 군부에 대한 저항이 모든 일상 형태와 사고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¹³⁹⁾고 분석한다.

이렇듯이 부머들은 독재 체제의 사고방식과 관행을 곧바로 부모 세대의 그것으로 일치시키지는 않았지만 부모 세대로부터 일정한 정도의 공통점을 찾아내었다. 즉, 자신들이 삶의 경험을 증시한다면, 부모 세대는 물질적 소유를 증시하고, 자신들이 변화를 추구한다면 전 세대는 안정을 추구하고, 자신들은 정당한 경쟁을 지향한다면 부모 세대는 슬수를 쓴다고 생각하였다.¹⁴⁰⁾ 그 결과 베이비붐 세대는 부모 세대의 가치관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나 그것들에 관해 비 관습적인 태도를 견지하며,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국가나 회사, 공공기관, 정당과 같은 기존 기관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다.¹⁴¹⁾

요컨대, 베이비붐 세대는 그들의 정신적 소속이 부모 세대와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을 전 세대와 단절된 뿌리 없이 방황하는 세대(A Generation Adrift)로 인식하였다.¹⁴²⁾ 이렇게 전통과 관습, 부모 세대의 가치로부터 단절된 이들은 역설적이게도 공통의 가치를 소유한 서로에게 향하기보다 자신만의 의미와 목적을 찾기 위해 내면을 지향하고 스스로 “고립주의자”¹⁴³⁾로 살려고 하였다.

137) Ibid., 28.

138) Ibid., 29.

139) Ibid., 31.

140) Leith Anderson, *Dying for Change*, 93-94.

141) Dan Kiley, *Living Together Feeling Alone*, 23.

142) James Bell, *Bridge over Troubled Water: Ministry to Baby Boomers, A Generation Adrift* (Wheaton, IL: Victor Books, 1993)를 참조하라.

143) Dan Kiley, *Living Together Feeling Alone*, 13.

제 3 장

베이비붐 세대의 영적 현실

제 1 절 자기애(Self-Seeking)

그와 같은 정신적 뿌리에서 형성된 그들의 영성은 향 후 그들의 현실적인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그 영적 뿌리에서 자라난 정신성은 그들의 관점과 태도, 가치관을 형성하고 모든 영역의 삶의 부분들을 구형한다. 그래서 그것들은 부모들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여 그들 나름대로의 자기중심적인 세대 취향을 형성하였다. 그 뿐 아니라 그것은 그들을 바라보는 다른 세대에게는 그들 세대를 인상지우고 규정하는 현상적 잣대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1. 이기적인 자기표현

베이비 부모들은 이전 세대와 비교하여 여러 면에서 다르다. 그들이 태어나고 성장했던 시기는 수 천 년 동안의 숙명적인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장을 위한 바쁜 발걸음을 시작할 때였다. 그들의 부모 세대는 자신들의 필요와 욕구를 억제하며 얻은 결과들을 자식 세대를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였다. 그래서 부모들은 부모 세대가 경험했던 뼈아픈 절대 빈곤의 고통을 물려받지 않은 최초의 세대이며, 성장기에는 70년대 고도 경제성장의 열매를 직접 맛보며 향유한 세대이다.¹⁴⁴⁾ 이들은 한국 사회에서 처음으로 찌든 가난의 틀을 벗고 풍요의 혜택을 생활 속에서 경험한 세대이기도 하다.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의 표정에는 부모세대와 같은 생활에 찌든 그늘이나 한(恨)이 드리워져 있지 않다. 그들의 몸짓은 자유롭고 거침없으며 활력과 자신감이 넘

144) 함인희, "베이비붐 세대의 문화와 세대경험," 240.

쳐흐른다. 이것은 한국 사회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경제성장, 민주화의 물결, 외세에 대해 자기 목소리를 낸 경험, 개방적인 세계화의 공존, 자신들이 이 시대의 주역이라는 강한 자신감이 한데 어우러져 표출되는 현상이다.¹⁴⁵⁾ 이들의 이런 표현들은 기성세대를 놀라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당황스럽게 하기도 한다.

부머들의 다른 모습은 무엇보다 체형에 있어 두드러진다. 지난 1984년 보사부 조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성장을 멈춘 20세 남자의 평균 신장이 이미 1미터 70센티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자의 경우도 1984년 조사에서 20대 초반의 평균 신장이 1미터 60센티를 넘어섰다. 달라진 것은 단순히 신장만이 아니라 체격의 변화도 눈에 띈다. 즉 의자 생활이나 각종 스포츠 생활로 팔다리의 길이가 늘씬해졌을 뿐 아니라 골은 서구형으로 변화되었다. 게다가 과거의 둥글넓적하고 평면적인 얼굴이 얇아 재우는 육아 방식의 변화로 가름해지고 코가 오뎅해지는 등 얼굴형의 윤곽도 뚜렷해졌다.¹⁴⁶⁾

이런 체형, 체격의 변화와 함께 이 세대를 다르게 보이게 하는 것은 그들의 차림새와 거침없는 자신감으로 표출되는 개성 표현이다. 그들의 옷차림에는 정형이 없다. 굳이 그것을 찾는다면 활동적이고 남과 달라 보이려는 욕구가 일반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천편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유행의 지배를 거부하고 정장마저 점잖고 단정해야 한다는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이들은 대담한 자기표현으로 외모에 크게 신경 쓰는 경향이 뚜렷하다.¹⁴⁷⁾ 이런 외모 중시 경향으로 인해 이들은 안경도 멋으로 쓰고, 악세사리도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과감하게 채용하며, 단순히 예뻐지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성형수술도 가볍게 해낸다. 이들은 '생긴 대로 살자'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자기 자신을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살아간다.

소비에 있어서도 베이비 부머들은 주변인이 아니다. 왕성한 생산 활동만큼 그들은 언제든지 소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충분한 고객들이다. 모든 세대를 통틀어 30-40대는 가장 안정적이고 확실한 고객임이 분명하다. 한 예로 자동차 보유율에 있어 30대는 59퍼센트, 40대는 56퍼센트로 50대 49퍼센트나 20대 50퍼센트보다 월등히 높았다.¹⁴⁸⁾ 이 뿐 아니라 소비의 내용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확보된 부모

145) 한국일보편집부편, 신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상, 33.

146) Ibid., 33.

147) Ibid., 35-37.

148) 이동준, "한국의 30대 그들은 어디에 서있나: 개방적 소비문화," 한국일보, 1997년 6월 2일, 21.

세대의 소비가 고작해야 기본적인 의식주에 관계된 소비가 고작인데 반해 자기표현에 충실한 부머 세대의 소비문화는 즐기기 위해 돈을 쓰는 경향이 강하다. 기성세대가 생필품 중심으로 기능 상품을 주로 소비한다면 부머 세대는 고 감각 상품을 선호하는 소모성 소비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특징이다.¹⁴⁹⁾ 이것은 이들이 자기표현에서 기성세대보다 훨씬 당당하고 주저함이 없기 때문이다.¹⁵⁰⁾

이들은 이렇게 자신의 삶에서 자신을 표현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에서도 그들만의 것을 추구한다. 개인주의는 이들 세대에게 매우 친숙한 단어이다. 자기감정과 일에 충실하고 자기주장이 강한 것을 들어 서슴없이 개인주의자인 것을 인정한다. 대의(Great Causes)의 시대는 가고, 이제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이 대의라고 믿는 일상의 정의가 정착된 것이 이들에게 두드러진다.¹⁵¹⁾ 이들의 꿈은 이제 거창하지 않다. 그들은 막연한 미래보다 분명한 현실에 집착하며 비합리적인 희생이나 공동체적인 삶보다 합리적이고 안온한 개인생활을 추구한다.¹⁵²⁾

이러한 베이비 부머들의 큰 꿈 없는 소시민적인 의식과 행태는 알미울 정도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나타나 진취성 부족, 공동체 의식의 부재라는 기성세대의 비난을 받기도 한다. 현실을 미래보다 중시하는 이러한 성향은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경향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이들 대학생들은 안전성과 근무조건에 급여 수준이나 성취감 따위의 전통적인 기준보다 중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⁵³⁾ 특히 취업에 비교적 더 많이 열려있는 명문대 출신들은 대기업보다는 공사나 조직관리가 비교적 느슨한 기업체를 선호하고, 안정된 직장, 출퇴근 시간이 정확한 직장에서 남은 시간을 자기발전이나 가족과의 휴식에 활용하려고 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직장인들은 모임을 싫어한다. 이들은 대체로 퇴근 후 직장 동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전부터 관계를 맺어온 친한 친구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일찍 귀가한다. 회사의 특별한 행사나 전체 모임이 있을 때면 어쩔 수 없이 참석하지만 즐겁게 동참하기보다는 의례적으로 참석하다가 2-3차는 거절하는 게 보통이다. 이들은 개인 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을 지키는 한에서 동료들과 어울리려는 경향

149) 한국일보편집부편, 신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하, 33.

150) Ibid., 37.

151) 김순덕, "신세대: 자기중심주의," 동아일보, 1993년 4월 11일, 9.

152) "한국일보편집부편, 신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상, 39.

153) Ibid., 40.

이 뚜렷하다. 부모들은 회사 일과 개인 일을 구분하는 데도 분명하다. 일요일에도 자발적으로 나와 근무하며 개인 생활을 희생하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고, 휴가일정을 조정해야 할 때도 양보를 잘하지 않으며 지나치게 책임한계를 따지는 것도 흔한 일이 되었다. 퇴근 시간이 되면 집에 가기에 바빠 옆자리에서 울리는 전화도 받지 않는다든지 조금만 더 일하면 그 날 끝낼 수 있는 일도 퇴근시간이 되면 덮어버리고 퇴근하기도 한다.¹⁵⁴⁾

이러한 현실중시 태도는 이들의 학창 시절, 학업이나 이성 관계에서도 나타나 실용적이며 공부하기 편한 과목에 수강생들이 몰리며, 리포트나 강의 노트 등도 서로 빌려주지 않으려 하였다. 이성 관계도 점차 순간적이고 물질적으로 변질돼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는 것도 상처가 되지 않는다. 여대생은 고학년이 될수록 학벌이나 경제력으로 배우자를 선택하려 한다.¹⁵⁵⁾ 또 사회나 국가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정도에서도 이전 세대와 비교하여 높거나 같은 수준이지만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면서까지 관심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주저한다.¹⁵⁶⁾

2. 믿을 건 자기 자신뿐

이런 현실 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자기중심적 삶의 배경에는 믿을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 뿐이라는 인식이 깊게 깔려 있다. 개성을 표현하는 주체도 소비하는 주체도 모두 자신이다. 자신이 원하는 직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자신이 욕구 하는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도 자기 자신일 뿐이다. 사실, 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저항문화(Counter Culture)는 부모의 권위에 대한 이들의 반란의 성격이 강했다.¹⁵⁷⁾ 이들은 전 세대와의 관계에서 실망감에 기초한 정서적 단절과 기성의

154) Ibid., 41.

155) Ibid., 43.

156) Ibid., 45. 1985년 한국 갤럽이 20대 청년 10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개인의 행복과 한국 전체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해 개인(26퍼센트)을 국가(15.4퍼센트)보다 높게 평가하여 개인의 행복을 전체보다 우선시 하는 개인주의적 성향을 나타냈다. 사회 봉사형 인간에 대해서는 22퍼센트가 '훌륭하다'고 평가한 반면 59퍼센트가 '훌륭하지만 좋지 않다.'고 답변하여 그것이 훌륭하기는 하지만 자기가 그렇게 살기는 주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7) Midge Decter, Liberal Parents, Radical Children (New York: Coward, McCann & Geoghegan, Inc., 1975), 34.

사회와 제도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었다. 즉 부모 세대와도 단절하고 자신들의 주장으로 자기를 실현하려 하는 이들에게 있어 자신 외에는 믿을 수 있는 다른 방편이 달리 있을 수 없었다.¹⁵⁸⁾ 특히 치열한 생존경쟁을 몸으로 경험하고 성장한 이들은 자신의 실력만이 자신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것임을 알았다. 그래서 이들은 다른 어떤 세대보다 자신을 더 많이 의존하고 자신을 만들어 가는 데에 열중하는 세대이다.

부천성가병원의 임상병리사인 김성신(金成信·여·34세)씨의 하루는 거의 빈틈이 없다.¹⁵⁹⁾ 아침 6시, 큼직한 가죽가방에 전공과목 책 두세 권과 일어회화 책 및 녹음기 테이프 등을 넣고 그녀는 주경야독의 하루를 시작한다. 그녀는 직장 경력 15년의 의료인이면서 방송통신대학 보건위생학과 2년의 대학생이다. 고교 졸업 후 여러 사정으로 취업전선에 뛰어들어 후 다시 공부를 시작하여 전문대를 졸업(90년)하고, 33세인 96년 방통대에 들어갔다. 그녀는 만학의 열정 때문에 아직 싱글이다.

아침 6시 45분 마을버스를 타고 역에 내려 지하철로 갈아타고 다시 버스나 택시로 병원에 도착하면 아침 8시. 하오 5시까지 혈액검사 등 일상의 일을 마치고 퇴근할 때면 다시 특강을 들으러 방통대에 등교한다. 저녁 7-9시까지 학생회관 강의실에서 외부강사가 진행하는 보충수업을 수강한다. 출석수업이 없는 날은 저녁 9시부터 교육방송을 통해 방송 강의를 듣는다. 그녀는 보통 연차 휴가의 절반을 한 학기에 3일 가량 되는 출석 수업과 중간·기말 시험을 위해 사용한다.

집에서 병원으로 병원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저녁 11시가 보통이다. 졸음이 밀려오고 피로가 덮칠 때면 이 일을 그만두고 싶어진다. 주변에서는 시집은 안가고 무엇 때문에 고생을 하느냐고 성화지만 그녀는 다시 대학원 진학을 계획하고 있다. 김씨는 남들처럼 공부 못한 게 억울해서나 승진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지금도 직장 생활하는 데는 무리가 없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욕구를 억누르기 힘들다는 그녀의 향학열은 멈출 것 같지 않다.

이 경우 뿐 만 아니라, 베이비붐 세대들에게 있어 만학 열풍은 그리 낯설지 않

158) 한상진 역음, 386세대 그 빛과 그늘, 74. 서울대생이었던 한 학생은 당시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말한다. “나는 불신의 세계에 갇혀 있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자, 어머니의 사랑을 믿지 않는 자가 이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의심하고 또 의심하여 모든 것을 의심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자신의 의심 그 자체뿐이다.”

159) 최운필, “한국의 30대 그들은 어디에 서 있나: 만학열풍,” 한국일보, 1997년 1월 23일, 15.

다.¹⁶⁰⁾ 어디를 가나 자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늦공부 바람이 거세다. 기업의 사원연수 프로그램은 물론, 컴퓨터나 외국어를 가르치는 사설 학원에는 어디나 길게 줄을 서 있는 이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야간 대학원은 물론 검정고시, 독학사 시험, 방송통신대학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비중은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배움의 끈을 놓지 않는 이들이 맞닥뜨리는 현실이 그만큼 치열하고 도전 과제가 많다는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가 자기 개발을 위해 공부에 몰두하는 데에는 그 이유도 다양하다. 이미 기성세대가 세계 시장을 개척한 터전 위에 선진국들과 나란히 경쟁해야 하는 것이 이들 세대의 몫이다. 적자생존의 치열한 세계에서 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실력밖에 없다. 또 연공서열을 기준으로 승진하는 제도가 사라진 일터에서 실력이 없으면 도태한다. 정리해고와 명예퇴직의 그림자가 드리운 요즈음은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다양한 능력으로 무장한 20대와 일정한 자리와 동시에 한계를 가지는 기성세대보다 이들이 배워야 하는 동기는 남다르다.¹⁶¹⁾

굳이 직장 내의 승진 목적이 아니더라도 현실적인 필요가 이들을 자기개발과 공부로 내몬다.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학교에서 배운 것은 막상 직장에서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한다. 특히 베이비 부머들이 학창 생활을 할 때 캠퍼스 분위기는 많이 달랐다. 취업난이 그렇게 심하지도 않았지만 시위로 날을 새던 그 때의 대학 분위기는 장래를 위해 뭔가를 준비할 만큼 한가하지 않았다. 그래서 20대가 컴퓨터나 외국어를 준비하고 직장에 들어오는 반면 이들은 그런 준비 없이 직장생활을 시작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학창 시절에 준비하지 못한 것들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길은 배우는 것밖에 없다.

또한 학벌 위주의 사회에서 대학졸업장이 없는 이들은 직장에서 요구하는 직업 교육을 받는 것 뿐 아니라 뒤늦게 대학 공부를 하기에 바쁠 수밖에 없다. 이들에게 방통대, 독학사 시험, 검정고시 등은 매력적인 방안이다. 예를 들어, 방송통신대학의 경우 전체 입학생 중 약 30퍼센트(29.2퍼센트)를 30대가 차지하고 있으며 그 숫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30대의 향학 열풍에 대해 방통대 생활연구소 구자욱 교수는 “결혼연령이 높아지는 등 우리 사회의 전반적 고령화 현상에 따른 측면도 있

160) Ibid., 15.

161) Ibid., 15

지만 자아실현 욕구는 강한 반면 지위 불안은 갈수록 커지는 30대의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¹⁶²⁾고 말한다.

물론 이들의 향학열이 비단 생존을 위한 공부 때문만은 아니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생계부담이 줄어들었고 그런 기회를 통해 자신의 인생을 새 출발하는 방편으로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들은 장래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이 있지만 자기실현의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이 보통이다. S그룹에 2년 간 다니다 시범시험을 보기 위해 93년 사표를 낸 윤주영씨는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뭔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¹⁶³⁾고 만학의 동기와 포부를 밝혔다.

3. 늦깎이 인생들

이러한 자기 찾기는 베이비 부머들의 가정생활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 세대의 가정주부들은 자신들을 통해 자녀도 남편도 성장하고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주부 김계호(金桂浩·35·서울 성동구 금호 3가)씨는 결혼 8년 차에 6살 난 딸이 있다.¹⁶⁴⁾ 그녀는 딸을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직접 가르친다. 학습지도 받지 않고 손수 교재를 구해 한글과 산수를 가르친다. 그 대신 한 달에 한 번 대학로에 나가 어린이 연극을 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수성을 키워주는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김씨는 남편을 내조하는 데도 유별나다. 남편은 아침마다 영어학원에 다니는데 그것이 아내의 성화 때문임은 물론이다.

그녀는 이렇게 자녀 욕심, 남편 욕심이 유난히 강하다. 그렇다고 하여 김씨 인생에 있어 남편과 딸이 전부는 아니다. ‘딸은 딸이고 남편은 남편’이라는 생각이 분명하다. 남편과 자녀를 통해 자기 인생을 보상받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 김씨는 YWCA 청소년회관에서 컴퓨터도 배우고 헬스클럽에 나가며 몸매도 가꿀 예정이다. 그녀는 하루 일과의 3분의 1은 자신에게 투자하고, 그러한 투자를 통해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이 가정의 행복과 활력을 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162) Ibid., 15.

163) Ibid., 15.

164) 윤순환, “한국의 30대 그들은 어디에 서 있나: 일인다역 슈퍼주부,” 한국일보, 1997년 3월 13일, 25.

그렇다면 베이비 부머들의 이러한 자기 성취 욕구의 강한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그것은 먼저 그들 자신이 본격적인 고등교육을 받을 세대라는 점이다.¹⁶⁵⁾ 그들은 오늘과 같은 복잡하고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남편과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또한 그들은 어머니 세대의 무한희생을 보며 자녀와 남편만을 위한 맹목적인 삶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체험적으로 알았다. 그 결과,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것에서 탈피, 남편과 자녀 뿐 아니라 '나'라는 가치를 중시한다.¹⁶⁶⁾ 이제 이들은 분명히 남편이나 자녀의 종속변수가 아닌 독립 변수로서 자기 찾기를 시도한다. 그래서 아이들과 남편을 위해 쓰던 시간을 자기 개발에 할애하고 자신만의 일을 찾아 집밖으로 나간다.¹⁶⁷⁾

그런 맥락에서 이들의 자기 개발 욕구는 단순한 시간 때우기 식의 취미 생활 차원이 아니다. 보다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또한 남편에 대해서도 전통적인 '남편 모시기'에서 '남편 만들기'로 선회하고 있으며 그 몫도 자신들의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자녀 교육 또한 극성스러울 만큼 유별나서 그 성취욕이 개인과 가족 차원에만 머문다는 비판도 받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이 극성 엄마, 열성 아내, 자기 개발에 힘을 쓰는 저류에는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의존하고 자기의 길을 찾으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세대에 비해 베이비 부머들 중에는 아직 무언가를 세우기 위해 꿈꾸는 늦깎이 인생이 많다.¹⁶⁸⁾ 지금 모교 행정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강찬모(姜贊謨·35)씨는 명문대 법대를 졸업한 82학번이다. 대학원 1학기를 마친 강씨는 3살 난 딸을 키우는 가장이지만 무직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생계는 학원 강사를 하는 아내가 책임지고 있다. 친구들은 법조계에서 판·검사에다 직장에서 초급 간부들이지만 강씨의 포부는 분명하다. 재야단체 활동을 한 경험을 살려 유능한 행정가가 되어 40대에 고향의 지방 자치단체장에 도전하는 것이 꿈이다.¹⁶⁹⁾

165) 교육부 집계로 80년대 학번은 모두 293만 3683명, 약 187만 명이 4년제 대학, 나머지 106만여 명이 전문대에 들어간 사람들이다. 바로 전 학번인 70년대 학번의 숫자는 전문대를 포함해 89만 1328명을 기록하고 있다. 386세대취재팀, "한국의 주력 386세대: 대의를 위해 나를 던졌다," 조선일보, 1999년 10월 26일, 42.

166) 윤순환, "한국의 30대 그들은 어디에 서 있나: 일인다역 슈퍼주부," 25.

167) Susan Littwin, The Postponed Generation (New York: William Morrow and Company, Inc., 1986), 24.

168) 윤순환, "한국의 30대 그들은 어디에 서 있나: 늦깎이 인생들," 한국일보, 1997년 7월 7일, 19.

올해로 4년째 사법고시 준비를 하고 있는 김철명(金哲明·33)씨도 늦깎이 인생 중에 한 명이다. 미혼인 자신도 밀려드는 회의감에 힘이 들지만 다른 일을 하다가 고시에 뛰어든 또래의 선후배를 바라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왜 아직까지 고시에 매달리느냐는 질문에 그는 결연한 표정으로 ‘꿈을 포기할 수 없어서’라고 답변하였다. 한국사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양석운(梁錫允)씨도 교수를 바라보고 있지만 아직 자리가 없다. 그렇지만 양씨는 40대 교수를 위해 오늘도 아침 7시가 되면 연구소로 책가방을 들고 출근을 한다.

또한 다른 세대에 비해 사장 지망생이 많은 것도 베이비붐 세대의 공통점이다. 이들은 창업을 위해 기업에 들어가 일정기간 경영자 수업을 받지만 이것은 단지 오너가 되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이들 세대의 늦깎이 인생은 여성들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숙명여대를 수석 졸업한 김승란(金勝蘭·35·약학과)씨도 고시공부와 취직시험에 잇따라 실패한 후 평범한 가정주부가 되었다. 하지만 자아실현의 욕구를 버리지 못하고 서른 살에 숙명 여대에 입학하여 노력한 끝에 수석 졸업의 영광과 함께 약사라는 전문직 자격을 얻었다.¹⁷⁰⁾

이러한 현상을 두고 일부에서는 보수적 가치관과 출세욕의 결합이라는 부정적 견해를 내보이기도 한다. 그 이유에 대해 늦깎이 인생들 자신들조차도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들이 “첫 베이비 붐 세대이자 질풍노도의 20대를 보낸 것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들은 고학력의 혜택을 입은 최초의 세대로 다른 세대보다 성취욕구가 강한 편이다.”¹⁷¹⁾ 그런 강한 성취욕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격랑 속에서 20대를 보내며 그 욕구가 지연되었다가 90년대 들어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면서 이들은 다시 꿈을 꾸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4 자기 안의 영웅 찾기

베이비 부머들의 자기 찾기 노력은 책읽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엿보인다. 대학시

169) Ibid., 19.

170) Ibid., 19.

171) Ibid., 19.

절 이념성 사회과학 서적은 그들에게 바이블과 같았다. 그러나 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사회주의권의 몰락은 이념시대의 종말과 함께 이들에게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이념은 이제 추억의 저편에 자리하고 자본주의의 질서 속에 생존하기 위한 현실적인 몸부림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이념의 시대를 살면서 그들이 고민하던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화두는 국경 없는 경쟁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로 그 중심이 바뀌었다.¹⁷²⁾

관심이 이동하는 독자들을 발 빠르게 추적하는 출판사들은 이들의 목마름을 정확히 포착하여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 즉, 80년대 비판 서적을 내던 출판사들은 이제 대중적이고 의미 있는 책을 모색하다 '알기 쉬운' '재미있는' '다시 보는' 등의 접두사가 붙은 인문 교양서들을 내놓아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에 자신감을 얻은 출판사들은 인물사 중심으로 한 차원 높은 입문서들을 내놓고 있다.¹⁷³⁾

같은 맥락에서 현재 인문사회 교양서 붐은 영웅사 중심의 역사 읽기가 선도하고 있다. 즉 밀리언셀러가 된 소설 동의보감, 로마인이야기, 람세스, 한 권으로 읽는 조선 왕조실록 등은 대표적인 것들로 역사 읽기에서 시작된 인문 교양서의 폭발적인 수요에 대한 공급으로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특히 고대 로마의 영웅사를 다룬 시오노 나미의 로마인이야기가 단연 돋보인다. 그러한 호응은 평생직장이 무너진 불확실성의 시대에 사회의 핵심 세력이 된 베이비 부머들이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고대 영웅들에게 찾고 있다는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그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이들 세대가 "혼돈의 시대에 당당히 맞서 자신의 시대로 만든 영웅들의 이야기에서 바로 자신들이 꿈꾸는 이상"¹⁷⁴⁾을 발견하고 있다는 증표이기도 하다.

이것은 비단 한국의 부머들에게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베이비 붐 세대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미국에서도 이런 현상은 이미 충분히 감지되었다. 예를 들어, 1986년에 가수 휘트니 휴스턴(Whitney Houston)은 소울(soul)이 가미된 록발라드(rock ballad) 노래 한 곡을 불러 빌보드 차트(billboard chart) 1위에 올려놓았다. "가장 위대한 사랑(The Greatest Love of All)"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노래는 전통적인 의미의 사랑을 노래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하는 연인 사이의

172) 정덕상, "한국의 30대 그들은 어디에 서있나: 다양한 책읽기," 한국일보, 1997년 5월 5일, 19.

173) Ibid., 19.

174) Ibid., 19.

로맨스도 아니고, 가족 간의 사랑이나 그렇다고 신에 대한 초월적인 사랑을 노래한 것도 아니었다. 이 노래는 80년대의 신조를 요약한 것으로 '가장 위대한 사랑은 각자의 내면속에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 곡은 다름 아닌 베이비 붐 세대의 철학을 요약한 그들 내면의 희망과 사랑을 노래한 것이었다.¹⁷⁵⁾

미국의 부모들이 60년대의 격동과 70년대의 실망을 경험한 이후 그들의 삶에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너 자신을 사랑하라'였다. 그런 공감을 공통적으로 표출한 그들의 행동들이 이기주의적이고 자기도취나 탐욕으로 보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다. 그러나 자기도취적인 이들의 행위들은 상실과 외로움, 단절을 경험한 이 세대에게는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이었다. 즉 부모들은 그러한 세상을 포기하지 않은 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믿어야 했었고, 그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자기 자신임을 결정한 것이었다.¹⁷⁶⁾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이미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이런 결론에 도달하였다. 60년대 저항 문화(Counterculture)와 학생 운동이 쇠퇴했을 때, 이들은 자기에게로 돌아와 자기를 성찰하였다. 그 결과 그들은 진지하게 자신들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혁명이 끝난 이후 삶의 의미를 추구하였다. 이를 위해 과거의 이념과 싸움에서 돌아와 현재를 사는 법을 배우고, 당면한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역사에 대한 책임보다 자기 문제를 사는 것에 대해 좀 더 관대해지고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려 했다.¹⁷⁷⁾

한국의 베이비 부머인 최영미 시인도 자신의 시집, 서른, 잔치는 끝났다에서 이념의 대홍수 이후, 어쩔 수 없이 시대의 격랑에 휩쓸려 살았던 지난날과 결별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 구체적인 삶에 임하는 심정을 다음과 노래하고 있다.

잔치는 끝났다
술이 떨어지고, 사람들은 하나 둘 지갑을 챙기고 마침내 그도 갔지만
마지막 썸을 마치고 제각기 신발을 찾아 신고 떠났지만
어렴풋이 나는 알고 있다

175) Craig K. Miller, Baby Boomer Spirituality, 45.

176) Ibid., 45.

177) Todd Gitlin, The Sixties: Years of Hope, Years of Rage, 424-425. 한국의 경우, 한 베이비 부머는 한국의 세대 문제를 다루는 MBC 프로그램에 나와 자신의 세대를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다 감성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

여기 홀로 누군가 마지막까지 남아
 주인대신 상을 치우고
 그 모든 걸 기억해 내며 뜨거운 눈물 흘리리라는 걸
 그가 부르다 만 노래를 마저 고쳐 부르리라는 걸¹⁷⁸⁾

결국, 자기 사랑이나 자기 존중, 자기 찾기는 아무 것도 없는 진공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세상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비록 그 사회가 실망을 안겨주고 그래서 반항하고 단절하려 한 세계라 하더라도 그 세계 속에서 자기 찾기는 이루어진다. 1955년에 태어난 미국의 베이비 부머인 스티븐 잡스(Steven Jobs)는 20대의 나이에 그의 차고에서 사업을 시작하여 그것을 수백만 달러의 가치로 키워냈다. 그는 그 애플 컴퓨터(Apple Computer)의 이상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¹⁷⁹⁾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잡스의 비전에 동참했던 스탠포드 출신의 마이클 머레이(Michael Murray)는 애플 컴퓨터가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 세계를 바꾸게 될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잡스에게서 어떤 ‘메시아적인 기운(Messianic Aura)’을 느꼈다고 회상했다.¹⁸⁰⁾

베이비붐 세대는 그들의 부모 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경제적 풍요를 경험하였다. 물론 이들이 누린 경제적 풍요는 부모 세대의 희생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풍요를 누리며 형성된 삶의 스타일은 부모세대의 그것과는 다른 것이었다. 어려운 시절을 살았던 부모세대들이 자기희생과 인내를 바탕으로 한 물질적 소유에 집착하였다면, 베이비 부머들은 개인적인 여유, 흥미 있는 경험, 높은 삶의 질, 다양성에 대한 관용, 자기 개발에 무엇보다 관심을 가졌다.¹⁸¹⁾ 이러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외부 사람들과의 사회적인 관계보다는 자기 내부 지향적인 경향을 갖게 되었고, 이 내부 지향적인 성격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정신성(Self-Seeking)으로 나타났다.¹⁸²⁾

한편에서 비판자들은 베이비붐 세대의 자기애, 자기 본위는 자기 주장만 강하고 그 강한 자아가 자신의 운명까지 책임지는 주체적 개인주의로 정착되지 못했다고 주

178) 최영미, 서른, 잔치는 끝났다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4), 10-11.

179) Michael Meyer, The Alexander Complex (New York: Times Books, 1989), 36.

180) Ibid., 36.

181) Wade C. Roof, A Generation of Seekers, 43.

182) Ibid., 4., 흔히 이런 이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들을 파괴적이고 목적 없이 방황하는 세대, 자기도취에 빠진(narcissistic) 세대, 자기만 아는 세대(Me Generation), 혹은 물질적인(materialistic) 세대라고 정의하곤 하였다.

장한다. 또 그들은 혼자서 설 것 같다가도 조금만 힘들면 기성세대의 뒷자락에 숨어 버린다는 지적도 한다. 아울러 부모들이 정신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물질적으로 필요할 때면 그 혜택에 매달린다는 비판도 잊지 않는다.¹⁸³⁾

그러나 그들의 그런 모습들은 휘트니 휴스턴의 “가장 위대한 사랑(The Greatest Love of All)”에 나오는 노래 말처럼 자기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보여지는 지체된 자기실현의 다른 모습들이다. “모든 사람이 영웅을 찾고 있네; 사람들은 쳐다보아야 할 누군가가 필요해. 내 필요를 채워줄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네; 그래서 외로운 이 세상에서 나는 나를 의존하는 것을 배웠네.”¹⁸⁴⁾ 즉, 그들은 자기 안에서 그들이 이루려던 꿈과 이상을 발견하고, 자신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 꿈과 이상을 이루어 낸 영웅을 찾아 내려 한 것이다.¹⁸⁵⁾ 따라서 베이비 부모들의 자기애는 근본적으로 그들의 영적 도전이고 추구이며 기회이다.

제 2 절 초자연(Supernaturalism)

이렇게 그들 나름대로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살아가려는 그들 앞에 전개된 현실은 그들의 예상과는 많은 부분 같지 않았다. 격동의 시기를 살면서 차분히 준비하지 못한 그들의 현실적인 삶은 불확실한 것이었고 그들이 추구한 이상은 현실에서 실현하기 어려운 한계 의식과 부딪혔다. 자연스럽게 그들은 현실을 넘어서는 영역으로 그들의 시선을 돌렸고, 현실에 아닌 초월적인 영역에서 자기를 찾고 실현하려는 정신성을 보여주고 있다.

1. 점보는 증년들

13년째 서울 신촌에서 운명 상담을 하는 역술인 이한국(李漢國·35세)씨는 찾아오는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읽는다. 특히 그를 찾아오는 상담자 중 대다수를 차지하

183) 김순덕, “신세대: 자기중심주의,” 동아일보, 1993년 4월 11일, 9.

184) “...Everybody searching for a hero. People need someone to look up to. I never found anyone to fulfill my needs. A lonely place to be. So I learned to depend on me...” 전체 가사는 <http://www.azlyrics.com/lyrics/whitneyhouston/greatestloveofall.html>를 참조하라.

185) Ernest Becker, The Denial of Death (New York: The Free Press, 1973), 5.

는 30-40대를 통해 그들의 세상살이를 꿰뚫어보고 있다. 그들이 물어오는 내용은 주로 '더 늦기 전에 직장을 바꿔야겠는데 괜찮겠느냐' '이 사업으로는 희망이 없어 다른 사업을 하고 싶은데...' '직장생활 때문에 부부관계가 원만치 못하다. 이혼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등이다. 이들은 "명예퇴직의 불안감이나 사업부도의 위기감을 이기기 위해, 직장생활에 치여 불안하기 짝이 없는 가정생활을 추스르기 위해, 창업과 같은 인생 승부수를 던지며 희망과 확신을 얻기 위해"¹⁸⁶⁾ 역슬인을 찾는다.

1년에 최소한 2번은 역슬원을 찾는다는 명모(32)씨는 서울 여의도에서 인력 컨설팅회사를 운영한다. 그는 1994년 무역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할 때도 많은 사람과 연을 맺을 수 있는 일을 하라는 역슬인의 조언을 따라 컨설팅회사를 차렸다. 남동 방향에 자리를 잡으라는 역슬인의 조언대로 목동에 살면서 임대료가 비싼 여의도에 사무실을 차리고 사업 시점도 1년 늦춰 1995년 10월께 문을 열었다. 그는 지금 사업이 번창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도 불황의 여파로 대기업들도 쓰러지는 판국에 이 정도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지금도 역슬인의 조언을 받아들이기를 잘했다고 믿고 있다.¹⁸⁷⁾

비단 명씨 뿐 아니라 용하다고 소문난 역슬원이나 점 집에는 전체 손님의 대다수를 이룬 베이비붐 세대가 차지하고 있다.¹⁸⁸⁾ 심지어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으로 무장하고 학생운동에 참여했던 운동권마저도 역슬이나 풍수지리를 도외시하지 않는다. 대학시절 운동권으로 구속까지 당했고 지금은 학원 강사를 하는 신모(33세)씨는 이사 등 집안의 일이 생기거나 한해를 시작할 때면 어김없이 점 집을 찾는다. 그는 역슬인의 말을 들으면 다소나마 결정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정서적 위안을 찾을 수 있다며 좋지 않다고 하는 일을 구태여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런 현상은 격동기였던 대학시절, 사회과학 서적을 탐독했던 그들이지만 알게 모르게 초자연적 운명론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말해준다.

1997년 7월, 동국대 사회학과 김익기(金益基) 교수가 서울에 사는 성인 남녀

186) 이진동, "한국의 30대 그들은 어디에 서있나: 점보는 세대," 한국일보, 1997년 8월 4일, 19.

187) Ibid., 19.

188) Ibid., 19. 제일제당이 1997년, 20-40대 주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0대의 69.9퍼센트, 40대의 69.8퍼센트가 점이나 사주를 본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점을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궁합을 보기 위해서'가 28.8퍼센트로 가장 많았고, '집안에 걱정거리가 있어서' 23.6퍼센트, '삶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가 17.9퍼센트, '이사와 개업을 앞두고'는 9.4퍼센트를 차지했다. 또 점(占)을 본 뒤 그 결과에 신경을 쓴다는 대답도 70.8퍼센트나 되었다.

1,100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풍수지리설을 '믿거나 믿는 편'이라고 답변한 30대와 40대는 각각 74퍼센트, 70퍼센트를 차지하였다. 그 조사를 한 김 교수는 이전 세대는 60-70년대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제개발에 나섰으나 정서는 안정돼 있었던 반면, 이 세대는 앞 세대보다 경제적으로 풍요하지만 급변하는 상황에 적응해야 하는 불안감이 오히려 무속이나 점술에 기대는 심리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외국어에 유창하고 컴퓨터에 능한 젊은 세대를 바라보며 조직사회에서 도태될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¹⁸⁹⁾

아는 바와 같이 베이비붐 세대는 보릿고개를 체험한 이전 세대와는 달리 경제적 풍요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안정된 생활에 대한 희구가 유난히 강하다. 그러나 현실은 그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불안하다. 이와 같은 현실은 70-80년대 이념의 시대를 살며 쌓아왔던 냉철한 이성과 논리적 합리성을 실종시키고 컴퓨터를 처음 접하고 대중화시켰던 이들을 역술과 무속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하였다. 이에 대해 수원대 이주향(李柱香) 교수는 이들은 "대학시절 사회과학 서적을 접하며 이성과 논리를 추구했지만 오히려 감성적인 부분의 개발은 미약했다. 그런데 경쟁사회에 내몰려 불안감과 위기감이 증폭되다 보니 허를 찔리고" 말았고, "그 불안정한 위치를 극복하는데 더 이상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이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돼 역술이나 무속에 의지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¹⁹⁰⁾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종교사회학자들도 공감하고 있다. 보통 평소 생활이 안정돼 있는 사람들은 굳이 점이나 역술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나 워낙 급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적응시켜야 하는 사람들은 무속이나 역술에 의지해 불투명한 미래를 예측해보려는 심리가 생겨나게 마련이다. 서울 성북구 정릉에서 무속 일을 하며 정치인 등 많은 단골손님을 확보하고 있는 신 모씨도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다. 평소에는 무속 따위에 대해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불치병이나 위기에 내몰리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속인을 찾는다는 것이다.¹⁹¹⁾

그러므로 베이비 부머들이 보여주는 역술이나 무속에 대한 높은 관심은 어떤 세

189) 이진동, "한국의 30대 그들은 어디에 서있나: 점보는 세대," 19.

190) Ibid., 19.

191) Ibid., 19.

대에게서나 볼 수 있는 공통된 것이기 보다 이 세대의 현상적인 측면이 강하다. 즉, 이들은 경제 발전기에 태어나 풍요를 맛보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다른 세대보다 안정에 대한 희구가 강했다. 그러나 격동의 학창 시절을 보내고 이들이 경험한 사회생활은 아래 세대의 도전과 극심한 경쟁으로 인한 불확실한 미래와 불안정한 현실 그 자체였다. 이러한 불안정한 현실에 직면하여 이들 세대는 이념의 시대에 쌓았던 합리성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영역에 관심을 돌리게 된 것이다. 그래서 연세대 심리학과 이훈구(李勳求) 교수도 “역슬과 무속에 의지하는 경향을 굳이 사회 현상과 결부시켜 본다면 그들이 베이비 붐 시대에 태어나 다른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심한 경쟁 속에 살고 있기 때문”¹⁹²⁾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2 반문화(Counterculture)의 인격화

베이비붐 세대에게는 이렇게 자신들의 현실적 한계를 넘어서고 자신들에게 확신을 주는 영역과 능력이 필요하였다. 사실, 초자연적 영역에서는 불가능한 것도 없고 믿지 못할 것도 없다. 이 세계에서는 현실에서 불가능한 개념과 실체가 얼마든지 가능하고 자연적인 법칙과 논리를 초월할 수 있어 자연적 한계를 넘어선다. 그 초자연 세계 속에서는 영적 실체인 천사, 악마는 물론 신비적인 현상이나 영적 존재와의 대화나 접촉 등의 경험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단지 이 초자연적인 세계를 맛보려면 마음을 열고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 신을 찾고 신성한 자아를 발견하면 되는 일이다.

그런데 특별히 베이비 붐 세대에게 이 초자연성은 유난히 호소하는 바가 크다. 왜냐하면 이 초자연적 세계야말로 이들이 추구하는 반문화(Counter Culture)의 이상(ideals)을 인격화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¹⁹³⁾ 미국의 경우에 베이비 붐 세대는 전통적으로 사회를 통합하는 전 세대의 전통과 제도들과 결별하고 그들만의 정의롭고 사랑이 넘치는 세계를 꿈꾸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베이비붐 세대가 취한 전 세대의 제도, 기존의 기관들과의 단절은 그들이 무너질 때 잡아 줄 수 있는 신앙이나 공동체, 문화라는 안전망을 제거한 것이었다. 그 결과 부모들은 그들이 경험한 상실에 대한 분노와 절망, 점점 높아만 가는 불만족, 실현되지 않는 욕구를 표현하고 배출하

192) Ibid., 19.

193) Craig K. Miller, *Baby Boomer Spirituality*, 73-74.

는 그들만의 통로를 필요로 하였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이상과 정서를 노래했던 60-70년대 음악이나 새로운 경험으로 인도한다는 약물, 뉴 에이지(New Age) 같은 새로운 종교의 형식이었다.¹⁹⁴⁾

특히 많은 미국 젊은이들은 힘든 현실로부터 탈출하여 평화와 사랑이라는 초월적인 영역을 약물을 통해 경험하려 하였다.¹⁹⁵⁾ 많은 이 세대의 사람들은 육체적 자아의 한계를 넘어 자기를 발견하는 방법을 이 약물에서 찾으려 하였다. 그런 맥락에서 LSD¹⁹⁶⁾같은 약물은 마음을 확장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복용되었다. 그런 약물을 경험한 한 부머는 “그것은 나에게 온전한 삶을 위한 갈망을 추구할 수 있도록 비전과 용기를 가져다주었고, 그것은 하나의 영적인 추구였다”¹⁹⁷⁾고 말했다. 결국 LSD의 이상은 새로운 자유와 사랑의 새 시대로 들어가게 하는 반문화(저항 문화) 운동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들 세대가 성장한 시대는 과학적 세계관이 지배하던 시대였다. 그 어떤 세대보다 풍요와 높은 교육의 기회를 경험한 세대로서 이들이 숨쉬는 환경은 온통 과학적 의식이 지배하였다. “말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사로잡고 있는 과학적 사고는 바로 우리 사회의 영혼이 되었다.”¹⁹⁸⁾ 그런데 그 과학적 사고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은 객관성이다. 객관적으로 사고해야 사물을 파악하고 지배하고 장악할 수 있으며 함께 이해의 기초를 공유할 수 있다. 그래서 객관성은 우리 사회의 신화이고 사회적 영혼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객관성이 갖고 있는 문제는 연구나 분석이 가능하기 위해 연구하는 사람의 감정이나 느낌, 의견을 피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그것들이 제거된 바탕에서 모든 것은 조사되고, 측정되고, 비교 분석되고, 평가되고, 분류된다. 그 객관성에 기초한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핵무기도 실험되고, 유전자 조작을 위해 동물과 사람이 동원되고, 그 객관성의 완벽한 하나의 증거로 수초에 수백만 비트가 처리되는 기계도 발명되었다. 이 과정에서 모든 것은 객관적으로 계산되고 측정되므로 이 세상에서 특별하

194) Ibid., 33-34.

195) Todd Gitlin, The Sixties: Years of Hope, Years of Rage, 201.

196) lysergic acid diethylamide의 약자로 환각제이다.

197) Annie Gottlieb, Do You Believe in Magic?, 175.

198) Theodore Roszak, The Making of a Counter Culture (New York: Doubleday & Company, 1968), 217.

고 경이로운 것이 존재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과학적 세계관은 삶으로부터 특별한 기쁨을 빼앗고 경이로운 체험의 죽음을 가져왔다.¹⁹⁹⁾

반면에 초자연적인 영역에서는 사람이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전인적인 체험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과학적 사고의 쇠퇴를 받은 미국의 부모들은 초자연적인 경험을 추구하고 수용하였다. 객관적인 세계가 아닌 나누어지기 이전의 통전성(wholeness)의 경험을 위해 어떤 부모들은 인간 내면과의 연결을 가르치는 동양 종교와 불교에 눈을 돌렸다. 감정적 뿌리가 단절되고, 개인적인 연결을 갈망하는 세대에게 불교는 기독교와 같은 타락한 세계로부터의 구원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과 완전을 말하지 않고 이 세상의 무상(The world is unreal)과 오직 우주와 하나 되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이다.²⁰⁰⁾

또 부모들의 다른 일부는 힌두교나 요가의 '구루(guru)'를 찾아 나섰다. 이미 바바(Baba)로 알려진 묵타난다(Swami Muktananda)는 '신은 당신 안에 거한다. 당신을 경배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었고, 마하라쉬(Maharashi)는 플로리다에 그런 가르침을 경험할 수 있는 거대한 종교 공동체를 세웠다.²⁰¹⁾ 라즈니쉬(Rajneesh)는 "비교 당하지 않고, 자아의 집착도 없고, 인격적인 강요가 없는"²⁰²⁾ 영적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이들 외에 다른 부모들은 심리적 접촉과 '진정한 나(real Me)'를 찾기 위해 사이언톨로지(Scientology)나 초월 명상(TM) 같은 유사 종교 운동에 가담하여 그것을 경험하려 하였다.

이런 다양한 욕구와 운동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나타난 형태가 바로 뉴에이지(New Age)이다. 뉴 에이지는 기독교의 일부 교리와 동양 종교를 묶고 범신론과 마법까지 혼합하여 하나의 통합된 체계를 구성하였다. 뉴 에이지는 합리주의나 하이테크에는 결여되어 있는 믿음과 일상적인 것이 제공할 수 없는 능력과 기성 종교가 율법과 교단의 틀에 매여 제공하지 못한 영성을 그들의 믿음 체제의 골격으로 제시하였다.²⁰³⁾ 여기에는 약 1-2천 만의 미국인들이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²⁰⁴⁾ 그들

199) Ibid., 229.

200) Robert L. Johnson, "Protestant Hangups with the Counter Culture," The Christian Century, November 4, 1970, 1318-19.

201) Jenny Jedeikin and Robert Love, "Maharishi's Magic Mountain," Rolling Stone, January 24, 1991, 9.

202) Russel Chandler, Understanding the New Age (Dallas: Word Publishing, 1988), 60-61.

중의 주목할 만한 숫자가 베이비 부머들이다. 뉴 에이지 에 가담한 이들은 주로 고학력, 고수입, 성공한 사람들이 많으며, 그들은 '대안' '새로운 패러다임' '사회 개혁' '인격적 통합' '계몽' 심지어 '유토피아'를 추구한다고 말한다.²⁰³⁾

부머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구하려는 것은 과학적 객관성이나 이성적 합리주의를 넘어 일상의 것에서는 얻을 수 없는 능력의 체험이다. 경쟁 속에서 개인적인 연결이 부재하고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의미 있는 관계가 단절된 부머들은 지금 자신들을 붙잡아 줄 강한 공동체를 희구하고 있다. 기대하던 온전성(wholeness)이 상실되어 내면의 결핍과 감정적 상처로 외로워하는 잃어버린 '진정한 나(Real Me)'를 찾을 수 있는 강력한 전인적인 체험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다.

3. 확산되는 수련문화

이러한 흐름은 비단 미국이나 미국의 부머들의 현상만은 아니다. 한국에서도 이것과 관련된 현상이 이들 부머 세대와 관련하여 흔하게 목격되기 때문이다. 그 역사적 배경이나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양상은 서로 다를 수 있으나 그런 현상은 우리사회에서 많이 익숙해져 있고 지금도 확산되고 있다. 예컨대 이제 한국 사회에서 '기'나 '기 수련' '단전호흡' '명상' '참선' 등은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그리 낯설지 않다.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공개적으로 내놓기 어려운 비과학적이고 이상한 취미로 받아들여졌으나 요즘은 수련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고 인식이 증대되어 오히려 그 부작용을 우려할 정도이다. '한국 수련문화의 현실과 방향'을 토론한 공개 모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수련 인구는 이미 백만을 돌파하여 개인의 심신 수련의 차원을 넘어 중요한 대중문화, 시민문화로 정착하고 있다고 한다.²⁰⁶⁾

우리 사회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은 몸과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함께

203) "New Age Harmonies," *Time*, December 7, 1987, 62.

204) John Naisbitt and Patricia Aburdene, *Megatrends 2000* (New York: William Morrow and Company, Inc., 1990), 293.

205) Lillie Wilson, "The Aging of Aquarius," *American Demographics*, September 1988, 34.

206) 정재서(사회), 이규행, 임경택, 박동운, 안동준, 장휘용, "한국 수련문화의 현실과 방향"(공개토론, 1999년 9월 5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장), 월간 정신세계 창간 준비팀, 새 천년을 여는 수련문화 (서울: 정신세계사, 1999), 21.

자연스럽게 병행되어 증대되었다. 즉 건강식품이나 자연식, 다이어트, 에어로빅, 헬스, 사우나 등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그 연장선상에서 이런 수련문화가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이런 관심이 단순히 육체의 건강에서 머물지 않고 정신적 건강이나 더 나아가 정신세계에 대한 추구를 동반했다는 점이다.²⁰⁷⁾ 그래서 선도, 기공, 요가, 참선, 명상 등에 대한 관심이 독특한 수련문화를 만들고 그것들을 확산시키게 되었다.

수련 문화의 이런 확산과 대중화는 1984년 실존인물 봉우 권태훈 옹의 이야기를 펴낸 단(丹)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시작되었다. 이를 전후하여 청산선사가 국선도를 최초로 만들고(1970년, 수련장 개장), 단학선원(1985년), 한국단학회 연정원(1986년) 등 한국 전통의 수련법을 잇는다는 수련단체들이 속속 세워졌다. 그 외에 중국에서 수입된 '태극기공회'(1988), '당산기공' 등이 합해지면서 그 영역이 확장되었다. 거기에 미국에서 전해진 '마인드 컨트롤'(1979년), 'TM(초월명상)' '아뵤타,' '오쇼,' '아난다마르가,' '라자요가' 등의 명상 단체들이 활동을 하면서 소위 '기 신드롬'이라고 할 수 있는 수련문화의 확산이 이루어졌다.²⁰⁸⁾

수련문화가 이렇게 확산된 배경에는 여러 원인들이 있다. 우선, 수련 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이다. 과거에는 이런 정신세계에 관한 것이라면 비과학적이고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수련에 대한 실질적인 많은 방법들이 소개되면서 일반적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198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에는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우리 자신과 역사, 민족의 주체성과 전통에 대한 질문이 생기면서 전통 수련법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수련 문화의 확산으로 이어졌다.²⁰⁹⁾

다음은 세계적으로 20세기 중엽 이후 현대 과학 문명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정신적인 갈망이 크게 고조된 측면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하게 발달된 과학문명이 인간을 파괴하는 것을 목도하고, 과학 기술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되었다. 그 결과 서구에서는 정신 회복 차원에서 뉴 에이지 운동²¹⁰⁾이 전개되었다. 이 과

207) Ibid., 23.

208) 김인곤, "이야기로 풀어보는 한국의 수련문화 30년", 새천년을 여는 수련문화 (서울: 정신세계사, 1999), 140 -159.

209) 월간 정신세계 창간 준비팀, 새 천년을 여는 수련문화, 25.

210) 뉴 에이지 운동은 "1960년대에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히피 운동에서 시작된 근대 과학 기술 문명에 대한 비판과 동양의 신비적인 문화전통에 대한 동경이 어우러져 새로운 문명을

정에서 “서구인들이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이성주의, 합리주의에 대한 회의와 불신이 생기면서 반사적으로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것으로 보이는 이 현상들의 근본이 무엇인가 하는 탐색, 이런 시도들이 수련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는 계기”²¹¹⁾가 되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물질적 충족 이후 다가오는 정신적 공허감의 문제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경우, 1970년대를 지나며 사람들의 원초적인 욕구인 먹는 문제가 해결되었다. 배불리 먹은 다음에는 고급스럽게도 먹어 보고 그 다음에는 주말이면 동호인 들끼리 레저도 즐겨보았다. 그러나 그 유형도 한계가 있어 물질적 풍요에 의해 상대적으로 야기되는 정신적 공허를 메우고 싶은 열망이 수련문화로 이어졌다. 갈수록 가치관이 깨져서 질서도 없어지고, 종교적 영향력도 점차 쇠퇴하자 무질서와 무가치에서 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수련을 찾게 되었다.²¹²⁾

또 다른 이유는 기존의 종교문화에 대한 반발에서 찾을 수 있다. 실제 종교의 현장에서 보면 종교라는 조직이 강화되고 형식화될수록 인간과 신의 직접적인 접촉보다 성직자가 증간에서 매개하는 간접적인 형식이 강화된다. 그런 상황에서는 인간과 신이 분리될 뿐 아니라 신에 대한 구체적 체험도 매개될 수밖에 없다. 그런 배경에서 “신과 인간의 직거래 현장을 스스로 갖고자 하는”²¹³⁾ 욕구가 수련 문화를 찾는 동기가 되었다. 즉 지금까지 근대 과학의 힘이 인간을 신으로부터 결별시켰다면 이제 미신이라든지 비 과학이라고 치부해온 수련 체험을 통해 그 인간 밖의 새로운 존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래에 내재된 자기를 만나는 무한한 신비의 현장을 그대로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70-80년대를 치열하게 살아온 베이비 붐 세대와 수련문화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 실상, 치열한 역사의식과 현실참여를 주장하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명상이니 기니 하는 것들은 몽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인

모색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운동을 과학적으로 도운 것이 ‘신과학운동’이며 그 대표적인 사람이 “현대문리학과 동양사상” “새로운 과학과 문명의 전환”을 쓴 프리츨프 카프라이다. 마루야마 도시야끼, 기란 무엇인가, 논어에서 신과학까지, 박희준 역 (서울: 정신세계사, 1999)를 참조하라.

211) 정재서 외, “한국 수련문화의 현실과 방향,” 새 천년을 여는 수련문화 (서울: 정신세계사, 1999) 26.

212) Ibid., 27.

213) Ibid., 31.

다. 그래서 운동권으로 대표되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세계와 관련된 사람들은 한심해 보이고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은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바뀌기 시작했다. 운동권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서서히 명상에 관심을 보이거나 실천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게 된 것은 왜일까? 90년대에 들어와서 사회주의를 지지하던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운동권은 방향성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야 했다. 거기다 비록 더디고 불완전하기는 하나 민주화된 민간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구심점은 더욱 흔들렸다. 이렇게 구심점이 흔들리면서 아예 운동권을 떠나거나 환경 운동이나 인권 운동으로 옮긴 사람들도 있다. 그런 가운데 “정체성을 찾지 못한 일부 사람들은 내면의 문제로 관심을 돌리기 시작하였고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명상의 세계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많아졌다.”²¹⁴⁾

또한 이것과 관련하여 운동가들 자신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그들은 운동을 하는 동안 “큰 이슈 아래 개개인이 스스로의 완성이나 내면적인 균형에 대해서는 돌볼 여유가 없이 그저 일과 사람을 만나는 일에 쫓겨 탈진”하게 되었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매 순간의 일상생활에서 조금씩은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가장 적절한 수단으로 수련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²¹⁵⁾

그런 이유 외에도 베이비붐 세대가 수련 문화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크게 보아 그들이 공통의 지향점을 갖기 때문이다. 즉 사회 운동을 하는 사람이나 수련 지도자 공히 주장하는 내용과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들 모두 궁극적으로는 사회변혁을 지향한다는 점이다.²¹⁶⁾ 예를 들어, 1997년 미국 세도나에서 서양인을 대상으로 ‘세도나 단학 연구소’를 세워 운영중인 기희선(35세) 원장은 자신의 활동이 “세계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활동”임을 밝히고 있다.

인류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안적 삶의 양식이 확립되었다고 하기는 아직 어렵다. 세계가 근본적으로 변하려면 새로운 삶의 양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일정하게 축적돼 ‘임계질량’에 이르러야

214) 박식, “가부좌에 들어간 마르크스,” 월간 정신세계 창간 준비팀, 새 천년을 여는 수련문화 (서울: 정신세계사, 1999), 131.

215) Ibid., 165.

216) Ibid., 132-133.

한다. 세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운동이다. 오늘날 환경, 시민운동의 한계는 자신이 변하지 않고 의식만 가지고 운동을 추진한다는 데 있다. 우리는 몸과 마음이 먼저 건강한 상태로 변해야 근본적인 운동이 가능하다고 본다.²¹⁷⁾

즉, 이들은 점차 세계관의 변화나 새로운 삶의 양식 등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대안 사회를 모색하는 공통의 지향점에서 서로 만나고 있는 것이다.

4 새로운 종교 의식

이렇게 사회변혁의 대안적 돌파구나 새로운 삶의 형식으로 초자연적 영역에 관심을 보이는 베이비붐 세대는 기성 종교 안에서도 많이 관찰된다. 한국의 종교 인구와 종교별 분포도에 대한 1987년 경제기획원 발표에 의하면, 1985년 기준으로 이 세대에 해당하는 20대는 42.2퍼센트가 종교를 갖고 있어 10대 30대보다도 크게 높았다.²¹⁸⁾ 그 후 10여 년이 지난 1996년 한국 통계연감에 따르면, 역시 그 세대인 30대의 종교 인구가 19.5퍼센트, 40대가 15.3퍼센트를 차지하여 각각 10.6퍼센트, 6.7퍼센트를 기록한 50, 60대와 10대 미만 10.5퍼센트, 70대 이상의 4.4퍼센트를 크게 앞질렀다.²¹⁹⁾ 그래서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정진홍(鄭鎭弘) 교수는 “나 자신 깜짝 깜짝 놀랄 정도로 젊은 층의 종교적 관심은 매우 높다. 특정 종교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변동이 심한 우리 사회 현실에서 빛어지는 가치의 혼란과 불안 때문에 절대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다”²²⁰⁾라고 말했다.

자아에 대한 의문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 구원의 문제 등 보다 본질적인 것을 향해 높은 관심을 갖는 이들은 분명 종교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중 많은 이들이 기성세대가 믿는 같은 종교를 믿고 같은 내용의 경전을 읽으면서도 그 경

217) 이상수, “동서 문명의 사상적 접점 어디인가?” 한겨레신문, 1999년 3월 29일, 11.

218) 이 중 불교는 43.8퍼센트, 기독교 40.9퍼센트, 천주교 11.5퍼센트로 나타났다. 그밖에 원불교, 천도교, 대종교 등 민족종교와 기타 종교를 합쳐 1.6퍼센트, 유교는 0.02퍼센트였다. 한국일보편집부편, 신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상, 95.

219) 정진황, “한국의 30대 그들은 어디에 서있나: 소극적인 종교 활동,” 한국일보, 1997년 6월 16일, 21. 이들이 믿는 종교별 분포를 보면, 불교가 46.8퍼센트, 기독교 37.6퍼센트, 천주교 13.3퍼센트, 유교 0.5퍼센트, 원불교 0.3퍼센트, 기타 1.5퍼센트를 기록했다.

220) 한국일보편집부편, 신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상, 89.

전과 복음을 새롭게 이해하고 다른 형태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그들은 종교에 대한 관점을 내세의 구원이나 기복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현실 개선을 위한 이념으로 수용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다. 내세보다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현실 개선이나 현실참여가 믿는 자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점에서 부모들은 기성 세대와 그 수용 태도에 있어 분명히 다르다.²²¹⁾

기독교학교인 연세대가 자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기독교를 믿는 학생이 27퍼센트인 약 6,000명인데 그 중에 자신을 보수주의 신앙을 갖고 있다고 답한 학생은 1,000여 명에 불과했다. 같은 대학의 종교 서클 회원인 정모 군(22세·정외과 3년)은 “아무리 종교에 헌신한다 할지라도 천당에 가기 위한 것이라면 이기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예수의 삶을 실천하다 보면 죽음 앞에도 당당하다”²²²⁾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였다. 또 한국대학생불교연합의 간사장인 송연택(宋連澤·29)씨도 현실 세계에서 정토를 구현하는 것이 곧 극락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연세대 사회학과 정재식(鄭載植) 교수도 베이비붐 세대의 신앙 태도는 기복이나 개인 영혼의 평화를 추구하는 기성 세대의 그것과 뚜렷이 다르며, 종교를 통한 사회 정의 실현이나 삶의 조건의 인간화를 위해 헌신하려는 것에 의미를 찾는다고 지적한다.²²³⁾

물론 같은 베이비붐 세대 안에서도 현실 참여로 나타나는 종교적 활동에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사람들이 존재한다. 현실의 개선보다 개인 구원의 문제나 전도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도 많다. 이런 성향의 신자들은 사회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 이들의 종교 성향이 과소평가 되는 경향이 있어 현실 개혁은 전도보다 그 의미가 적다고 믿고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진홍 교수의 지적처럼 사회 참여적이든 개인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건 “기본 출발이 종교냐 사회과학이냐의 차이일 뿐 종교적 실천은 이데올로기화하고 운동권의 이데올로기적 실천은 종교적 도그마로 변질돼 차이를 알기 힘들만큼 근접하는 성향”²²⁴⁾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래서 연령층 별 종교 인구가 최대이면서도 종교활동의 참여도가 저조한 이유

221) Ibid., 89-90.

222) Ibid., 90.

223) Ibid., 90.

224) Ibid., 92-93.

도 이런 성향과 관련 있다는 분석이다. 이들은 70-80년대의 억압적 사회 구조 속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다. 그들은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훈련을 받았으면서도 관계의 측면에서는 사회와 부모 세대에 대한 냉소적이고 비 참여적인 성향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세대가 가지는 이런 고민들을 기성 종교가 그 해답과 대안을 속 시원히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이들의 종교 이반을 가속화했다는 지적이다.²²⁵⁾

이와 같이 이들 세대가 현재 활발한 종교 활동에 나서지 않고는 있지만 베이비 붐 세대는 다른 세대와 비교하여 종교성이 오히려 강하다. 이들은 본능적으로 미래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과 꿈을 추구하면서도 전통적이며 권위주의적이고 맹목적인 성공을 강요하는 상반된 현실에서 고민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에게 초자연적 세계는 그 현실을 다른 차원에서 실현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준다. 그들이 현실에서 무너진 희망과 그 실망감이 갖다준 결핍을 뒤집어 추구하려는 이상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불안한 현실과 역설적으로 추구하는 이상을 초자연적인 영역에서 체험함으로써 자기를 찾는 영적 도전을 그 안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제 3 절 모험성(Adventurousness)

확실히 이들 베이비 부머들은 상실의 시대를 산 사람들답게 자기 찾기에 열심이다. 그것이 현실을 넘어선 영역이든 아니면 날마다 만나는 현장에서의 삶이든 자기 찾기의 노력은 언제나 계속된다. 그 자기 찾기의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영성이 다른 아닌 모험성이다. 그들이 일상에서 보여 주는 모험성은 무엇보다 그들을 다른 세대와 구분해 주는 정신적 특성이고 그들 세대의 독특성이다.

1. 모험과 탐험의 일상화

베이비 붐 세대는 어떤 세대보다 모험과 탐험을 좋아한다. 그들은 이미 정해진 생활의 틀을 거부하고 모험적인 체험을 통해 해방감을 맛보기 원한다. 새롭고 알려지지 않은 세계를 향한 동경심은 어떤 세대에서도 있는 일이지만 베이비 붐 세대는 그

225) 정진황, "한국의 30대 그들은 어디에 서 있나: 소극적 종교 활동," 21.

동경과 꿈을 실현하는데 주저함이 없고 저돌적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세대와 다르다. 과거의 젊은이들도 젊은 날 한 때의 낭만이 있었다. 그러나 베이비 부모들은 한 때의 낭만으로 치부하고 지나칠 수 있는 그 모험과 탐험을 실제 삶으로 감행한다. 그들에게는 모험과 탐험이 삶의 양념이나 지나치는 낭만이 아니라 그들 삶의 중심에 있고 삶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²²⁶⁾

이 세대가 최근에 보여준 모험과 탐험의 발자취는 놀라운 것이다.²²⁷⁾ 1984년 여의도 63빌딩에서 감행한 헝글라이더 낙하 비행은 빌딩 낙하 부분 세계 기록을 세운 것이었다. 1988년에는 한강변에서 한 부모가 직경 13미터의 대형 기구에 매달린 헝글라이더를 타고 1만 2천 미터를 올라 헝글라이더 부분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또 같은 해, 제주 해협을 엔진 글라이더로 횡단한 기록은 이 부분 국내 최대 비행기록으로 남았다.

산에 대한 베이비 부모들의 모험과 탐험도 끝없이 펼쳐졌다. 1988년 두 고교생에 의해 감행된 히말라야 고졸바캄봉 정복이나 같은 해 5월, 20대 여성 4명이 시도하여 등정에 성공한 북미 매킨리봉 탐험은 각각 그 봉우리에 대한 순수 여성으로서는 처음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1988년 강원대 산악 반이 북벽을 통해 매킨리봉을 정복했는데 이는 한국 등반대로는 처음으로 성공한 사례이다. 또한 1987년 한 해 동안 대학 등, 국내 원정대에 의한 해외 원정이 37회였는데 이는 70년대를 통틀어 40회였던 것을 감안할 때 그것과 비견되는 기록이다. 국내에서는 80여 명의 40여 개 대학생들에 의해 진부령에서 지리산에 이르는 백두대간(白頭大幹) 671킬로미터의 종주가 이루어지기도 했다.²²⁸⁾

강과 바다에서 이루어진 모험과 탐험도 그칠 줄 모르고 시도되어 성취되었다. 1983년 경상남도 거제(巨濟)에서 일본 쓰시마 큐슈 가라쓰(唐律) 간 현해탄 배길 283킬로미터를 뗏목 '해모수'호를 타고 횡단, 1000여 년 전 역사의 뗏길을 재현한 것도 동국대 탐사 팀이었다. 또 장장 3007킬로미터의 남미 아마존 강을 뗏목을 타고 탐사한 한국오리엔티어링 청년 5명의 쾌거도 있었다. 또 1988년 2월에는 대학생 4명이 한겨울 금강을 특수하게 설계된 보트와 썰매로 종주했고, 북한강 400리 길을 스킨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하천은 물론 수중 동굴에 대한 탐사를 진행한 것도 이들이다. 그

226) 한국일보편집부편, 신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상, 53.

227) Ibid., 54.

228) Ibid., 54.

뿐 아니라 1986년에는 한국해양소년단 소속 20대 5명이 윈드서핑으로 대한해협을 단체로 횡단하는 사상 최초의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자동차, 사이클 같은 육상에서도 모험은 계속되어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오경진(30세)씨가 1988년에 세계 일주 기록을 세웠고, 1985년에는 서울 롯데빌딩 26층을 맨손으로 기어올라 국내 초유의 건물 등반, 빌더링(Buildering) 진 기록을 세운 사람도 이 세대 대학생 스파이더맨이었다. 그래서 한국인 처음으로 도버해협을 윈드서핑으로 횡단했던 권희범(權熙範·35세·대한윈드서핑연맹 서울지부 부회장)씨는 “요즘 20대의 모험 추구나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 의지는 놀라울 정도이고 무모하리 만큼 목표를 향해 밀고 나가는 과단성과 저돌적 추진력이 새롭다”²²⁹⁾고 평가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이렇게 모험하고 탐험하는 문화가 정착하게 된 시기를 대개 80년대 초²³⁰⁾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시대적 배경과 맞아떨어지고 있다. 스포츠 과학연구소장 박영민(朴榮敏·45세) 고려대 교수는 “서구에서도 물질문명이 한 단계 높아지는 과도기에 모험이 성행했다. 80년대에 들어와 경제 성장으로 물질 기반이 확충되고 사회가 양적으로 팽창됐으나 젊은이들의 욕구를 수용할 정치·사회적 통로나 장치가 뒤따르지 못해 젊은이들이 분출구로 찾는 것이 모험·탐험”²³¹⁾이라고 분석하였다. 또 다른 모험과 탐험의 배경으로는 “80년대 개방화의 물결을 타고 들어온 모험성 레저스포츠 문물이 젊은이들의 호기심과 맞아 떨어졌다. 특히 관련 정보가 대량 유입돼 그동안 위험하고 힘든 것으로만 여겨온 모험스포츠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것도 한 요인”²³²⁾이라고 헝글라이딩 중앙협회 사무국장 백준흠(白埈欽·34세)씨는 지적한다.

이들 세대의 모험과 탐험에는 그 활발한 활동만큼이나 오해나 위험이 항상 따라다녔다. 학비조달을 위해 막노동을 하는 동료에 있는데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는 그런 활동 자체가 사치스럽고 양식 없는 행위라는 비판과 함께 자기만족만을 위한 독불장군식의 논리로 오해받기도 하였다. 그뿐 아니라 이 모험과 탐험에는 적지 않은 위험과 희생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었다. 예를 들어, 1987년 낙동 강변 야산에서 헝글라이딩 활공 연습을 하던 영남대생이 역풍에 휘말려 50미터 상공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일

229) Ibid., 53-54.

230) Ibid., 56.

231) Ibid., 56.

232) Ibid., 56.

이 있었다. 또 1982년과 1985년에 대학생 두 명이 윈드서핑을 즐기다 아산만과 한강에서 익사하는 사고도 있었다.²³³⁾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험을 즐기는 이들 세대는 단조로운 시도에는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점점 난이도가 높은 경험을 추구하였다.

이렇게 모험과 탐험을 즐기는 이들은 기존의 사고에 속박 당하는 것을 거부한다. 이들은 그래서 동호인이 아니면 그룹 짓기를 싫어하고 사회의 기존 통념을 깨뜨리고 자기 자신만의 방식을 추구한다. 맨손 암벽 타기를 하는 심재홍(심재홍·26세·설계사)씨는 그것을 즐기기 위해 직장의 동료들과 슬자리도 할 수 없어 사회생활과 멀어지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아무 소득도 없는 위험한 일에 목숨을 건다는 주위의 손가락질 같은 것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 스킨스쿠버를 즐기는 간호사인 오정민(25세)씨는 대학 시절 친구들이 시국 문제로 고민하며 시위를 할 때는 왠지 죄스러운 느낌이 들었지만 일단 물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잊고 그것에 몰두한다고 했다.²³⁴⁾

2 자기 발견의 즐거움

그렇다면 도대체 왜 베이비 부모들은 이렇게 위험이나 오해를 무릅쓰고 모험과 탐험에 빠져드는 것일까? 외국 영화를 통해 헝글라이딩을 시작한 경력 6개월의 이금숙(李錦淑·22세·덕성여대)씨는 “강습 1개월 만에 첫 활공을 했는데 2분도 채 안 되는 동안 날아보니 무어라 형언할 수 없는 기분에 젖었다. 그 날 밤, 잠자리에서 내내 흥분이 가시지 않아 하늘에서 내려다 본 나무숲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 뒤부터 시간만 나면 산과 들을 찾게 되었다.”²³⁵⁾고 했다. 또 스킨스쿠버 경력 1년인 회사원 오세응(吳世應)씨는 “바다 속에서 차가운 물의 감촉을 느끼며 한 마리의 물고기가 되는 기분에 젖을 때 직장, 가정에서 쌓인 온갖 스트레스가 단번에 해소되는 것 같다”²³⁶⁾며 그 느낌을 말한다.

이들의 활동과 환경은 이렇게 서로 다르지만 베이비 부모들은 결국 모험과 탐험을 통해 일상 생활에서 느낄 수 없는 스릴과 해방감을 맛보기를 원하고 있다. 즉 자

233) Ibid., 56.

234) Ibid., 56.

235) Ibid., 57.

236) Ibid., 57.

신들의 한계 능력에 도전해보고 극한 체험을 해봄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무엇보다 자아를 발견하려고 하고 있다.²³⁷⁾ 모험이 아니고서는 흔히 주어질 수 없는 그 체험들을 통해서 자기를 느끼고 알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래서 등산 경력 6년으로 1988년 북미 매킨리봉을 정복한 배경미(裴京美·25세·중앙대 대학원 1년)씨는 “정상까지 다다르는 극한상황에서 자연과 합일되는 자아를 발견하게 된다”²³⁸⁾고 말한다.

이들 베이비붐 세대는 읽고 생각하기보다 보고 느끼기를 더 좋아한다. 이성적이기보다 감성적인 그들은 간접적으로 듣는 것만으로는 풍부한 감각의 공간을 채울 수 없어 직접 눈으로 보아야만 만족을 얻는다. 상대적으로 인쇄 매체보다 시각 매체에 길들여져 온 그들은 그래서 만화, TV, VTR 등을 가장 많은 지식을 손쉽게 취득하는 정보 전달 매체이자 제일 중요한 레저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²³⁹⁾ 같은 맥락에서 직접 가서 보면서 체험할 수 있는 여행은 이들의 삶에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다.

여행은 이들에게 있어 아주 선호하는 경험이자 익숙한 생활이기도 하다. “자 떠나자 동해바다로 삼등 삼등 완행열차 기차를 타고...” 70년대 전기 부머들은 ‘가슴속에 예쁜 고래 한 마리’를 잡으러 동해로 떠났었다. 후기 부머들 또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세계로 여행을 간다. 이들에게 있어 이제 세계 여행은 그저 환상만이 아니다. 아무리 가고 싶어도 법에 의해 출국이 불가능했던²⁴⁰⁾ 이전의 선배들과는 달리 이들은 이제 가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든 떠날 수 있다. 심지어 순전히 여행을 가고 싶어 자진해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어 여유와 휴식이 있는 삶을 살겠다는 이들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²⁴¹⁾

부머들이 여행을 통해 보고 오는 것은 단순히 경치나 문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세계이다.²⁴²⁾ 그들은 자기 나라에서 부모의 그늘 아래 의존하여 살다가 아는 사람

237) Ibid., 57.

238) Ibid., 57.

239) 한국일보편집부편, 신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상, 102.

240) 국민여행자유화방침에 따라 정부는 1981년 8월1일자로 여권법시행규칙을 개정, 여권의 단·복수(單·複數) 구분, 부부 해외여행 연령제한, 관계부처 추천 및 조회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등 여권발급절차를 크게 간소화함으로써 해외여행 자유화 시대를 열었다. 친지초청 방문(82년7월1일자부터 실시), 관광여행(83년1월1일..) 등의 완화조치가 남아있긴 했지만, 이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가 발표된 1981년 한 해 여권발급은 전년 대비 30퍼센트 이상이 늘어나는 신장세를 보였다

241) 김순덕, “신세대: 배낭여행,” 동아일보, 1993년 6월 6일, 9.

242) Ibid., 9.

이 없는 외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면서 독립을 배우게 된다. 놀아야 할 무대가 한반도가 아니라 세계라는 것을 느끼면서 역설적이게 세계 속에 있는 ‘우리의 것’을 보게 된다. 작은 것에 집착하는 태도를 지양하면서 진정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배운다. 여행이 좋아 간호사라는 전문직을 버리고 여행사 직원이 된 성미경(成美京·27세)씨는 여행에서 얻은 체험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배낭여행 중에 보는 모든 것을 통해 마치 조각 그림을 맞추는 느낌이었어요. 나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이런 것이었구나...”²⁴³⁾ 그래서 여행을 상담하는 직원들은 흔히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오세요’라고 부추긴다.

모험과 탐험을 통해 자기 자신을 찾아 나선 부머 세대들은 자신의 삶에서도 이런 도전을 읽을 수 있다. 신승영설계공방 대표 신승영(辛承瑛·33세·여)씨는 자신의 일과 가정에서의 역할 모두를 잘 소화해내고 있는 베이비 부머이다. 그녀는 지난 해(1996년) 9월 문대권(文大權·33세·사업)씨와 결혼하였는데 그것은 일본 유학과 일에 족 빠져 세월 가는 것을 잊었기 때문이었다. 신씨는 ‘인생에서 적령기는 없다’ 일이든 결혼이든 적령기는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²⁴⁴⁾

신씨가 인테리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친구들과 일본 도쿄에 여행을 갔다가 문화 충격을 받고 난 이후이다. 명지대 일어일문학과 2학년 당시 세계 유수의 패션 상품들이 밀집해 있는 아오야마(青山) 거리에서 그 화려함과 독특한 디자인에 매료되어 일본 유학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무남독녀인 신씨는 남들처럼 결혼해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그녀의 부모님들을 ‘주어진 삶이 아닌 깨어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설득해야만 했다. 결국 5년이란 기간의 허락을 얻어 89년 도쿄에 와서 유학 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미지의 유학 생활에서 홀로 선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워 한국인에 대한 차별과 자신과의 힘든 싸움을 넘어야 했다. 일본에서 전통을 자랑하는 인테리어센터스쿨(ICS)에서 공부한 89년에서 92년까지 학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은 아르바이트로 충당했다. 학원으로 부탁이 들어온 200대 1의 모형을 만들기 위해 이틀에 하루 꼴로 밤샘을 하며 돈을 벌면서 공부하였다. 마침내 92년, 3시간에 걸친 인터뷰 끝에 ‘야스오 곤도 디자인 오피스’라는 일본 최고의 인테리어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녀는 그곳에서도 항상 밤 12시 10분까지 일하고 마지막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는 생활을 계

243) Ibid., 9.

244) 박일근, “한국의 30대 그들은 어디에 서 있나: 뛰는 여성들,” 한국일보, 1997년 2월 6일, 15.

속하였다.

약속했던 5년을 채우고 93년 귀국한 신씨는 이듬해 3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신승영설계공방을 열었다. 홍대 앞 일식 레스토랑 '친친'의 설계 및 시공을 필두로 그녀는 활동을 넓혀가 인테리어 잡지에 소개되고 이름도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현대적 감각과 동양적 미를 승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녀는 "일을 갖기 위해서는 하고 싶은 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²⁴⁵⁾이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부머들은 무엇보다도 도전하고 성장하고 삶을 창조적으로 만드는데 열심이다. 이들은 일터에서 단순히 경제적인 보상이나 직책보다는 목표와 사명을 발견하기를 바란다. 즉 자신이 왜 일하는지를 알기 원하고, 그 일의 의미와 일의 소중함과 그 일에서 자기만의 다름을 추구한다. 항상 하던 대로의 옛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 즉 일터에서 이들은 끈임 없이 자기를 개발하고 새로운 것을 향해 모험하는 '자기 개발자'(self-developer)의 삶을 살고 있다.²⁴⁶⁾

이 자기 개발자는 기술적인 탁월함과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전문가와는 구별된다. 이들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주어진 조직 안에서 승진하는 것보다 경쟁의식과 독립성에 더욱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²⁴⁷⁾ 이 자기 개발자들은 특히 관료적인 조직이나 자기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는 것을 싫어한다. 그리고 고객이나 의뢰인과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반응하기를 원한다. 그들은 일터에서 단순히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인적인 인격으로 대우받기를 원한다. 이들은 직장에서 자신의 성공 못지않게 가정과 휴식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끊임없이 왜 일하는 지에 대해 질문한다.²⁴⁸⁾

3. 개인의 승리 추구

다시 말해, 자기 개발자는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반응하기 원하고, 하나의 역할

245) Ibid., 15.

246) Craig K. Miller, *Baby Boomer Spirituality*, 86.

247) Michael Maccoby, *Why Work: Motivating and Leading the New Generation* (New York: Touchstone Book, Simon & Schuster Inc., 1988), 46.

248) Ibid., 20.

수행자가 아니라 전인으로 대우받기 원하고, 왜 일하는지를 추구한다. 이러한 주된 관심과 자신들을 고용한 어떤 특정한 직장에 매여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자기 정체성으로 인해 자기 개발자는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가 말하는 '지식 노동자'²⁴⁹⁾와 흡사하다. 그런 맥락에서 이 지식 노동자와 자기 개발자를 공통으로 묶어 주는 개념은 존 네이스빗(John Naisbitt)이 90년대 주된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말한 "개인의 승리"²⁵⁰⁾이다. 즉 90년대 이후에는 자신이 옳다고 느끼는 것에 의해 행동하고, 자신만의 진리에 의해 살고, 자신 안의 무한한 잠재력을 확장해 가는 개인에 의해 사회가 건설되고 변화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어서 90년대 초 안전한 진로를 과감히 포기하고 주저 없이 불투명한 미래를 선택하는 일들이 많아졌다. 그러한 대열의 선두에는 여지없이 베이비 붐 세대가 앞장서 있다. 이들은 주어진 현실을 거부하고 불투명한 미래를 위해 다시 한번 인생의 승부수를 띄우는 그야말로 탈 셸러리맨의 열풍을 타고 있는 것이다.²⁵¹⁾ 그것이 20대에 꿈꾸어왔던 꿈이든 아니면 갑자기 찾아온 상황 때문이든 이들 세대는 이제 창업이라는 현실적인 결단을 내리고 있다.

직업이 생계유지의 수단이라는 생각을 접고 자아실현이나 개성발휘의 기회로 인식하는 베이비 부모들은 위계질서가 분명하고 상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일반 직장보다는 자영업을 선호한다. 즉 조직을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통일된 하나의 목표에 종속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역량을 그대로 발휘하여 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한다. 새로운 것과 모험을 추구하는 이들의 특성이 직업 선택에도 반영되어 직업의 종류를 다양하게 할 뿐 아니라 기존의 직업 현장에 새로운 의식을 불어넣고 있다.²⁵²⁾

분명 셸러리맨과 오너(owner)의 차이는 존재한다. 만들어진 틀에 자신을 맞추어 가야 하는 입장과 없는 틀을 만들어가야 하는 입장 사이에는 부인할 수 없는 삶의 간격이 존재한다. 바로 거기에 그 간격을 한꺼번에 뛰어넘을 수 있는 창업의 매력이 손짓한다. 그래서 이들의 가슴속에는 "평범한 셸러리맨에서 야심 찬 오너로 변신하려는 열정이 꿈틀댄다."²⁵³⁾ 베이비 부모들은 직장 내의 위치로 볼 때 막 직장 생활을 시작

249) Peter Drucker, *The New Realities*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 1989), 94.

250) John Naisbitts and Patricia Aburdene, *Megatrend 2000*, 298.

251) 서사봉, "한국의 30대 그들은 어디에 서 있나: 다시 띄우는 승부수," 한국일보, 1997년 2월 13일, 15.

252) 한국일보편집부편, 신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하, 137.

하는 20대도 아니고 세월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직장생활을 해야 하는 50-60대와의 다르다. 대개 기업의 중간 관리 층으로 성장한 이들은 일에 대한 경험도 어느 정도 축적돼 있고 아직은 만만찮은 야망과 모험심도 수그러들지 않은 그런 연령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만해도 창업은 일부가 선택하는 선택과목에 불과하였다. 그러던 것이 IMF 이후 명예퇴직, 정리해고 등 고용불안이 좀더 일반화되면서 창업은 이제 선택과목이 아니라 이 세대의 필수과목이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1997년 한 해만 해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97창업 박람회'에는 무려 2만 명의 인파가 몰렸고, 2000명이 넘는 드넓은 전시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 중에 부머 세대가 대부분이었다.²⁵⁴⁾ 그들은 81개 참여 업체들의 부스들을 일일이 들어가서 사업설명회를 경청하고 열심히 메모도 하는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오너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창업을 안내하는 강좌들이 등장하고 있다. 한국생산성본부가 개설한 창업예비학교,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창업 스쿨, 중소기업은행이 전국을 순회하며 여는 순회강좌는 그것들 중에서 특히 인기 있는 강좌들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창업 열풍을 반영한 이색 상품도 등장하고 있다. 즉 일정 기간 해외의 신종 업종을 둘러보는 창업전문 해외여행 상품 같은 것이 그것이다. 그래서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윤종훈(尹鐘薰) 연수운영부장은 “요즘 30대의 창업 열기는 마치 용광로와 같다. 올해는 중소기업청과 연계해 보다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창업 강좌의 질을 높일 계획”²⁵⁵⁾이라고 말했다.

베이비 부머들에게 인기 있는 창업 업종은 유통업, 컴퓨터 관련업, 서비스업 등이다. 상대적으로 제조업은 자본금이 많이 들고 자금 회전이 느려 피하는 반면 창업 자본이 적게 들고 무엇보다도 아이디어로 승부를 걸 수 있는 업종들에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업종분화로 틈새시장이 많이 생겨난 유통업은 인기가 높아 70년대 무역업이나 80년대 제조업을 잇는 새로운 창업 인기 업종이 되고 있다.

특별히 관심을 끄는 것은 첨단 직종에 대한 선호도가 아주 높다는 사실이다. 이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성취감과 만족도가 높고 비교적 고소득이 보장되고 시간도 여유가 있어 인간적인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첨단산업 계통의 벤처기업

253) 서사봉, “한국의 30대 그들은 어디에 서 있나: 다시 띄우는 승부수,” 15.

254) Ibid., 15.

255) Ibid., 15.

들이 베이비 부머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1997년 기준 등록 회원 210개 기업 중에서 60퍼센트 가량이 30대 사장들이다.²⁵⁶⁾ 이들 세대는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대중화되던 80년대 중반을 대학에서 보내며 컴퓨터를 본격적으로 접해 정보화의 물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거기다 강한 성취욕과 모험 정신을 소유함으로써 강한 승부사 기질도 가진 세대이다.

예를 들어, 93년 7월 새롬기술을 창업한 오상수 사장(32세)은 ‘팩스맨’과 ‘보이스맨’등 PC용 통신소프트웨어를 내놓아 이 분야를 석권하였다. 그 결실로 94년 매출, 4억 5천에서 97년에는 120억 원으로 급성장하였다. 이찬진(李燦振·31세) 사장이 창업하여 워드프로세서 분야의 독보적 업체가 된 한글과 컴퓨터도 첫해인 95년 매출 5천만 원에서 1996년에는 무려 450배인 221억을 기록하였다. 91년 박병엽(朴炳燁·35세)씨가 창업한 편택도 창업 첫해 300만원에서 6년 채인 1997년 1000억 원의 매출을 목표로 뛰며, 주력 제품인 무선호출기에서 개인 휴대통신 기술을 개발, 종합정보 통신업체의 반열에 올라섰다.²⁵⁷⁾

이들의 이런 고속 성장은 첨단과학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이 세대다운 속도감과 국제 감각, 끊임없이 계속되는 혁신 추구, 정보화에 대한 열의, 높은 수준에 이른 업무 지식, 창의적 사고 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²⁵⁸⁾ 이들이 맨손의 신화를 꿈꾸는 벤처기업의 개척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주어진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들만의 모험 정신과 생활 스타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4 시도되는 영적 도전

가장 눈에 띄는 베이비 부머들의 생활스타일이 보여주는 특징은 뭐니뭐니해도 자유분방함이다. 이 자유스러움은 모험과 탐험에 있어서도, 벤처 기업을 하는데도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그 자유로움 속에는 만약 실패를 하더라도 그것은 젊을 때 겪어야 할 시행착오이며 인생의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이 자유스러

256) 이진동, “한국의 30대 그들은 어디에 서 있나: 정보화시대 주도,” 한국일보, 1997년 5월 12일, 19.

257) Ibid., 19.

258) Ibid., 19.

음이야말로 모험이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양이라고 할 수 있다.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울 때만 참신한 아이디어도 창의력도 샘솟는다. 따라서 이들은 가식적인 권위나 위계질서를 강요하는 것을 지극히 싫어한다.

이것과 관련하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영적 움직임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미국 교회 안에서는 전통적인 예배 형식에서 탈피, 현대인의 의식구조와 생활 스타일에 맞춰 교회를 운영하는 차세대 교회(Next Church)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²⁵⁹⁾ 이들 교회들은 침묵이나 십자가, 화려한 내부 장식은 물론 기존의 찬송가, 강요된 침묵, 헌금, 기도문 암송 등 전통적인 예배 형식을 거부한다. 대신 오케스트라를 동원 록 음악 풍의 찬송가를 연주하고 현대 무용도 사용한다. 차세대 교회 신자들은 주로 교회에 다니다 실망했거나 전혀 종교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차세대 교회 운동을 이끄는 지도자나 참여자는 2차 대전 이후 태어난 베이비 부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²⁶⁰⁾

현재 미국 교회 중에서 새로운 영적 흐름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교회인 윌로우크릭교회(Willow Creek Community Church)는 빌 하이벨스(Bill Hybels)에 의해 세워지고 지도되고 있다. 그와 그 교회는 지역조사를 통해 지역의 필요와 욕구를 읽고 주일에 구도자 예배(Seeker Service)를 시작하였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으로 활기찬 현대 스타일의 음악, 높은 수준의 드라마, 강도가 낮고 겁주지 않는 설교는 새로 오는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어 그들을 불러들였다. 이것은 “그 때까지 말하지 않은 것을 말하고 부르지 않은 찬양을 부르고 누구도 주지 않은 것을 준 것”²⁶¹⁾이었다. 이러한 시도는 “사려 깊은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빌(Bill)의 생각은 비논리적이고, 위험스러우며, 무모하고 실패할 운명이었다. 어쩌면 어리석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²⁶²⁾이었다.

1980년 자기 가족만으로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Orange County)에서 새들백교회(Saddleback Valley Community Church)를 시작한 릭 워렌(Rick Warren)도 전통 교회의 틀을 벗어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베이비붐 세대에게

259) 김인영, “미국에 차세대 교회 새바람,” 한국일보, 1996년 9월 11일, 14.

260) Ibid., 14.

261) Russell Chandler, “Customer Poll Shapes a Church,” Los Angeles Times, Monday December 11, 1989, A1 and A28-A31.

262) Babara Stewart 편, 이것이 윌로우크릭 커뮤니티교회이다, 강정진 역 (서울: 한국로고스연구원, 1996), 22.

접근하기 위해 현대적인 음악과 예배 스타일을 제공하고, 빌딩을 세우기보다 사람을 세우고, 정장보다는 간편한 반바지와 평상복을 입고 예배하는 교회를 만들었다.²⁶³⁾ 릭 워렌은 “우리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곳은 성장하는 곳이지 모든 것을 갖춘 완전한 사람들을 위한 장소가 아니다.”²⁶⁴⁾라고 하여 불신자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

캘리포니아 애나하임(Anaheim)에서 존 Wimber(John Wimber)에 의해 창립된 빈야드교회(Vineyard Christian Fellowship)의 출석 교인들은 베이비 붐 세대가 대부분이다.²⁶⁵⁾ 이들은 기존의 전통 교단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교회의 ‘능력 전도(Power Evangelism)’에 끌려 그 교회로 오게 되었다. 예배 참석자들은 평평하고 네모난 건물에 평상복 차림으로 모여 기타, 드럼, 키보드에 맞춰 하나님의 영적인 힘주심과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찬양한다. 존 Wimber는 말한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온갖 종류의 영적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종교적 사상의 모델을 추구한다...사람들은 우리의 문화 속에서 그들이 섬기는 삶의 스타일보다 하나님이 좀 더 능력 있는 분임을 보기 원한다.”²⁶⁶⁾ 즉 오늘날 부모들은 영적 모험을 하고 있고 이 교회는 과감히 그 모험을 제공함으로써 베이비 부모들을 그 모험에 동참시키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은 감지되고 있다. 예컨대, 젊은이들의 종교 활동 참여 인구가 저조한 가운데 서울의 은누리교회(담임목사 하용조)는 특이하게도 젊은층이 주류를 이루는 교회이다. 신자 중 20-30대의 비율이 75퍼센트를 차지하고 그중 30대는 37퍼센트이다. 이 교회는 젊은이의 감각에 맞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배당은 대형 스크린이 설치된 무대와 같고, 교회 안에는 커피숍과 극장, 서점도 있고 어린이 놀이방도 있다. 주일 예배도 찬송과 설교가 이어지는 전통 예배가 아니라 스크린을 통해 영상물을 보여주고 연극이나 음악을 공연한다. 불신자를 위해 토요일

263) Richard D. Warren, “New Church for a New Generation: Church Planting to Reach Baby Boomers. A Case Study: The Saddleback Valley Community Church” (D. Min. Dissertatio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1993).

264) Cris Meyer, “Missionary in Suburbia,” Valley News, South Orange County, 1989, A20.

265) Russel Chandler, “Vineyard Fellowship Finds Groundswell of Follows,” Los Angeles Times, October 5, 1990, A34.

266) John Wimber, “Zip to 3000 in Five Years,” Peter Wagner, Sign & Wonder Today (Altamonte Springs, FL: Creation House, 1987), 31-34.

일에 열리는 ‘열린 예배’는 정통적인 종교적 분위기를 느낄 수 없다. 경건하고 엄숙한 예배에 익숙한 기존 교회의 예배 형식으로 볼 때 가히 파격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가는 사람도 전혀 부담이 없다는 소리를 듣는다.²⁶⁷⁾

요컨대, 이렇게 영적인 도전을 하는 베이비 부모들의 영성 속에는 모험성이 담겨 있다. 그들은 다른 세대와 비교하여 현실 생활에서 모험과 탐험을 즐긴다. 기꺼이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경험과 일에 도전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다. 그 모험과 탐험의 체험을 통해 이들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느끼고 자기를 발견하기 원한다. 그래서 보장되지 않은 새로운 분야를 과감히 개척하고 기존의 구속이나 틀에 얽매이지 않는다. 결국 그런 베이비붐 세대의 모험성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영역을 확대하고 더욱 다양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267) 정진황, “한국의 30대 그들은 어디에 서 있나: 소극적인 종교활동,” 21.

제 4 장

베이비붐 세대의 영적 미래

제 1 절 새천년(Millennialism)

전후 세대인 베이비 부모들은 새로운 밀레니엄을 그들 생애 가운데 경험하고 있다. 이 의미 있는 시기를 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는 그들이 이 시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는가에 달려 있다. 그들이 이 새천년이라는 시간을 어떤 경험과 연결하여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세대가 살아갈 향후 삶의 방향은 물론 한국 사회의 변화와 진행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새천년의 정신성은 베이비 부모를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1. 시대가 주는 의미

1950년 중반 이후에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는 새 천년이 전환되는 중요한 시기를 일생의 주기 중 중년에서 맞고 있다. 원래 이 '새 천년'을 뜻하는 영어의 millenium이라는 단어는 1000을 뜻하는 라틴어 mille로부터 유래한다. 그런데 이 말이 사람들의 무의식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영향을 미친 것은 성경의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묵시적 배경 때문이었다. 즉 이 말이 '천년 왕국'을 말할 때 사용되어 예수가 재림하여 묵시적 싸움을 승리로 이끌고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1000년 간을 의미하였다.²⁶⁸⁾ 그런 배경에서 이 'millenium'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사용될 때 "인류사의 황금기 곧 과거의 문을 닫고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어야 할 시기"²⁶⁹⁾를 뜻하게 되었다.

268) John Naisbitt & Patricia Aburdene, 메가트렌드 2000, 김홍기 역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0), 15.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새 천년을 맞는 시대적 변화의 문제는 비단 기독교인들의 관심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 새 천년은 지금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²⁷⁰⁾ 그것은 모든 시대의 모든 이들이 그 시대의 전환을 경험하였겠지만 우리가 맞고 있는 지금의 변화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 시점이 세기의 전환이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새로운 천년(Millennium)이 도래하는 전환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변화를 해석하는 세계인들은 특별한 관심으로 그 문제를 대하고 있다. 예컨대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이 거대한 변화를 관찰한 후 21세기의 전환기인 1950년대 중반부터 2025년까지의 기간이 역사의 중심점이라고 지적한다.²⁷¹⁾ 같은 맥락에서 캘리포니아 대학의 힐렐 슈바르츠(Hillel Schwartz)는 역사 심리학 서적인 세기의 종말(Century's End)에서 2000이라는 큰 수가 “수천 개의 지연된 희망과 성취되지 않은 예측들에 대해 중압감을 준다.”²⁷²⁾고 말한다. 그가 제시한 세기말의 역사적 특징은 바로 불안과 희망이 교차하는 야누스적 성격이다. 그 야누스의 얼굴 한쪽 면이 종말에 대한 혼란, 우울, 퇴폐, 유토피아의 상실 등의 비관적 정조를 하고 있다면 다른 한쪽 얼굴은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 혼란에 빠진 종말을 회복시키려는 노력, 전력 질주 등의 낙관의 모습을 하고 있다. 결국 슈바르츠는 세기 말에 벌어지는 이러한 두 경향의 치열한 밀고 당김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는 뒤바뀌었다고 파악한다.²⁷³⁾

이러한 관점에서 슈바르츠는 동시대인 1990년대에 관심을 보인다. 그는 금세기 세기말의 분위기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강력하다고 말한다. 다른 아닌 기술의 진보가 가져온 20세기의 모습은 이전까지 세기말이 보여준 비관을 더욱 구체화시키며 극단으로 몰고 가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 오염, 금융 위기, 자원 고갈 등은 금세기 말을 비관의 색조로 물들이고 있다. 하지만 슈바르

269) Ibid., 15.

270) Stephen Jay Gould 외, 시간의 종말: 새로운 밀레니엄에 대한 4가지 논의, 문지영, 박재환 옮김, (서울: 이끌리오, 2003). Umberto Eco·Carlo M. Martini 공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세욱 옮김 (서울: 열린책들, 2003). 박이문, 문명의 미래와 생태학적 세계관 (서울: 당대, 1998).

271) Alvin Toffler, Powershift (New York: Bantam Books, 1991), xix.

272) Russel Chandler, 2001년을 향하여 경주하는 교회, 맹용길 옮김 (서울: 쿤란출판사, 1993), 11.

273) 자세한 것은 Hillel Schwartz, 세기의 문: 전환기의 역사, 이은희 옮김 (서울: 아카데미북, 1999)을 참조하라.

츠는 역사적으로 모든 세기말이 항상 희극으로 끝났다고 결론짓는다. 즉 세기말에는 극도의 정신적 패닉(panic) 상황을 겪지만 다음에 전개되는 새로운 세기는 항상 '구원의 시대'였다는 것이다.²⁷⁴⁾ 세기말의 불안에 대한 걱정이 희극으로 끝나는 것은 그 강도만큼의 극복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금세기에도 적용되며 다만 조금 더 어려울 뿐이라는 이야기이다.

기록에 따르면, 지금으로부터 1천년 전(999년)에도 그 천년의 시한이 다하고 종말이 올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극도의 혼란을 경험하였다.²⁷⁵⁾ 성경 요한 계시록의 이미지에 따라 중세 유럽의 귀족, 상인, 성직자 할 것 없이 무력감과 혼돈에 빠져 있었다. 농민들은 생업을 터전을 버리고 교회로 몰려들었고 귀족들은 남은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기도하고 경건하게 종말을 맞으려고 하였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재산을 향락으로 탕진하며 종말을 기다리기도 하였다. 혼돈스러운 1년 간의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999년 12월 31일을 맞았으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사람들은 허탈하게 일상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세기말의 혼돈과 불안은 비단 새 천년을 맞는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니다. 처음 세기가 AD 99년에서 100년으로 넘어갈 때에도, 또한 서기 999년에서 1000년으로 천 년대를 건너뛸 때에도 묵시록을 근거로 한 종말론이 당시 기독교권에 있던 인류를 불안에 떨게 했다. 당시까지 절대적인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던 세계관도 파괴와 재구성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다. 그와 더불어 질병, 종파 분립, 새 정치세력의 등장으로 그야말로 세계사는 요동쳤다.²⁷⁶⁾ 혼란상의 본질이 비슷했기 때문에 그 끝맺음도 상당히 유사한 면을 갖고 있다. 즉 이러한 관찰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세기말이 비슷하게 종결되었다는 것이다. 하나의 밀레니엄을 끝맺고 다음 밀레니엄을 새로이 여는 때에는 세기가 끝난다는 데에 대한 두려움과 다른 세기를 시작한다는 기대가 교차하는 특정한 양상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분석들을 기초로 하여 살필 때 1990년대는 붕괴되고 있는 한 시대와

274) 특히 앞의 책의 5장, 6장, 7장을 참조하라.

275) 이에 대해서는 Damian Thompson, 종말, 이종인, 이영아 옮김 (서울: 푸른숲, 1999)을 참조하라.

276) 슈바르츠에 의하면, 인류의 역사는 '세기말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096년 십자군 창설, 1390년대 페스트 창궐, 1492년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 1588년 스페인 함대 침몰, 1789년 프랑스 대혁명 등은 세기말의 사건이 세상을 뒤바꾼 전형적인 사례다.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시대가 나뉘어지는 분기점이다. 즉 90년대가 그 이전 시대의 낡은 틀이 붕괴되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체계가 들어서는 전환의 경계선이다. 그런 맥락에서 세기의 전환을 관찰했던 랜스 모로(Lance Morrow)도 1990년대가 붕괴된 것들의 체계와 형성되고 있는 또 하나의 체계 사이에 변화하는 경계선이라는 의미에서 '우주적 분수령(Cosmic Divide)²⁷⁷⁾이라고 규정하였다.

특히 그는 시기적 경계선이라는 의미에다가 한 세대와 또 하나의 새로운 세대를 가르는 경계선의 의미를 덧붙인다. 즉 경계선을 넘는 시대적 전환은 기본적으로 전 시대에 살았던 세대와는 다른 세대의 등장과 차이를 전제한다. 과거 세대에 의해 형성된 제반 체제는 새로운 시대의 그것으로 대체된다. 과거 세대의 사고방식과 관습은 더 이상 새 세대의 삶의 준거가 되지 못한다. 새로운 세대가 경험한 역사 경험은 그들이 만들어 가는 세상에서 새로운 생활 패턴과 새로운 삶의 질을 만든다. 그렇게 변화된 사고방식과 삶의 질에 근거한 새로운 가치와 신념 체계는 새로운 생활양식, 새로운 사회 구조를 형성한다.

2 역사를 바꾼 경험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맞고 있는 새 천년의 전환기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는 새롭게 등장하는 세대가 새 천년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다. 즉 새로이 도래하는 천년이 의미하는 바는 전적으로 그 천년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달려있다.²⁷⁸⁾ 그런 관점에서 새천년의 전환기에 사회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베이비 붐 세대가 새 천년을 한 시대의 종말로 보는가,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시작으로 보는가는 중요하다. 이들이 내리는 미래에 대한 해석과 결정은 곧 도래하는 새 천년을 이들이 어떤 삶의 기준과 영적 가치로 살 것인지를 가늠하기 때문이다.

사실 현재 당면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북방 외교 추진의 결과, 1991년 9월 17일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고, 같은 해 12월 13일에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발표되자 사람들은 한반도에 냉전이 종식되고 평화가 정착될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그 후 전개된 남북

277) Lance, Morrow, "Old Paradigm, New Paradigm," *Time*, 14 Jan. 1991, 65.

278) Russell Chandler, 2001년을 향하여 경주하는 교회, 365.

관계는 평화는 고사하고 전문이 감도는 대립 구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북한 핵 문제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다자간 논의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여전히 핵전쟁에 대한 공포 아래 놓여 있다. 세계적인 군비통제 기류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전쟁의 공포는 여전하여 한반도에 어두운 그림자를 내리고 있다.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를 운명처럼 떠안고 태어나 살고 있는 부머 세대는 전쟁의 위협이 없는 세계를 모르고 산다. 부머 세대는 남북 분단 상황 속에서 늘 전쟁의 공포와 그것이 짓누르는 사회적 분위기에 젖어 성장하였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민방공 훈련의 사이렌 소리와 등화관계, 학교에서조차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불안한 일상 속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이 어디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다²⁷⁹⁾는 의식과 함께 현대전에서는 어느 누구도 죽음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현실 인식 속에 살고 있다. 그 결과 이 세대는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나 안정된 청사진을 그리는데 익숙하지 않다. 자연스럽게 그런 불확실한 미래를 소유한 이 세대는 지금, 현재, 순간을 사는 “지금 여기에 충실한 세대 (Be Here Now Generation)”²⁸⁰⁾가 될 수밖에 없었다.

당면한 환경 문제 또한 그 전망이 밝지 않다. 급격한 산업화를 통해 경제개발을 해온 한국의 현실은 환경을 우선하여 생각할 수 없는 처지였다. 우리나라가 공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던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경제개발에만 몰두하였다. 따라서 한국내의 산업 활동에서 기인하는 오염뿐 아니라 자본과 기술을 가진 선진국들의 도움으로 경제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히 공해산업들을 위주로 받을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오염피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산림 생태계의 전반적인 파괴, 척박해진 토양, 떨어진 연안의 생산성, 오염된 환경, 이로 인한 많은 동식물들의 멸종 등 그동안 우리나라의 환경이 겪은 변화와 피해는 참으로 엄청나다.²⁸¹⁾

279) 전후 세대인 베이비 붐 세대는 부모세대로부터 한국 전쟁의 참상에 대해 전달받았을 뿐만 아니라 월남전, 걸프전 등에 군대가 파견되고 남·북 대치 상황 하에서 군대 생활을 하면서 직, 간접으로 전쟁을 접한 세대이다.

280) Chellis Glendinning, *Waking Up in the Nuclear Age* (New York: Beach Tree Books, 1987), 81.

281) 자세한 것은 환경처, *환경백서* (서울: 환경처, 1990)를 참조하라. 그리고 세계적인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ur Common Future*

새 천년을 맞은 한국의 경제 현실도 어렵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 새로운 사업체가 빠른 속도로 생겨나서 새로운 일자리들을 창출해감에도 불구하고 실업자에 대한 수치가 늘어만 간다. 동시에 경제구조의 취약으로 인한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지 않아 IMF와 같은 경제 위기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또한 예산 적자에 따른 보험이나 연금의 고갈을 염려하고, 직장이나 생활의 불안정한 현실로 인해 베이비 붐 세대가 바라던 중산층의 꿈은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보장도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베이비 부머들은 과거의 치열한 삶을 통해서 어두운 역사를 자신들의 힘으로 변화시킨 경험을 한 세대이다. 부머들은 단순히 무한경쟁을 뚫고 자신들의 성공만을 향해 질주하는 세대는 적어도 아니었다. 이들은 70-80년대 유신에서 6월 항쟁까지 치열한 반독재 투쟁의 전면에서 섰던 현장 세대이다.²⁸²⁾ 50-60대 이상이 한강의 기적을 일군 번영의 주역들이라면 부머들은 군부 독재와 산업화의 그늘을 누비며 사회를 바꾸기 위해 깃발을 든 주인공들이다. 그 과정에서 부머 세대는 전 세대가 경험한 춘궁기나 꿀꿀이죽으로 상징되는 절대 빈곤은 비켜날 수 있었고, 동시에 다수의 희생 덕분에 소수만 잘사는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보다는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꿈꾸었다.

그래서 이 세대는 한국 현대사의 결정적 전환기마다 인간답게 사는 사회를 건설하려는 그들의 신념과 가치관을 행동으로 표현하였다.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그들은 박정희 정권이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는데 그 뇌관 역할을 한 부마 사태, 1980년의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전위부대로 나섰다.²⁸³⁾ 특히 베이비 부머들은 1980년의 광주를 경험하면서 민주화 사회를 정취해야 한다는 강한 소명감을 갖게 되었고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강한 분노를 표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시위를 하거나 공공 기관을 점거하기도 하고, 불의에 항거하기 위해 분신과 투신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방법도 가리지 않았다.

격정의 시대였던 1985년에는 2·12 총선에서 선명 야당 지지로 이들 세대는 자신들의 신념을 표출하였다. 당시 베이비 붐 세대는 전 국민의 14퍼센트로 전체 유권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7)를 참조하라.

282) 최운필, "한국의 30대 그들은 어디에 서있나: 이데올로기의 전환," 한국일보, 1997년 1월 9일, 15.

283) 김용삼, 베이비 붐 세대의 대폭발·민주화·올림픽·IMF, 13.

자의 24퍼센트를 점하는 파워그룹을 형성하였다.²⁸⁴⁾ 1980년대까지 권위주의 통치질서를 몸으로 경험한 이들은 국민들의 불만과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2·12 총선이라는 선거전에 쏟아 부었다. 당시 민주화를 지향하던 야당 지지표는 중산층과 상인, 대학생들과 근로자층의 연합으로 나타났다. 이때 야당 후보 진영에 대학생들과 운동권 출신들이 많이 참여하여 득표 활동을 돕거나 투표권을 가진 베이비 부머들은 대거 야당에 표를 몰아주었다. 또한 직장에 다니는 베이비 부머들은 시간을 내어 선거 유세장을 찾아 반정부 구호를 외치거나 야당을 응원하여 당시 유권자들을 선거에 참여시킴으로써 민주화의 대장정에 동참시키는 역할을 감당하였다. 그래서 당시 언론은 이들을 '넥타이 부대'라고 불렀고 그들의 힘이 선명야당 돌풍을 몰고 오는 결과를 낳았다.

그 후 베이비붐 세대는 1987년, 호헌 철폐와 직선제 투쟁을 할 때에는 사회에 진출하여 양복에 넥타이를 맨 채 퇴근 후 거리로 나섰다.²⁸⁵⁾ 당시 서울은 서울 올림픽을 대비하여 서머타임제를 실시 중에 있었고 해가 종천에 떠 있던 퇴근 무렵 이들은 퇴계로와 남대문, 명동으로 나가 '군정 종식'과 '호헌 철폐'를 외치며 시위에 참여하였다. 결국 1987년 6월 항쟁 기간 동안 벌어진 일련의 시위 사태는 소위 '6·29 선언'을 이끌어 내 "민주주의 전통이 없던 동양의 개발도상국에서 정변이나 쿠데타가 아닌 국민과 권력자의 절묘한 타협으로 민주화 혁명을 성취"²⁸⁶⁾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3. 떨치지 못하는 부채감

이와 같은 민주화의 성취는 비단 이들 세대의 운동권만이 아닌 대다수 구성원들이 동조하고 광범위하게 참여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베이비 부머들의 힘은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면서 권위주의 정권과 보수적 성향의 한국 사회를 민주화되고 개혁적인 사회로 방향을 트는데 일조 하였다. 결국 "이들은 캠퍼스에서, 거리에서, 감옥에서 숭한 희생을 치러가며 투쟁한 끝에 독재자의 항복을 받아" 내었고, 그 결과 "기성세대가 근대화를 성공시켜 가난을 퇴치한 세대라면 베이비 붐 세대는 우리 사회에 민주화를 정착시킨 전위 역할을 한 세대"²⁸⁷⁾가 되었다.

284) Ibid., 28.

285) Ibid., 34.

286) Ibid., 38.

베이비 붐 세대가 민주화를 정착시킨 전위 세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민주화를 성취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함께 이 세대가 공통적으로 소유한 독특한 정서 때문이었다. 이들 세대는 1970년대를 거치면서 군부 독재의 폭압적 권위와 횡포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하였다. 또 고도성장의 열매를 먹으며 그들이 형성한 상승 기대가 독재 권력의 횡포로 무참히 짓밟히는 모순과 갈등도 경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러한 문제의식은 철저하게 통제되고 개방적인 학습이 보장되지 않던 중등교육 과정에서 그대로 의문의 수준으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대학은 이들에게 전혀 다른 공간이었다. 상대적으로 보장된 지적 풍토와 지배 권력에 대한 저항 의식은 이들을 격렬하게 행동하는 도전자로 바꾸어 놓았다.

이들이 대학 생활을 할 어간에는 입학은 쉽게 하고 졸업을 어렵게 함으로써 면학 분위기를 정착시킨다는 졸업정원제가 시행되었다. 1981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 하에서 대학은 대단한 수적 팽창을 불러왔다. 예를 들어 전기 부모들이 대학을 들어 갈 1975년에 대학생 수의 증가율이 35퍼센트이었는데 후기 부모들이 대학생활을 하던 1985년에는 159퍼센트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또 대학 진학률도 75년에 7.7퍼센트에서 85년에는 33퍼센트로 크게 늘어났다.²⁸⁸⁾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이른바 ‘백만 학도’들은 특히 광주를 경험하고 그것을 전승하면서 강한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즉 이들은 “광주의 기억을 끊임없이 환기했으며 살아남은 자로서의 수치심을 집권자에 대한 증오감으로 전화시켰다.”²⁸⁹⁾

실제로 후기 부모들인 386 세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들은 그들의 생애 과정에서 가장 깊은 영향을 준 사건으로 ‘6월 항쟁’과 ‘광주 항쟁’을 꼽았다.²⁹⁰⁾ 곧 이 두 사건의 집합적 경험이 이들의 삶의 방향과 정치적 지향을 결정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광주는 그야말로 당시 그들에게는 그들의 의식의 발목을 잡고 따라다니는 우울한 암호였다.

5월이 되면 하루가 멀다하고 ‘광주 학살 규명’ ‘파쇼타도’와 ‘미제

287) Ibid., 14.

288) 조대엽, “386 세대의 문화와 세대 경험,” 263.

289) 김동춘, “1980년대 민주변혁운동의 성장과 그 성격,” 학술단체협의회 편, 6월 광주항쟁과 한국 사회 10년 (서울: 당대, 1997), 99.

290) 한상진 엮음, 386세대, 그 빛과 그늘, 15-16.

축출'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도 '삼천만 잠들었을 때...'로 시작하는 '농민가'와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함성...'으로 시작되는 '님을 위한 행진곡', 그리고 '꽃잎처럼 금남로에 흩어진 너의 붉은 피'로 시작되는 '5월의 노래'를 즐즐 외울 정도였습니다. '광주'는 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은밀한 그림자로 다가왔습니다.²⁹¹⁾

그 결과, 그들 속에는 그러한 사건 경험이 반영하는 그들만의 의식이 형성되었다. 그들은 스스로 '다른 어떤 세대보다 사회적 약자 집단에 대한 이해심이 높다'(75퍼센트)고 생각하고 있으며 아울러 '민중에 대한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다'(74퍼센트).²⁹²⁾

광주항쟁은 우리 사회의 모순을 가장 극한적 형태로 보여줌으로써 1980년대의 대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위해 죽어간 사람과 군부 권위주의에 억압받는 민중에 대한 부채감과 책임감을 심어주었다. 그런 의미에서 386 세대에게 6월 항쟁까지 이어지는 초기 민주화 이행에 헌신하는 일이야말로 일종의 역사적 의무처럼 느껴졌다. 즉 이들에게 광주항쟁과 6월 항쟁은 7년간에 걸쳐 진행된 하나의 연속적 사건이었다.²⁹³⁾

물론 이러한 부채의식은 민중에 대한 체감에 따라 전·후기 부모들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즉, 70년대에 학창시절을 보낸 전기 부모들과 80년대를 그 세대적 공간으로 하는 후기 부모들 사이에 그 민중에 대한 체감은 서로 다른 것이었다. 70년대에 학창 시절을 보낸 전기 부모들의 성장기는 아직 빈곤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상태가 아니었다. 그래서 소수 부유층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은 고단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전기 부모들에게 민중은 실제로 함께 했던 체험적인 존재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했다. 반면에 80년대를 시대적 공간으로 하는 후기 부모들과 그 가족들은 당시 빈곤으로부터 탈출하여 중산층으로 형성해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 부모들에게 민중이 체험적으로 느낀 개념이었다면, 후기 부모들에게 민중은 착취와 억압을 받는 어느 정도 상상 속에 존재하는 의식 수준의 민중 성격이 강했다.²⁹⁴⁾

291) 김용삼, 베이비 붐 세대의 대폭발·민주화·올림픽·IMF, 23.

292) 한상진 역음, 386세대, 그 빛과 그늘, 16.

293) 윤상철, "높은 개혁 열망, 분절화된 신뢰구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공개 토론회 자료집, 386세대의 가치관과 21세기 한국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55.

294) 김원, 잊혀진 것들에 대한 기억 (서울: 이후, 1999), 114. 은기수, "사회적 약자의 이해와 시민적 연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공개토론회 자료집 386세대의 가치관과 21세기 한국 (서울: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소위 집단이나 민중에 대한 강한 부채 의식은 이들이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의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곧 1980년대 후반 시작되어 199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시민운동에서 베이비 부머들이 차지하는 역할은 핵심적이다. 특히 시민운동을 견인해 가는 경실련,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의 핵심적인 활동 배후에는 이들의 헌신이 결정적이다.²⁹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환경개발센터 서왕진(徐旺鎭) 국장은 “시민운동은 다양한 연령, 직업, 계층의 참여를 지향하지만 실무 작업을 기획·추진하는 업무는 대체로 30대가 중심”이라면서 “30대는 인간적으로 선진화한 사회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역량과 의지를 갖춘 세대”²⁹⁶⁾라고 지적한다. 이렇게 이들 세대는 비단 운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운동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높은 관심을 통해 사회 개혁의 잠재력을 높여가고 있다.

이렇듯이 이들 베이비붐 세대는 역사를 바꾼 승리의 경험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채 의식을 공통분모로 이제 우리 사회에서 가장 건전한 사회 비판 세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²⁹⁷⁾ 그들이 한 때 심취했던 이념의 열정은 건전한 사회 비판세력으로 자리 잡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이 같은 지적 토양 위에서 그들은 비판 의식과 현실참여 열의, 진취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으로 자기 분야에서 사회를 변화시켜가고 있다.

4 세상을 바꾼다

사실 한국 현대사에서 사회가 크게 변화되었던 주요한 사건들 배후에는 어김없이 학생 운동이 있어왔다. 그것을 배제하고 80년 광주 항쟁, 6월 민주화 시위와 6·29 선언, 수십만이 운집했던 서울 역 시위, 건국대 사건, 88년 통일 대 시위 등을 말할 수 없다. 특히 매 사건들마다 집단적으로 세를 과시하며 형성했던 베이비붐 세대의 학생 운동은 한국 정치·사회사의 중대한 역할을 감당하였다. 그 운동의 핵심이 섰던 70년대-80년대 소위 운동을 경험했던 학생들은 이제 30-40대 중·후반이 되었다. 그

정신문화연구원, 2000), 17.

295) 조대엽, “386세대의 문화와 세대 경험,” 266.

296) 최윤필, “한국의 30대 그들은 어디에 서있나: 이데올로기의 전환,” 15.

297) Ibid., 15.

들은 지금 사회의 각 방면에서 법조, 문화, 정치, 경제인으로 민주적 사고로 새바람을 일으키며 활동하고 있다.

가장 보수적인 집단중의 하나로 알려진 법조계에서도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일고 있다. 예를 들어, 검사장 급 간부들이 검찰총장 퇴임 후 공직 제한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내자 임춘택(林春澤·39세)검사는 ‘검찰의 증립을 위해 공직 제한이 필요하다’고 글을 올렸다. 이러한 행동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항명과 같은 것이었다. 또 한보사건 재수사에서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金賢哲)을 구속시키고 정태수(鄭泰守)리스트에 오른 정치인을 사법 처리할 수 있었던 것도 30대 검사들의 소명 의식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²⁹⁸⁾ 마찬가지로 인권 변호사 단체 안에서도 이 세대의 변호사들이 사회 정의에 관한 뚜렷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물론 베이비붐 세대의 법조인들 가운데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지만 다른 세대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그들만의 정서적 공감대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70년대 증반에서 80년대 증반 대학 시절을 보낸 이들에게는 사회에 대한 채무의식을 지니고 있다. 이 같은 공감대는 소신이 갖든 판결과 수사, 활발한 사회 참여 등으로 표출되는 경향을 보인다.”²⁹⁹⁾ 이들의 이러한 사명 의식은 법과 정의를 지키는 그들의 임무 때문에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그 어떤 사회 조직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제도 정치권으로 활동의 영역을 옮긴 운동권 출신들도 많다. 예컨대, 5공 시절 학도호국단 체제를 무너뜨리고 첫 직선 총학생회장을 지낸 이들이 대표적이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고시 3과에 합격한 이정우(35세)씨는 변호사를 개업하였지만 연세대 총학생회장으로 전국 대학생대표자회의 의장을 지낸 송영길(34)씨와 고려대 출신 김영춘(35)씨는 현재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정치권 주변의 관측으로는 정치권 입성을 위해 암증모색하는 숫자까지 합치면 이들의 숫자는 수 백 명에 달한다.³⁰⁰⁾ 이들은 기성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며 정치권의 주류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비해 대기업에 입사해 경제계의 일꾼으로 변신한 이 세대 운동권의 경우는 다소 독특한 사례이다. 대우그룹은 1994년 특채 형식으로 30대 초반의 운동권 출신들

298) 이태희, “한국의 30대 그들은 어디에 서있나: 법조계,” 한국일보, 1997년 6월 9일, 19.

299) Ibid., 19.

300) 김정곤, “한국의 30대 그들은 어디에 서있나: 운동권 출신들” 한국일보, 1997년 5월 19일, 19.

을 대거 영입하였다. 처음 이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운동권을 데려다 무엇에 쓰겠느냐’고 했지만 이들은 조직에서의 경험과 민주적 사고로 신선한 아이디어를 산출해내었다. 기존 조직의 보수성을 깨뜨리기엔 역부족이라며 회사를 떠난 사람도 있지만 사내에서 영어회화 반, 인터넷 동호회 등을 꾸려나가며 활발한 소모임 활동을 통해 직장 안에서 새바람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³⁰¹⁾

또 직업의 정형화 틀을 깨고 새로운 교단의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교사들도 있다. 지난 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교조 구성원의 대다수는 베이비 붐 세대이다. 최병우(崔炳宇·37세) 김지예(金知禮·36세) 부부도 ‘89년 여름대학살’로 불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이 해직될 때 학교를 떠났던 교사들이다. 학생들과 헤어진 이들은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았고 생존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고통도 당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나름의 판단 때문이었다. “누가 시킨 일이라면 그런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견뎌낼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두 옳은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³⁰²⁾ 즉, 그들은 옳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였다.

1994년 복직되어 이들이 돌아온 학교는 옛날의 교실과 학교가 아니었다. 학생도 변하고 교실도 달라졌으나 교육 현실의 병폐는 달라진 것이 없었다. 복직 후 최 교사는 학생들을 위한 공연을 만들고, 꾸준한 상담을 통해 문제 학생들을 선도하는데 열정을 쏟았다. 또 김 교사는 여교사의 출산 휴가와 유가휴직을 위한 법제화에 힘을 쏟았다. 현재는 50여 곳의 학교에 탁아소가 설치됐고 그것들을 일반에게도 개방하고 있다. 그렇다고 교육 현실이 많이 달라지지도 않았다. 입시교육은 계속되고 사교육은 비대해지고 공교육은 위협받고 있다. 또한 교육 개혁안도 어느새 유명무실해지고 말았다. 그러나 “해 볼만한 도전이잖아요. 신나는 학교를 만드는 그 날까지 우린 할 겁니다.”³⁰³⁾ 그들은 말한다.

이와 같이 베이비붐 세대의 정서 속에 자리한 ‘새천년’은 그들이 역사와 시대를 보는 영성이다. 그들은 항상 그들이 경험한 역사적 상황에서 그 주어진 현실을 자신

301) 386세대취재팀, “한국의 주력 386세대: 넥타이는 뺐어도 비판정신은 살아있다,” 조선일보, 1999년 3월 23일, 41.

302) 유병률, “한국의 30대 그들은 어디에 서있나: 고민하는 중견교사,” 한국일보, 1997년 8월 25일, 19.

303) Ibid., 19.

들이 감당해야할 과제로 느끼면서 살았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채감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세상을 바꾼 승리감을 맛보고 그것들을 통해 역사를 보고 현실을 해석하는 틀과 준거를 얻었다. 결국 베이비 부모들은 그 시대가 어떠한 그 시대를 변화시키고 만들어간다. 따라서 한 시대가 마감되고 새롭게 전개될 향후의 세기에서도 여전히 그 특유의 정신성은 살아 움직일 것이다. 그 시대가 음울한 미래 예측과 어려움이 예상되는 새 천년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시대를 변화시키는 활발한 활동가(Activists)들로 살아갈 것이다.

제 2 절 세계화(Globalism)

이러한 시대정신으로 살아가는 베이비 부모들은 그들의 성장 과정을 매스미디어와 함께 자랐다. 또 경제성장의 열매를 먹으며 자라난 그들은 전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세계 경험을 하면서 성장하였다. 그 과정에서 형성된 뼈놓을 수 없는 그들의 영성이 다름 아닌 세계화이다. 이제 한국 사회의 리더십의 중심에 위치하는 이 세대를 이해하는 핵심 코드는 바로 이 세계화의 영성이다.

1. TV와 컴퓨터의 세대

베이비붐 세대는 TV를 보고 성장한 세대이다. 6.25 전쟁 이후 태어난 베이비 부모들은 전후 시대 배고픔으로 얼룩진 어린 시절을 보내야만 했다. 그런 그들에게 거의 유일한 즐거움은 TV를 비롯한 대중매체였다. 이 세대와 당시 사람들은 전쟁 이후 생활에 쪼들리며 달리 휴식이나 오락을 찾을 수 없었고 TV만이 유일한 오락기구이면서 가장 인기 있는 정보의 출처였다. 텔레비전은 그 시대 사람들을 일찍 집으로 끌어모았고, 인기 있는 드라마를 보며 전 국민은 가슴을 조이며 울고 웃었다. 우리나라에 텔레비전 방송이 시작된 것은 1961년 12월 31일부터였고 본격적으로 TV가 보급된 것은 1970년대였다.³⁰⁴⁾ 그 당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은 태어나서 TV를 보며 그것과 함께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04) 서병주, "TV 세대론," http://www.biscoasia.com/newsletter/03_05.htm.

그 후, 흑백텔레비전의 보급률이 거의 80퍼센트 달해 TV가 생활화되던 80년에는 색채 혁명을 불러온 컬러텔레비전이 도입되었다. 흑백 TV가 급속히 퇴조를 보인 반면 컬러 TV는 빨리 보급되어 86년에는 50퍼센트를 넘어섰고 94년에는 1가구 1대가 넘는 보급률을 보였다.³⁰⁵⁾ 결과적으로 컬러 TV 방영이 본격화되면서 80년대와 90년대에 걸쳐 국민들의 의식과 생활 문화에 많은 변화를 몰고 왔다.³⁰⁶⁾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TV 시청시간이 3시간 30분을 넘는 것으로 보면 그 시대에 성장한 세대는 텔레비전 문화시대에 살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싫든간에 베이비 부머들은 텔레비전이 키운 최초의 영상세대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Generation Insight의 창립자인 로스 골드스타인(Ross Goldstein)은 “전 세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 세대만의 공통성이 텔레비전으로부터 기인한다”³⁰⁷⁾고 분석하였다.

그것은 언어 능력이 급격히 발달하는 시기(critical period)를 TV를 비롯한 미디어에 노출되어 살면 사람들은 미디어 환경이 원인이 되어 라이프스타일 뿐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인 가치관마저 변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영상 세대가 흔히 하는 말중에 ‘재미없는 것은 나쁜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보는 행위는 읽는 행위보다 감각적으로 노력이 필요하지 않으면서 재미를 느끼는데 더욱 효과적이다. 이런 패턴에 익숙해지면 재미없는 매체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재미라는 감각적인 기준으로 사물을 보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이 되어 논리, 시비, 선악과 같은 잣대로 사물을 진지하게 판단하는 것에 점점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 결국 재미없는 것은 나쁜 것이 되는데 이것은 미디어가 생활 패턴 뿐 아니라 가치관까지 변화시킨 반증이라 할 수 있다.³⁰⁸⁾

이러한 영상 세대의 가치관은 기존의 것에 대한 싫증과 새로움에 대한 추구로 나타난다. 많은 정보에 무차별로 노출되어 새로운 것을 통해 재미를 경험한 이들은

305) 이에 대해서는 김창남, 대중문화의 이해 (서울: 한울, 1998), 원용진, 대중문화의 패러다임 (서울: 한나래, 1997)를 참조하라.

306) 강상현, “현대사 다시 쓴다: 컬러TV방영,” 한국일보, 1999년 10월 19일, 17.

307) Janet Cawley, “Baby Boomers Leady to Accept Torch,” Chicago Tribune, September 20, 1992, City edition, 18.

308) 광승호, “설득이 통하는 세대 vs 자극이 통하는 세대”, <http://www.lgad.co.kr/webzine/030506/special/edition2.htm>.

과거의 전통과 형식을 파괴하고 새로운 형식과 문화를 만들어 내며 새로운 것을 향해 옛 것을 버리고 떠나는 데도 익숙하다. 또한 TV 시청, 영화보기, 인터넷 등은 누구와 함께 하기보다는 홀로 즐기기엔 적합하기 때문에 영상 세대들은 혼자서도 충분히 재미를 느끼도록 되어 있다. 이런 라이프스타일에 익숙해지면서 가치관에도 변화가 생겨 자기 스스로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개인주의가 보편화되었다.³⁰⁹⁾

또 그들은 문자와 함께 매스 미디어를 통해 지식과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가치 판단을 한다. 문자는 논리구조를 이해해야 하는 반면, 영상은 직관적이고 의사소통이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영상언어에 의한 영상 이미지와 개념에 입각한 인상과 사고를 훈련받은 이 세대는 문자 세대에 비해서 보다 감각적이고 감성적이고 창의적이다.³¹⁰⁾

아울러 베이비붐 세대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컴퓨터를 실용화한 세대이다. 우리나라에 8비트 교육용 컴퓨터가 전자상가에 등장한 1982년을 기점으로 이 세대는 컴퓨터의 진보와 함께 이들의 삶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³¹¹⁾ 그들은 직장에서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알게 된 뒤로부터 가정에서도 컴퓨터와 휴대폰을 사용하였고 자연스럽게 온라인에 몰입하게 되었다. 현재의 20대와 비교하면 뒤진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세대는 이러한 도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부와 기업에 컴퓨터 문화를 정착시킨 주인공들이고, 컴퓨터 시대 더 나아가 인터넷 시대의 선두 주자들이다.³¹²⁾ 그런 의미에서 “컴맹시대를 순식간에 첨단좌표로 이동시킨 혁명가들”, “한국에서 컴퓨터와 제대로 만난 첫 세대”³¹³⁾라는 평가는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니다. 결국 이들은 사회생활과 학교생활을 통해 익숙해진 컴퓨터를 활용하여 향후 본격적으로 진행된 정보화와 국제화의 시대적 흐름을 타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의 가치관은 TV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컴퓨터의 영향 또한 지대하였다. 그들은 시간적·지리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컴퓨터의 네트워킹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다양성과 접촉하며 폭넓은 생각을 소유하였다. 지구촌 한 곳의 이

309) Ibid.

310) 외대진보시대개척단, 신세대론: 그 혼돈과 질서 (서울: 현실문화연구회, 1994), 83.

311) 김용삼, 베이비 붐 세대의 대 폭발·민주화·올림픽·IMF, 43.

312) 386세대취재팀, “한국의 주력 386세대: 시대의 어둠을 넘어...세상의 중심으로,” 조선일보, 1999년 3월 2일, 42.

313) Ibid., 42.

야기는 자연스럽게 세계인들에게 즉각적으로 전해지고 원하는 정보는 언제든지 웹을 통해서 즉시 주거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정보가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거부한다. 그 결과 음악도 골라 듣고 영화나 비디오도 골라보는 자신만의 것을 선택하는(Service on mind) 문화에 익숙하다.³¹⁴⁾ 이 과정에서 이 세대는 끊임없이 보다 나은 사물과 방법들을 찾으려 하고 실제로 다른 세대에 비해 더 혁신적이고 능동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2 다양한 해외 경험

이렇게 TV와 컴퓨터에 익숙해진 베이비 부모들은 유난히 해외 경험도 많이 한 세대이다. 바로 그 이전 세대만 하더라도 일부에 국한된 유학이나 해외 경기 참관이 고작이거나 극소수 부유층 정도나 해외여행을 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과 개방 정책에 힘입어 부모 세대는 다양한 해외 경험을 할 수 있었다. 특히 1989년 1월부터 해외여행에 대한 연령 제한이 철폐되고 관광이나 방문 목적의 사적인 여행에 대해서도 3년 복수 여권이 발급되는 등 제도적으로 해외여행이 조장되었다. 그래서 1989년 1-2월의 20대 젊은이들의 출국이 1988년 같은 기간의 2배가 넘는 3만 3천명이 증가하였다.³¹⁵⁾

베이비 부모들은 전 세대와는 달리 외국을 동경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해외 경험의 내용도 단순한 관광 뿐 아니라 유학이나 각종 연수, 신혼여행, 봉사활동, 특정 목적의 장기 여행 등 그 분야가 실로 다양해졌다. 1988년 6주간 동안 여름방학을 이용해 해외에 다녀온 유언정(柳彦汀·22세·연세대 신문방송과 4년)양은 처음 3주간은 영국 서리 대학에서 어학연수를 했고, 나머지 3주일간은 유럽 문화 연수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녀는 일부 유럽 청년들의 우월 의식에 자존심을 상하기도 했지만 남의 의사를 존중하고 대화와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을 보고 느낀 점이 많았다. 그래서 그녀는 “떠나기 전엔 두려움이 앞섰지만 다녀온 뒤에는 외국여행에 자신감을 얻었다. 가능하면 혼자서 세계 각 국을 돌고 싶다”³¹⁶⁾고 말했다.

314) 한림과학원 편, 21세기를 여는 한국인의 가치관 (서울: 소화출판사, 1997), 332.

315) 한국일보편집부 편, 신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상 (서울: 한국일보사, 1990), 238.

조각을 전공한 김철진(金哲鎭·28세)씨는 1988년 7월부터 배낭을 짊어지고 6개월간에 50여 개국을 돌아다녔다. 그는 '인류의 발생부터 현대까지, 동양에서 서양까지 미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혈혈단신 긴 여행길에 올랐다. 서울에서 출발하여 태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유럽을 거쳐 미국, 일본을 돌아본 김씨는 한번도 비행기를 타지 않았다.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와 �핑크스를 관찰하려고 한 달 여를 머물었고, 로마에서는 물건을 도난당하기도 했지만 여행길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경험이 무척이나 유익했다.³¹⁷⁾ 밤을 지새며 지구 반대편에서 온 젊은이들과 어울려 다른 세계, 다른 경험, 다른 시각을 함께 소유함으로써 자신의 세계가 한층 풍부해질 수 있었다.

또 결혼 적령기에 있는 부모들에게 해외 신흥여행은 매력 있는 인기 품목이다. 제주도로 신흥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비용으로 해외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흥여행으로 대만을 다녀온 맹옥란(孟玉蘭·28세)씨는 대만에 유학중인 동생을 만나고 친척 언니도 해외여행을 적극 권유해 결정하였다. 그곳 여성들의 생기발랄하고 개방적인 태도에 많은 것을 배웠다는 맹씨는 "이번 여행을 통해 식견이 넓어졌고 더욱 좋아지는 지구촌 시대에서 보다 많은 해외 경험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³¹⁸⁾고 말하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해외여행을 적극 권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배우려는 것 뿐 아니라 외국을 돕기 위한 능동적인 분야에서도 해외 경험은 증가하고 있다.³¹⁹⁾ 권소영(權素英·23세·이화여대 의대 본과 3년)양은 1989년 1월 방학 중의 3주간을 네팔에서 현지주민을 위한 의료봉사 활동을 하면서 보냈다. 동료들 10명과 함께 카트만두를 거쳐 아주 오지인 '기리'를 찾아 700여명의 주민을 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지 사정에 어두워 필요한 의약품은 비롯한 준비가 제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곳 주민들이 고마워하는 것을 보고 보람을 느꼈다. 권양은 "주민들이 인심이 좋아 금새 사귄 수 있었고 그곳 사람들의 생활 습관 등 나름대로의 장점을 배울 수 있었다."며 그곳을 찾은 등산객들과 "손짓 발짓으로 대화를 해가며 서로가 한 형제 같은 우애를 나눴다" "네팔을 떠날 때는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³²⁰⁾고 했다.

베이비 부모들에게는 이런 해외여행 뿐 아니라 해외 유학도 누구나 한번쯤 생각

316) Ibid., 238-239.

317) Ibid., 239-240.

318) Ibid., 241.

319) Ibid., 241.

320) Ibid., 241-242.

해 불만큼 보편화되었다. 70년대까지도 선택된 극소수만이 가능했던 유학이 80년대 들어 경제성장과 개방화 추세에 힘입어 문호가 크게 넓어져 그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해외로 유학을 가는 숫자는 정부의 유학 정책에 따라 크게 좌우되었다. 외화낭비를 막는다는 이유로 유학 자격을 대졸자 혹은 대학 졸업 예정자로 엄격히 제한하고 어학 시험을 반드시 합격한 사람들만 유학을 허용하던 1970년대까지만 해도 유학생수는 연간 400-800명 선에 불과했다.³²¹⁾ 그러던 것이 1979년 유학 자격자를 대학에서 전문대 졸업자로, 판·검사를 비롯한 3급 이상 공무원들로 확대하고 시험 면제 범위를 확대하자 유학자가 1980년에는 2400여명으로 증가하였다. 다시 1981년 그 대상자를 고졸자의 석차 상위 20퍼센트와 예·체능 분야는 중학생까지 확대하고 유학 시험을 폐지하여 사실상 유학을 전면 자유화함에 따라 1982년에는 7573명으로 그 수가 급증하였다.

이 세대의 유학의 동기와 목적도 유학이 자유로워지고 그 숫자가 늘어나면서 함께 다양해졌다. 70년대까지만 해도 석·박사학위 취득이나 선진기술을 습득하려고 한 것이 거의 유일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점점 외국생활 경험이나 어학연수 같은 자기개발을 위한 유학이 증가하였다. 해외 유학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IERI 유학원 이성룡(李城龍·38세)씨는 “요즘 젊은이들이 유학을 가려는 동기나 목적은 단순히 학문적 이유만이 아니라 외국생활에 대한 동경, 어학연수 목적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꼭 학위를 취득, 사회적 지위나 좋은 직장을 보장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실력 향상이나 외국 문물의 이해 등 자기 발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 유학을 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³²²⁾고 지적하였다.

이 세대의 유학이 갖는 또 다른 특징은 유학 대상국이 다양해졌다는 것이다. 곧, 미국 위주에서 점차 세계 다른 나라들, 오스트레일리아나 뉴질랜드, 아프리카나 중국, 소련, 동구권 등으로 확대되었다.³²³⁾ 예를 들어, 1988년 한 해 동안 유학을 떠난 8087명 가운데 미국 유학생은 4001명으로 채 50퍼센트가 되지 못하였고 다른 나라들로 그 대상국이 분산되었다. 이것은 과거 60-70년대의 80-90퍼센트가 미국에 편중되어 있던 것과는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 이것은 이 세대가 이념이나 모델의 구미 편중을 벗어

321) 한국일보편집부 편, 신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상 (서울: 한국일보사, 1990), 186.

322) Ibid., 181.

323) Ibid., 183.

나서 국제화 시대에 걸 맞는 개방적인 철학과 안목을 가지게 됐음을 말한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유학 생활 형태도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각종 장학제도가 많아지면서 그 이전과는 같지 않았다. 낯선 외국에서 고독감을 이겨가며 열심히 공부하려면 유학은 여전히 고생스런 일이었지만 예전과 같은 고전적인 접시 닦기 같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대신 큰 어려움 없이 공부에 몰두하거나 웬만하면 주말 관광이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이광규 교수는 “국제화 시대인 오늘날 세계 구석구석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³²⁴⁾고 지적하였다.

3. 올림픽을 치른 자신감

이 베이비 붐 세대가 세계와 접촉하고 대면한 것은 비단 이런 부분에서만이 아니었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성장하면서 산업의 세계화와 함께도 이루어졌다. 1980년대를 들어서면서 한국 산업사에 획기적인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64KD램 반도체와 TDX 전자교환기 개발이 그것이다. 1983년 세계 세 번째로 삼성전자가 64KD램 개발에 성공한 후 10년 만에 256KD램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단일 품목 최초로 수출 1백억 달러와 메모리 분야에서 세계 1위의 시장 점유율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1984년에는 한국을 정보화 국제화하는데 결정적으로 공헌한 TDX 전자교환기가 개발되었다. 전화 한대를 놓으려 해도 몇 년씩 기다려야 할 정도의 당시 통신 상황에서 우리 기술로 만든 전자교환기가 설치되면서 1가구 1대의 전화 시대를 열어 세계화를 앞당기게 되었다.³²⁵⁾

한편 우리의 건설 일꾼들도 그 무렵 세계에서 눈부신 활동을 하고 있었다. 아프리카 북부 사막에 위치한 리비아에 동아건설이 직경 4미터의 취수관을 3천 킬로미터 이상 묻어 한반도의 6배나 되는 불모지를 옥토로 만드는 대 역사를 성공시켰다. 리비아 대수로 공사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단일 공사 중에서 그 규모나 기술면에서 세계 최대규모로 꼽히는 공사였다. 또한 한국의 건설 일꾼들은 말레이시아에 길이가 14킬로미터나 되는 폐낭교와 세계 최대의 항만 공사였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베일 산업항

324) “한국일보 편집부 편, 신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상, 244.

325) 김용삼, 베이비 붐 세대의 대 폭발·민주화·올림픽·IMF, 46-47.

공사를 성공리에 마침으로써 기상천외한 아이디어와 과감성, 정밀시공 능력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³²⁶⁾

당시 정치적인 갈등과 분열의 어려움 속에서도 경제개발 계획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고 연평균 10퍼센트의 고도성장도 계속되었다. 그 시기는 경제적으로 고도 성장기이자 한국 경제의 정점에 이른 시기와 같았다. 지구촌 곳곳에 있는 한국인들의 일터에서는 해가 지지 않았고, 산업 현장에서는 과학 기술에 기초한 신제품들이 계속 개발되었다. 과학자들도 함께 신바람이 났고 그 과정에서 한국 사회는 자신감을 얻어 가고 있었다.

경제적인 자신감은 정치적인 발전에 대한 욕구로 승화되어 민주화의 결실을 구체적으로 낳고 있었다. 1987년 6월 항쟁은 정변이나 쿠데타가 아닌 민주화의 혁명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해 치러진 올림픽은 그 들을 동반 상승시키기에 족하였다. 국민의 힘으로 민주화와 대통령 직선제를 이룩한 그 자신감은 세계인들에게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주려는 시민의식으로 승화되었다. 바덴바덴에서 올림픽 개최지로 서울이 결정되었을 때 한국은 세계와 연결되고 미래를 향해 나가는 기회를 맞이하였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올림픽이 열리자 세계는 전쟁의 폐허를 극복하고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한반도를 볼 수 있었다. 서울 올림픽은 역사야 전쟁과 분단만으로 기억되던 아시아의 작은 반도에서 오랜 대립과 갈등을 넘어 세계 160개국의 선수들이 모임으로써 인종과 문화, 종교의 벽을 넘어서는 진정한 세계화를 이루는 장이었다. 올림픽이 치러지는 동안 세계는 그 완벽한 준비에 놀랐고, 대회 진행을 위한 2만 7천여 자원봉사자들의 열성적인 헌신에 박수를 보냈고, 온 국민의 하나 된 응원과 높은 시민정신에 감탄했다.³²⁷⁾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관계자들도 역사 상 '가장 훌륭한 올림픽'³²⁸⁾이라고 평가하는 가운데 전 세계의 160개국의 선수들이 힘을 다해 기량을 겨루었고 한국은 금메달 12개로 세계 4위에 오

326) Ibid., 47-48.

327) Ibid., 39.

328) 홍순호, "현대사 다시 쓴다: 88 서울 올림픽 개최", 한국일보, 1999년 11월 22일, 23. IOC 위원장 특별 고문, 아디 다가치(70세 · 유고)가 30여명의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작성한 서울 올림픽 평가 보고서는 총 18개 평가 항목 중 경기장, 연습장 운영, 경기결과 통보 체계, 개최식, 시상식, TV 전송, 경기 기구의 안전관리, 한국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 올림픽을 통한 국가 이미지 개선 등 절반이 넘는 9개항에 대해 만점을 주었다.

르는 성과를 거두었다.

더욱 귀중한 것은 그와 같은 성적보다도 벽을 넘어서 우정과 화합으로 세계가 서로 손을 잡은 것이었다.

서울 올림픽은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라는 슬로건대로 동북아의 작은 나라 한국의 참 모습을 세계인의 기억 속에 아로새겨 세계와 함께 번영하는 한국사의 새 장을 연 감격의 지구촌 축제였습니다.³²⁹⁾

식민지와 분단, 참혹한 전쟁과 폐허, 이어지는 가난으로 상징되는 못사는 나라이자 가장 악랄한 독재 국가로 알려진 한국에서 역대 그 어떤 올림픽보다 훌륭한 대회가 치러지는 모습이 TV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진 것이다.

그 결과, 서울 올림픽은 1960년대부터 추진한 경제개발과 민주화를 위한 국민들의 노력이 함께 결실을 맺은 동시에 그것은 곧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세계의 다른 곳에 영향을 미쳤다. 서울 올림픽은 이후에 개최된 올림픽 운동에 영향을 끼친 것은 물론이고,³³⁰⁾ 1년 후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지던 그 현장에서 불러졌던 노래가 바로 서울 올림픽 주제가였던 '손에 손잡고'였다. 또한 서울 올림픽이 그 뒤 진행된 사회주의권의 연쇄적인 붕괴에 기여했다는 것이 학계의 공통된 견해이다.³³¹⁾ 그래서 서울 올림픽이 끝난 후 영국의 더 타임즈(The Times)는 다음과 같은 논평을 실었다. "세계 올림픽 운동은 한국인에게 엄청난 빛을 지게 되었다. 한국인들은 독일인의 조직력, 동양의 예절과 문화, 미국의 자본주의적 감각을 지녔다. 한국인의 행동 뒤에 숨겨진 철학은 유럽인들을 부끄럽게 했다."³³²⁾

이렇게 훌륭하게 올림픽을 치르고 난 베이비 붐 세대는 한국인의 자긍심³³³⁾과 함께 세계화의 실상을 여실히 인식하게 되었다. 어려서부터 보아온 TV를 통해 세계

329) 김용삼, 베이비붐 세대의 대폭발, 민주화, 올림픽, IMF, 41.

330) 홍순호, "현대사 다시 쓴다: 88 서울 올림픽 개최," 23. "92년 하계 올림픽을 유치했던 스페인은 합동 근무를 통해 서울의 안전을 배웠으며, 92년 동계 올림픽을 열었던 프랑스의 알베르빌과 60개국 영연방 대회를 개최한 뉴질랜드도 서울 올림픽의 경험을 배웠다."

331) 김용삼, 베이비붐 세대의 대폭발, 민주화, 올림픽, IMF, 41.

332) Ibid., 41에서 재인용.

333) 홍순호, "현대사 다시 쓴다: 88서울 올림픽 개최," 23. 한국 갤럽 조사 연구소가 대회 폐막 직후 서울 올림픽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95.4퍼센트가 '올림픽을 잘 치렀다.' 91.3퍼센트가 '개회식이 잘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가 국경 없이 동시에 올림픽을 즐기고, 정보산업의 총아로 등장한 인터넷을 통해 세계의 정보가 교환되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한 이 세대는 자신들의 생활 속에 이미 다가온 세계화를 실감하였다. 올림픽 이후 전개된 동구권의 몰락을 지켜보면서 이들은 이념의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했던 그들의 최대 관심사를 이제 국경 없는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로 변화시켜야 했다. 즉 상실한 이념의 자리에는 어느덧 세계화라는 생존철학이 비집고 든 것이다.

올림픽을 전후해 불기 시작한 개방의 파고는 베이비 부모들에게 전 방위 경쟁 이데올로기로의 무장을 요구했다. 세계와 함께 호흡하며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싸워나가야 하는 적자생존의 경쟁에서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실력밖에 없었다. 현대그룹 문화실에 근무하는 하곤철(河坤哲·30세)씨는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에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길은 실력밖에 없다."며 "세계화는 곧 실력이다"³³⁴⁾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근무가 끝나는 6시부터 2시간 동안 회사에서 실시하는 컴퓨터 교육을 받고 있다. 삼성인력개발원 관계자도 "승진 심사에서 인사고과 비중이 가장 크지만 사내 연수에서의 외국어 점수나 토익 점수도 중요한 평가 요소"³³⁵⁾라며 당시의 직장 분위기를 설명했다.

4 삶의 질을 찾아서

실제로 지구 저편의 각종 정보를 시차 없이 주고받는 베이비 부모들은 이미 세계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세계를 배우지 않고서는 살아남지 못한다. 이제 이들은 뛰어야 할 곳이 좁은 국내 무대가 아니고, 겨뤄야 할 사람들도 세계 속에 있다는 피할 수 없는 현실 인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우물 안 개구리의 굴레를 벗고 세계로 뻗어 가는 가능성을 찾아 나선다. 그래서 외국 유학을 거쳐 다국적 기업에 근무하는 홍주현(洪周鉉, 39세)씨는 국제화를 지향하는 세대는 '얼라이브(ALIVE)족'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즉 "적극적이고(Active) 시야가 넓고(Large) 정보에 밝으며(Informative) 활기차고(Vivid) 그래서 꼭 있어야 할(Essential) 사람"³³⁶⁾이라는 뜻이다.

334) 최윤필, "한국의 30대 그들은 어디에 서있나: 만학열풍," 15.

335) Ibid., 15.

336) 김순덕, "신세대: 국제화," 동아일보, 1993년 11월 14일, 9.

이렇게 세계로 열려 있는 창이었던 미디어의 세례를 받으며 성장하였고, 상대적으로 많은 해외 경험이 있는 베이비붐 세대에게 외국 문물에 대한 거부감은 실제적이다. 그들은 별다른 거리낌 없이 외제 상품의 품질이 좋다면 국산보다 외제를 사용한다. 그들에게 먹고 쓰고 즐기는 문화나 기호에 있어 국경은 이미 의미가 없다. 이 세대에게 국경이란 크게 중요하지 않다. TV, 비디오, 인터넷 등 영상 매체와 정보 통신기기의 발달로 지구촌의 시간과 공간의 차이는 점점 좁혀지고 있고 이들은 이것을 즐기고 있는 것이다.

국경이나 인종, 문화에 대한 편견이 사라진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베이비 부머들은 무엇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자유롭다. 이 세대는 “아무리 뿌리 깊은 사회 통념이나 인습이라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순응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세대이다. 자신들 나름의 합리성에 맞아야 따를 뿐 그렇지 않으면 가볍게 따돌리고 만다.”³³⁷⁾ 이들은 자신들의 취향에 맞는 것이면 거리낌 없이 선택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배운 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들이 보면서 자란 미디어가 제공한 세계는 선택의 가능성을 항상 열어 놓았다. 예를 들어 TV 광고에 나오는 배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은 그 선택 폭이 31가지에 이르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 때 선택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선택에 길들여진 부머 세대는 그 선택에 있어서 잘 훈련된 전문가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구와 필요를 따라 찾아다니다가 만족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선택한다. 특히 ‘자기중심적인 세대(Me Generation)’인 부머들은 자신의 욕구가 만족되지 않으면 만족할 때까지 찾아다니는 특성이 있다.³³⁸⁾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가치관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충성심이나 헌신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특성을 가진 이들이 국경 없는 국제화의 환경과 만날 때 세계는 선택의 가능성을 부여하는 또 다른 기회가 된다.

요즈음 이민 설명회가 열리는 곳이면 예외 없이 사람들로 초만원을 이루고 그 참석자들의 대부분은 부머 세대들이다.³³⁹⁾ 30-40대의 부머 세대 중 이민을 한번쯤 생

337) Ibid., 9.

338) Craig K. Miller, *Baby Boomer Spirituality*, 123.

339) 김상우, “한국의 30대 그들은 어디에 서있나: 이민 또 하나의 선택”, 한국일보, 1997년 3월 6일, 16.

각해 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 물론 현재의 이민 분위기는 명예퇴직이나 정리 해고 등 우리 사회에 불어 닥친 실업의 한파나 불안감과 무관하지 않다. 현대이주공사의 캐나다 이민 담당자 윤석현(尹錫賢·39세)씨는 “이민 업계의 광고 공세는 요즘 사회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2월 증순 캐나다 이민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지난해에 비해 참석자가 20-30퍼센트 늘어났다”³⁴⁰⁾고 말했다.

도대체 이 세대의 사람들은 왜 이민을 가려고 하는가. 그들의 이민 이유는 다른 연령대의 이민의 목적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단지 이 세대 원들은 앞의 세대보다 더 젊기 때문에 이민을 또 하나의 기회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을 뿐이다. 이들 세대가 그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창업 대열에 나섰던 것처럼 이민 또한 현재의 삶보다 나은 또 다른 선택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민은 그들에게 도피가 아니라 도전이다. 예를 들어 이민의 성격으로 보면 80년대 초반까지의 이민은 경제적인 목적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서울 올림픽을 지나면서 ‘잘 살아 보기 위해’ 이민을 떠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찾아 이민을 선택한다. 제일해외이주공사의 정진호(鄭振豪·36세)실장도 이들의 이민은 “경제적인 증산층보다 정신적인 증산층이 주류를 이룬다. 고학력 직장인들이 보다 나은 자녀 교육 환경과 생활환경을 찾아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³⁴¹⁾이라고 말했다.

특히 베이비 부머들은 가정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자녀교육을 삶의 질을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사교육비의 엄청난 부담과 공교육이 무너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실망한 부머 세대가 낮은 수준의 교육을 피해 이민을 선택하거나 자녀를 외국으로 유학 보내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 불기 시작한 세계화와 영어교육의 시류에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진 결과이기도 하다.³⁴²⁾

캐나다의 사회학자 마셜 맥루언(Marshall McLuhan)은 1967년에 이미 도래할 새 세기가 국제화(Globalization), 세계화의 시대라고 예견하고 지구촌(Global Village)이라

340) Ibid., 16.

341) Ibid., 16.

342) 고건, “인터넷·한류는 베이비 붐 영향” 주간조선, 2003년 10월 23일, 130. 이것을 한국의 상황과 미국의 상황이 맞아떨어진 측면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즉 미국의 베이비 붐 세대가 지나가 버리면서 과거 풍부하게 투자해 놓은 초·중·고등학교 시설이 남아도는 상황이 되어, 외국으로부터 유학생을 많이 받아들이면서 한국의 조기 유학 붐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이다.

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TV라는 '거울'을 통해서 사람들은 실시간에 세계 구석구석의 소식을 전해 들으며 지구촌이 하나임을 실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시대에는 지구촌 곳곳의 이색문화를 접촉하고 여러 가지 가치관의 충돌을 이기는 관용과 내성이 필요한데 이것은 TV와 같은 미디어의 경험을 배제하고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³⁴³⁾ 결국 세계화, 국제화는 TV와 같은 매체가 그 중심에 서 있을 때 가능한 일이고 아울러 그런 문화 경험에 적응된 사람들에 의해 주도된다는 말이다.

이상에서 살핀 것과 같이 베이비 붐 세대는 세계화에 적합하게 준비되었고 세계화의 환경에 쉽게 노출되어 생활해 왔다. 또 어떤 부분에서 이들은 그 세계화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인 동시에 그 세계화를 새로운 삶의 기회와 도전으로 살아가고 있다. 분명 이들의 내면에서 견져 올릴 수 있는 영성의 하나는 세계화이다. 그런 영성을 소유한 이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우리만이 아닌 세계적인 가치나 믿음, 문화에 대해 개방적이다. 그래서 그들이 소유한 세계화의 영성은 우리 앞에 새롭게 펼쳐지는 정보화, 국제화의 시대를 여는 미래의 희망이다.

제 3 절 통전성(Wholeness)

나름대로 이렇게 세계화의 주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베이비 부머들이지만 이들 세대의 영적 뿌리는 다름 아닌 상실과 외로움, 단절이었다. 그런 영성 위에서 자라난 이 세대의 정서적 욕구는 무엇보다 깨어지거나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로 연결된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온전하고 하나로 연결된 통전성을 살피는 일이야말로 중년 이후 그들의 삶 뿐 아니라 세계에 대한 온전하고 통합된 의미를 제공하고 설명하는 종교에 대해 부머 세대가 취할 태도를 아는 데도 필수적이다.

1. 중년의 문제들

이제 베이비붐 세대는 젊지도 않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철없는 나이도 아니다.

343) 자세한 것은 Marshall McLuhan, 미디어의 이해, 김성기, 이한우 역 (서울: 민음사, 2002)을 참조하라.

이들은 서서히 은퇴를 생각해야할 중년에 접어들었다. 한 사람의 생애에 있어 이 시기는 인생의 황금기로서 수입도 최고조에 이르러 생활도 안정되고, 삶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가르칠 나이이다. 이들은 인생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서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도전 앞에 직면하고 있다. 이 새로운 도전은 인생 과정에서 피할 수 없게 발생하는 외부적 사건에서도 비롯될 뿐 아니라 그 외부의 사건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사람의 내부적 사고방식에서도 비롯된다. 분명 이 새로운 도전은 기본적으로 제한된 시간, 생명, 힘 등과 같은 제한성이라는 특징들과 관련된다.

우선, 중년에 되어 하게 되는 중요한 경험으로는 육체적인 변화를 빼놓을 수 없다.³⁴⁴⁾ 이제는 육체가 쉽게 피곤하고 지치며 회복되는 정도도 느리고 완전치 않다. 각종 성인병에 대한 위협이 주변의 경험을 통해서 혹은 자신에게 엄습함으로써 점점 심각하게 자신의 문제가 된다. 이러한 육체적 변화는 단순히 질병의 차원 뿐 만이 아니라 외모의 변화에서도 현저하게 느낄 수 있다. 머리가 점점 희어지고 대머리가 나타난다. 피부는 그 탄력을 잃어서 주름살이 많아지며 동시에 중년에 나타나는 체중 증가 현상이 현저해진다. 기억력은 예전과 비교하여 현저히 떨어지고 시력에도 변화가 있어 거리 조절과 사물 식별에 어려움을 느낀다. 또 이런 여러 육체적 변화 현상들이 누적되어 삶에 있어 필수적인 정보 수집 능력을 저하시킴으로써 바로 사회적 대처 능력의 감소³⁴⁵⁾로 연결되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다른 중년의 변화로는 시간에 관한 개념이 달라지는 것이다.³⁴⁶⁾ 10세의 어린이에게 일년은 전 생애의 10분의 1인 반면 40의 사람에게 일년은 전 생애의 40분의 1이 된다. 삶을 오래 살 면 살수록 그 일년이라는 기간은 전체 인생 경험의 관점에서 볼 때 점점 짧아진다. 즉, 절대적인 시간 개념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느끼고 실감하는 상대적인 시간에 있어서는 그 단위 시간의 무게가 달라진다. 그래서 그 시간이 빨리 지나 갈수록 그 시간에 대한 가치와 무게는 달라져서 중년의 사람들은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다는 생각을 아주 날카롭게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심정을 한 중년의 여성 부머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344) Douglas W. Monkemeier, "Nurturing the Mid-Life Spirituality of Baby Boomers" (D. Min. Dissertatio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1993), 31.

345) Herant Katchadourian, Fifty Midlife in Perspective (New York: W. H. Freeman and Co., 1987), 26-51.

346) Douglas W. Monkemeier, "Nurturing the Mid-Life Spirituality of Baby Boomers," 29.

문득 그 세월 속에 한 점 먼지로 떠도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그 인생의 덧없음이여... 이 남루한 나의 40대, 고단한 나의 불혹의 계단이어...우리가 산다는 건, 살아가고 있다는 건 시간으로의 함몰인 것을. 347)

이렇게 중년이 되면, 자신의 나이를 생각할 때에도 출생 이후 얼마가 지났다 (time-since-birth)는 관점보다는 이제 남아 있는 시간(time-left-to-live)이 얼마라는 식으로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된다. 348) 이러한 시간 개념의 변화는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자신의 인생 계획을 돌아보게 하고 그것을 빨리 달성해야 한다는 절박감에 빠져들게 한다. 이러한 경험들은 중년으로 하여금 젊은 세대와 자신들을 예리하게 비교하여 더 이상 자신들이 젊은 세대가 아니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한다.

중년을 거론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문제는 죽음에 대한 직면 현상이다. 349) 그 시기에 심각하게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내면적 사고는 육체적 변화와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죽음을 목도하면서 심화된다. 보통 건강한 육체를 소유한 젊은 세대는 언젠가 그 죽음이 자기에게 닥친다는 생각을 그렇게 심각하게 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육체적 통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예기치 않은 질병들이 다가와 자신을 괴롭힐 때 중년의 사람들은 그 죽음이 남의 문제가 아님을 실감한다.

게다가 연령대가 중년에 접어들면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가족과 친구의 죽음을 비롯해서 여러 죽음을 경험한다. 특히 자기에게 닥치는 부모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이라는 실체가 현실임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왜냐하면 중년들은 그 앞선 세대의 죽음을 보면서 자기들이 더 이상 아들 혹은 딸의 지위에 숨을 수 없고, 진정한 어른이 된 것을 받아들인다. 동시에 이제는 그 세대를 이어 자신들이 자동적으로 그 뒤를 따라가야 한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것이다. 350)

이렇게 신체적인 변화를 느낄 시기에는 자연스럽게 자기의 생에 관해서 돌아보

347) 이만동 외, 그들은 우리를 475라 부른다, 118.

348) Bernice L. Neugarten, "The Awareness of Middle Age," Middle Age and Aging, ed. Bernice L. Neugarte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8), 93-98.

349) Douglas W. Monkemeier, "Nurturing the Mid-Life Spirituality of Baby Boomers," 28-29.

350) Herbert Anderson, "The Death of a Parent: It's Impact on Middle-Aged Sons and Daughters," Pastoral Psychology 28 (Spring 1980): 151-167.

게 된다. 우리는 대체로 우리의 직업, 결혼, 가족과 그 밖의 인생의 여러 측면에 대해 꿈을 갖고 살게 마련이고, 그 꿈들의 실현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붓는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힘이 쇠하기까지는 너무나 분주하여 그 꿈에 대하여 평가해볼 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중년이 되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돌아보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 경우에 어떤 사람은 중년에 이르러서 자신이 젊은 날 목표했던 그 꿈들이 대부분 실현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평가에 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느낌은 공허와 실망감이기 일쑤이다. 왜냐하면 그 중요한 인생 목표를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오는 동안 가족이나 친구, 결혼 관계 같은 것들에 소홀히 대했던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한편, 다른 사람들은 중년에 이르러 처음에 의도했던 목표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에 당황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많은 부분에서 성공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적인 실패를 전체적인 실패로 몰아가기 일쑤이다.³⁵¹⁾ 그래서 그 낭패감은 그런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남은 생을 그 달성되지 않은 목표를 만회하기 위해 정신없이 살도록 몰아가기도 한다. 그것이 어떤 경우에 해당되든 중년의 시기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 평가해 보는 시기인 것만은 확실하다.³⁵²⁾

2 생활의 재발견

이렇게 자신의 인생에 대해 평가해 보는 작업이 주로 자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작업인 만큼 중년에 접어든 부머들은 내면화의 과정을 밟게 된다. 물론 이 내부 지향적인 경향은 위의 경우에서 보듯 자기의 꿈에 대한 평가의 필요에서 기인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좀더 진정한 관점을 발전시키려는 욕구에 의해서 발생한다.³⁵³⁾ 이것은 육체적 힘과 활력이 현저히 감소하는 과정에서 좀더 회상적인 현상의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중년의 사람들은 이제 남들의 기대에 따라 삶을 산다는 것이 본래적인 것도 아니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이해를 가진다. 그래서

351) Daniel J. Levinson, The Seasons of a Man's Life (New York: Ballantine Books, 1979), 248.

352) 장학만, "40대의 도전: 40대 인생들이여 될 준비가 되었는가?" 주간한국, 2004년 1월 22일, 18-24.

353) Douglas W. Monkemeier, "Nurturing the Mid-Life Spirituality of Baby Boomers," 34.

중년의 과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질문하는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전체 세계 속에서 나의 고유한 자리는 어디인가?”³⁵⁴⁾

그런 인식에 근거하여 중년의 베이비 부머들은 별개로 따로 떨어져 있는 의미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통합하려는 욕구를 느낀다. 그동안 추구하던 단순히 돈벌고 집을 사고 자녀들을 키운다는 의미를 넘어 왜 그 일을 하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를 질문한다. 즉 생활의 모든 부분에 연결되어 그들에게 하나의 총체적인 의미와 행복감을 가져다주는 것을 추구한다.³⁵⁵⁾ 그런 탐색과 반성의 결과, 자연스럽게 젊은 시절에는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사건이나 사물들도 새롭게 정의하고 의미 규정도 새롭게 한다. 또한 예전에는 당연하고 평범하게 느껴지던 관계도 다시 돌아보게 되고 새롭게 그 의미를 부여한다.

그래서 중년에 접어든 베이비 부머들은 다시 가족과 가정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해 가고 있다. 서울의 한 건설회사에 다닌 지가 7년째인 최모(당시 36세·현재 42세)는 일요일에 제대로 쉬어본 적이 거의 없다. 그는 평사원 때부터 휴일은 가족들과 함께 보낸다는 원칙을 세워놓았다. 가족들과 함께 서울 근교나 가까운 곳에 나들이도 가고 주말이면 외식도 하면서 오붓한 시간을 보낸 적도 있다. 그러나 팀장으로 승진하면서 늘어난 업무와 부담 때문에 일요일에도 거의 빠짐없이 회사에 출근을 하고 있다. 게다가 시간이 날 때면 고향집에 내려가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보기도 해야 한다. 때문에 가족과 함께 휴일을 제대로 보낸 기억이 없어 아내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³⁵⁶⁾

베이비 부머들이야말로 경제개발의 풍요를 맛보면서 성장한 세대이기 때문에 휴식과 여가에 눈뜰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마음만큼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생활이 되지 못했다. 그들은 늘 일에 쫓기고 사회적 성취를 향해 달려오느라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희생했다. 특히 맞벌이에 내몰렸던 부머들은 예외 없이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서 오는 자책감과 부채의식(負債意識)을 얼마간 가지고 살아간다.³⁵⁷⁾ 그래서 이와 같은 자책에 대한 보상심리가 때로 지

354) Ibid., 34.

355) Craig K. Miller, *Baby Boomer Spirituality*, 139.

356) 남경욱, “한국의 30대 그들은 어디에 서있나: 여가 없는 여가생활,” 15.

357) Ibid., 15.

나친 교육열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이들은 기본적으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가족 위주의 분위기는 핵가족화의 추세에다 일보다 가정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덧붙여 베이비 부모들의 이런 반성의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 이들은 자신들의 삶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 다시 묻고 있으며 그것에 대한 평가를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일기획이 1996년 남녀 6000명을 대상으로 전국 소비자 조사를 한 것에 따르면 30대의 50.4퍼센트, 40대의 42.7퍼센트가 '수입을 위해 일을 더하기보다는 여가 시간을 갖고 싶다'고 응답함으로써 이들의 현재의 자화상을 함축적으로 보여주었다.³⁵⁸⁾

이런 경향과 맞물려 요즘 서점 가에는 '느리게...' 돌풍이 불고 있다.³⁵⁹⁾ 이 돌풍은 프랑스의 철학자이며 인류학자인 피에르 상소(Pierre Sansot)가 쓴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책³⁶⁰⁾이 발간되면서 촉발되었다. 바로 '느리게' 류의 효시격인 이 책이 짧은 시일 안에 10여만 부가 팔려 나가자 비슷한 책들이 연이어 출간되었고 그것들 역시 꾸준한 판매고를 기록하고 있다.³⁶¹⁾ 이런 '느리게...' 류의 성공은 책을 낸 출판사들조차 예상치 못했던 결과였다. 출판사 동문선의 신성대 사장은 "프랑스 비소설, 그것도 철학 책이 10만 권이나 팔려 나가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라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현대 사상의 흐름을 소개하는 출판물들은 500권 정도가 소화되고 나머지는 창고에 쌓이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는 서점가에 배포된 지 두 달 만에 10만 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아직도 그 기세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런 현상은 이 책이 스테디셀러가 될 준비를 갖춘 것으로 보이며,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지쳤나 보다"라는 분석을 낳고 있다. 출판사에 의하면, 이런 책에 대해 "책 잘 봤다"고 출판사로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들은 40, 50대 중·장년층이 압도적으로 많다.³⁶²⁾

358) Ibid., 15.

359) 남도영,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 국민일보, 2000년 9월 25일, 23.

360) Pierre Sansot,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 김주경 역 (서울: 동문선, 2001).

361) 그런 주제의 책들로는 윤중호, 느리게 사는 사람들 (서울: 문학동네, 2000), Ernie J. Zelinski, 느리게 사는 즐거움, 문신연 역 (서울: 물푸레, 2000), 한수산, 단순하게 조금 느리게 (서울: 해냄, 2000) 등 수십 종에 이른다.

이것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이 책들의 주요 주장이 '변화를 거부하고 느리게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빨리빨리 살면서 놓쳤던 삶의 의미, 인생의 목표, 세계와 나 등의 조금 거창한 주제들을 사색하고,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것"³⁶³⁾을 권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베이비 부모들은 지금 젊은 날 물질적인 성취를 쫓았으나 그것을 얻지 못한 삶에 지쳐 자기를 돌아보며 영속하는 단순한 가치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³⁶⁴⁾ 즉 자기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물으며, 빠르고 번잡한 현대 생활의 배후에 있는 의미를 찾고 있다.³⁶⁵⁾ 이들은 개별적으로 나누어진 욕구들과 그 결과들에 대한 반성을 통해 개별적인 것보다는 하나로 통합된 온전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는 대로, 베이비붐 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아주 높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성장하였다.³⁶⁶⁾ 미국의 부모들 뿐 아니라 한국의 부모들도 그들에게 많은 가능성과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교육도 받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성장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부모들은 이 세상을 다른 세계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낙관적인 생각을 하며 자랐다. 설령 정치나 교육이나 종교나 도덕성 같은 큰 것들을 바꾸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자기 자신의 삶만큼은 만끽하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또 그들의 매일 매일의 생활이 과거보다는 점점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며 살았다.

3. 직접적인 의미 체험

그러나 성년을 지나 중년에 접어들면서 그 예상과 희망이 현실적으로 어긋나기 시작하였다. 다른 세대에 비해 특별히 높은 출생률을 기록했던 세대였던 만큼 그들은

362) 남도영,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 국민일보, 2000년 9월 25일, 23.

363) Ibid., 23.

364) Janis Castro, "The Simple Life," Time, April 8, 1991, 58.

365) 서점에서는 2001년 말부터 40대 이상 중·장년층 독자를 위한 책들이 선전하고 있다. 여성학자가 써서 출판한 박혜란, 나이듦에 대하여 (서울: 웅진닷컴, 2001)는 단숨에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올랐다. 2002년 4월에 나온 소노 아야코, 중년이후, 오경순 역 (서울: 리수, 2002)도 교보문고 비소설 분야 20위 권 안에 들며 40대 이상은 구매력이 없다는 출판계의 통설을 잇달아 깨뜨리고 있다. <http://www.cbh.com.ne.kr/life-23.htm>

366) Ross Goldstein, Fortysomething: Claiming the Power and the Passion of your Midlife Years (Los Angeles: Jeremy P. Tarcher, Inc., 1990), 11.

치열한 경쟁을 통과하여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³⁶⁷⁾ 이러한 현실 앞에서 부모 세대로부터 특별한 관심을 받으면서 성장한 그들로서는 정체성에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다. 성장 과정에서 자신들이 관심의 중심, 세상의 중심에 서 있다고 생각해 왔던 그들로서는 그 높은 기대와 상반되는 현실 앞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부모들은 그들의 정체성과 부합하면서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의미를 찾고 있는 것이다.

이들 부모 세대는 중년에 접어들기 이전부터 정열적으로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하여 우리 사회를 성숙한 사회로 만드는데 기여하였다. '86 아세안 게임과 '88 올림픽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 사이에 인식이 크게 높아진 자원 봉사는 베이비 부모 세대의 성장과 더불어 성장하였다. 아시안 게임 자원봉사자 1만 6330여명 가운데 35세 이하가 95퍼센트였고, 서울 올림픽 때에는 2만 7221명 중 79퍼센트가 30세 이하였다. 또 1987년과 1988년 양대 선거에서 자원 봉사자로 크게 공헌한 것이 다름 아닌 이 베이비 붐 세대였다.³⁶⁸⁾

이들에게 익숙한 사회 변혁을 추구하는 학생 운동 역시 물질적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자기희생을 통한 사회 참여라는 점에서 자원 봉사의 한 형태이고, 야학 활동이나 농촌활동, 빈민 활동들도 넓은 의미에서 자원 봉사에 포함된다. 이들 세대의 자원 봉사 활동은 그밖에도 다양하다. 장애자를 위한 봉사, 불우 이웃 돕기, 청소년 봉사, 노인들을 위한 세탁이나 바느질, 청소, 조리 등과 환자 간병은 물론 각종 행사 안내, 수화 통역, 육아 지도, 행정관서의 사무 보조를 비롯해 다방면에 걸쳐 분포한다.³⁶⁹⁾

이렇게 봉사활동 분야만 넓은 것이 아니라 이들의 참여 열성 또한 다른 세대에 비해 높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1988년 전국 사회복지 시설 중 단체, 기관 250 군대를 표본 조사한 결과, 활동 중인 봉사자 1776명 중 당시 부모 세대들인 20대가 전체의 55퍼센트를 차지하였다. 1984년 개설된 여성개발원의 '자원활동인력은행'에 등록된 숫자가 3000명 내외인데, 30세 이하의 부모 세대들이 33퍼센트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 분야의 책임 연구원인 전숙희(全淑熙·여·39세)씨는 "젊은 층은 학교에 다니거나 직장 때문에 시간 내기가 주부들보다 어려운데 열의가 높아

367) Paul Light, *The Baby Boomers*, 73.

368) 한국일보편집부편, "젊은 이웃들", 신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하, 49-50.

369) Ibid., 50.

참여 비율이 높다”³⁷⁰⁾고 했다.

이 세대가 자원 봉사를 하는 동기도 외부적인 보상이 아니라 자기 안으로부터 기인한다. 3년 동안 봉사활동을 해온 박해연(朴海衍·25세·회사원)양은 “나의 생명력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기여하고 싶어서 봉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³⁷¹⁾고 말한다. 7년 동안 사랑의 전화 상담을 해오고 있는 구혜정(具惠貞·29세·여)씨는 “내가 노력과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누군가가 보다 밝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록 목소리밖에 들을 수 없는 대상을 향해서지만 열심히 활동 한다”³⁷²⁾고 했다. 서울시교육연구원의 상담 자원 봉사자인 권미주(權美主·24세·한양대 국문과 졸)양도 “사회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려는 운동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개별적 사례를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사회발전에 필요하다. 내가 받은 교육을 사장시키지 않고 봉사 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기뻐다.”³⁷³⁾고 했다.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는 자원 봉사자들의 활동 목적이 모두 ‘사람을 바꾸는 것(to change human beings)’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라고 했다.³⁷⁴⁾ 모든 자원 봉사자들은 각 분야에서 직접적인 봉사를 통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에 동참한다. 일반적으로 정부와 같은 공적 기관들은 그 크기나 복잡성으로 인해 일반인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자원봉사 활동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개인이 직접 결정하고, 책임을 지고, 직접 영향을 끼치는 개인적인 성취를 이룰 수 있다. 일반적인 정치의 풍토에서는 그 개인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크게 성공하고, 많이 성취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투표하고 세금을 내는 것에 국한된다. 그저 단순히 반응하고 수동적이 될 뿐 자원 봉사자처럼 능동적으로 자기를 실현할 수 없다. 이러한 직접적이고 능동적인 자기실현이야말로 자원봉사가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공헌이다.³⁷⁵⁾

이것과 관련하여 자원 봉사의 또 다른 중요성은 사람들을 서로 연결하고 결합시

370) Ibid., 51.

371) Ibid., 52.

372) Ibid., 53.

373) Ibid., 53.

374) Peter Drucker, The New Realities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89), 198.

375) Ibid., 205.

킨다는 점이다. 전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 예컨대, 학생과 선생, 가정 주부와 사업가, 노동자와 지식인, 가난한 자와 부자, 각기 다른 인종들을 하나의 동기로 연결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 공동체를 하나로 결합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 (giving to other)'는 의미 있는 일로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한다.

이렇게 중년을 맞이하고 있는 베이비 부머들은 도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산도 소유하고 있다. 이 세대는 성장과정에서 급격한 변화와 함께 자라왔기 때문에 그 변화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인다. 텔레비전과 컴퓨터 혁명을 자신들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엄청나게 변화하는 사회와 그것에 수반되는 가치관의 변화를 적응하며 살아 왔다. 그들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버튼의 세계와 접촉하게 되었고, 채널을 바꾸면서 무엇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이 과정에서 그 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고를 하게 됨으로써 변화를 통제하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³⁷⁶⁾ 따라서 이들의 갖고 있는 귀중한 자산인 높은 적응성은 중년 이후 그들의 나머지 인생에서 전개되는 기회들을 잘 적응하도록 준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4 영성의 추구

그들은 성장 과정의 독특한 역사 사회적 경험들을 통해서 상실감, 단절감, 외로움 같은 영성을 소유하였다. 중년에 접어들어 육체적인 변화와 함께 죽음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에 도달하였고, 그 인식은 자연스럽게 자기 생에 대한 성찰과 재평가의 기회를 가지게 했다. 지금 베이비 부머들은 그들 세대만의 중년 병을 앓고 있다고 표현해야 옳을 것이다. 즉 부모와 사회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자란 그들이 중년에 접어들면서 경험해야 했던 현실에 대한 실망은 자기에 대한 신뢰와 내면성으로의 지향을 낳게 하였다.

그러나 베이비 부머들은 그 내면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의미 발견과 문제 해결의 가능성에 대하여 다시 회의하는 동시에 그 한계를 서서히 인식하고 있다. 자기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응답이 궁극적인 해결이 될 수 없음을 깨달을 나이

376) Leith Anderson, Dying for Change (Minneapolis: Bethany House Publishers, 1990), 90.

가 되었다. 그래서 자신과의 관계 이외에 다른 차원의 외부와의 관계가 갖다 줄 수 있는 유용성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자기 인생의 목표에 대한 성찰 과정에서 뿐 아니라 이제 그들이 부모가 되어 키워야 할 자녀들을 보면서 더욱 심각하게 도전 받고 있다.³⁷⁷⁾ 그들 세대는 그렇게 살아 왔다 하더라도 이제 자녀들의 성장과 함께 그들에게 말해줄 세상을 사는 원리와 옳은 방법에 대하여 숙고해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그래서 자기보다 우월하고 초월적인 실재에 관하여 눈을 돌리고, 그 초월자를 말하는 종교에 대하여 관심 갖기 시작한다. 그들에게 이 종교라는 것이 과거에도 있었고, 한번쯤은 생각해 보았음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필요성이 절박해진 것이다. 곧 그 종교의 가르침이 자신의 삶의 원리로서뿐 아니라 자녀들의 삶의 원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서도 의미가 커진 것이다.³⁷⁸⁾

이들과 비교하여 전 세대의 경우에는 중년의 전환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 가지의 지원 체제나 그룹 같은 것들의 도움을 받아 왔다. 예컨대 가족, 이웃, 종교 단체, 사회 기관, 심지어 국가 기관과의 일정한 관련 속에서 중년의 문제와 전환 시기를 적응하고 해결해 왔다. 그러나 베이비 부모들은 그러한 공적 기관들과 전 세대와의 정서적 단절 속에서 성장하고 사고해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성의 사회와 제도에 대한 불신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한 경향 덕분에 성장 과정에서는 비교적 그러한 것들의 통제와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웠던 반면, 중년이 된 이 시점에서는 반대로 그런 것들이 베풀어 줄 수 있는 혜택도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전 세대와 그 제도적인 것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해왔던 자연스런 귀결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전 세대와 제도들에 대한 불신 때문에 결국은 자기 자신을 크게 신뢰하는 자기중심적인 현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자기를 믿는 것이 부모들에게 중년의 폭풍을 막아내는데 가장 확실한 피난처이기도 하지만 역시 한계는 있다.³⁷⁹⁾ 이것을 전제로 할 때 다니엘 얀케로비치(Daniel Yankelovich)의 연구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한다. 그에 의하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에너지를 자기 성취를 위해 쏟아 붓는 특

377) Doug Murren, The Baby Boomerang (Venura, CA: Regal Books, 1990), 67-68.

378) Ibid., 67.

379) Ross Goldstein, Fortysomething: Claiming the Power and the Passion of Your Midlife Years, (Los Angeles: Jeremy P. Tarcher, Inc., 1990), 28.

성이 있다.³⁸⁰⁾ 그런데 이 자기 추구는 외부로부터의 어떤 보상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동기 때문이다. 즉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각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 결작품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 추구 경향은 어떤 부분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을 영성의 관점에서 달리 본다면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기도취적인 이기주의는 자기 확인이나 격려, 지원과 자기표현을 받아내려는 개인의 욕구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변화된 자기도취적 이기주의는 종교 지향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며 이 세속 사회 속에서 신성을 추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주기도 한다. 그 자기 도취적인 자아가 “접근할 수 있는 자아”(Accessible Self)로서 신(God)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³⁸¹⁾

한국의 종교학자들도 이 세대의 종교에 대한 저조한 활동과 냉소적인 경향이 앞으로 분명히 바뀌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³⁸²⁾ 이들도 결국 나이가 들면서 종교에 귀속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20대까지 종교가 맹목적인 대상이었다가 30대가 되면서 다소 멀리 하게 되지만 삶을 돌아볼 여유가 생기고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 40대가 되면 다시 종교의 깊은 의미를 되찾게 된다”³⁸³⁾는 것이 종교학자들의 분석이다. 기독교 모태 신앙을 갖고 있는 회사원 윤모(33세)씨도 “사회에 진출한 이후 생활에 쫓기다 보니 신앙생활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종교적인 감증을 항상 느낀다.”³⁸⁴⁾고 말하고, 아직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문제는 그들의 영적 욕구를 감안하여 그것을 채워 주는 것이다. 이들 세대는 신앙에 대한 태도에 있어 종교를 객관적으로 보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의 한 부분으로 보는 실용적인 경향이 강하다.³⁸⁵⁾ 이들 세대는 부모세대와는 다르게 교회 안에서 옷차림이나 예의바름, 도덕적인 것들에 관해서는 관심이 적다.³⁸⁶⁾ 이들이 다루기 원하

380) Daniel Yankelovich, New Rules: Search for Self-fulfillment in a World turned Upside Down (New York: Random House, 1981), 73-84.

381) Wade C. Roof, A Generation of Seekers, 258.

382) 정진황, “한국의 30대 그들은 어디에 서있나: 소극적인 종교 활동,” 한국일보, 1997년 6월 16일, 21.

383) Ibid., 21.

384) Ibid., 21.

385) Ibid., 21.

386) Craig K. Miller, Baby Boomer Spirituality, 156.

는 죄의 문제는 사랑하는 사람들, 부모, 자녀들과의 깨어진 관계이다. 만약 이들의 절박한 욕구(felt needs)를 교회가 외면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교회로 돌아올 것이다. 교회가 기관이 아닌 공동체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자유롭게 발전하고 타인에 대한 보살핌과 영·혼·육의 균형 잡힌 훈련을 해준다면 이들은 교회에 머물 것이다.

이렇게 그들의 맞이하고 있는 중년과 그 이후의 삶과 관련하여 이 통전성의 영성은 중요한 요소이다. 그것은 상실과 외로움, 단절이라는 영적 뿌리를 갖고 있는 이들이 중년을 넘어서며 펼쳐갈 그들의 삶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그 숫자적 의미만으로도 사회적 함의를 소유했던 이들이 향후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본적으로 현실에 참여하여 행동함으로써 자기를 찾는 것에 익숙한 이 세대가 중년이라는 주어진 현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시킬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금 남다른 성취욕과 사회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으나 그것과 상반되는 현실에 직면하여 베이비 부모들은 그들 나름의 적응을 하고 있다. 즉 그들은 의미 있는 인간 접촉의 결여가 가져온 외로움을 의미 있는 접촉을 매개로 하여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고 있다. 기존의 가치와 제도에 대한 단절을 그들은 새로운 의미를 실현할 수 있는 활동 영역을 개척함으로써 대체하려 한다. 자기 정체성과 비교하여 실망스런 자기 현실도 남에게 주는 일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자기를 실현하고 있다. 아울러 자기실현의 과정에서 충족할 수 없는 한계를 초월적인 영적 세계에 대한 추구로 그 온전성을 채우려 하는 것이다.

제 5 장

베이비 부머 패러다임의 적용

제 1 절 패러다임의 목회적 적용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인구학적으로나 사회적 비증에서 주목해야 하는 베이비 붐 세대의 영적 패러다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상에서 살핀 베이비 붐 세대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목회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재의 한국 교회가 이 시대를 주도하는 베이비 부머들에게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그들 세대의 패러다임을 적용하여 목회현장에서 유용한 도구(tool)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1. 다양한 선택의 제공

현재 베이비붐 세대가 성장하여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그야말로 거의 모든 분야에서 무제한에 가까운 정도의 다양한 선택이 보장되고 있다. 일상적인 생활의 모든 영역, 즉 텔레비전 채널에서부터 잡지의 숫자는 물론 다양한 종류의 메뉴를 제공하는 식당들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레저 활동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다양한 선택이 그들 앞에 열려 있다. 텔레비전 채널을 돌릴 수 있는 리모트 컨트롤(remote control)은 우리 문화의 상징이 되어버렸다.³⁸⁷⁾ 만약 시청자가 어떤 채널에 실증을 느꼈다면 단지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즉시 그 채널을 바꿀 수 있다. 또 베이비 부머들이 대형 할인점에 들어가더라도 한다면 2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다양한 상품들이 그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은 아직도 수십 년 전과 비교하여 크게

387) Rick Warren, "New Church for a New Generation," 370.

달라진 것 없는 동일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전통적인 교회들은 보통 예전과 같은 시간대에 예배하고, 같은 커리큘럼의 성경공부를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를 영접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러나 그런 방식의 접근은 베이비 붐 세대를 겨냥하는 교회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그들은 모든 사람의 욕구를 채워주거나 모든 사람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도 기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붐 세대를 지향하는 교회는 그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예배 시간이든, 소그룹이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세미나이든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그들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교회가 작아서 그런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교회가 최고로 잘할 수 있고 높은 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 그런 작은 교회라 하더라도 한 두 개의 특정한 사역은 경쟁력을 가지고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다음 점차적으로 높은 수준의 질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역을 덧붙여 가는 방법이 효과적이다.³⁸⁸⁾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이비 부모들을 겨냥하는 교회는 과거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승리보다는 현재나 미래에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든가 '우리는 항상 그래 왔다'는 식의 태도는 버려야한다. 대신 좀더 창조적이고 신축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그들 세대를 의식하는 교회는 그것이 더 이상 생산적이 되지 못할 때 그 어떤 정형화된 프로그램이라도 버릴 용의가 있어야 한다.

반대로 그것이 유용하다고 판단이 되면 역사나 문화적인 문제여서 성경적 확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들을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 베이비 부모들은 그것이 과거에 유효하고 인기 있던 프로그램이라고 하여 그것에 충성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그것이 지금 효과적인 방법인가'를 질문하여 그것이 유용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그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는다. 확실히 베이비 부모들은 변화와 다양성, 창의성과 개혁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가치들을 구체화시키는 교회에 끌릴 수밖에 없다.

같은 맥락에서 베이비 부모형의 교회는 교인들에게 핵심적이지 않은 교리들에 대해서는 다양성을 허용해야 한다. 앞에서 살핀 대로 베이비 부모들은 세계화와 매우

388) Gary L. McIntosh, Three Generations (Grand Rapids, MI: Fleming H. Revell, 1995), 102-103.

다원화된 문화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다양성에 대해서 허용적이고 관점이나 해석이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부머 지향의 교회는 예컨대 시대적 이슈들에 대한 견해나 어떤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은 쟁점들에 대해서 교인들이 같은 견해를 가져야만 한다고 고집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모든 이가 어떤 신앙적 관점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보다 다양한 관점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엄격한 신앙적 틀에다 사람들을 가두어 두려고 강제하는 대신 다양한 관점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베이비 부머 지향의 교회로서는 교인들로 하여금 교리적 선언의 작은 부분에까지 일치시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교회의 큰 목회철학에 교인들이 조화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2 질 높은 예배와 어린이 사역

베이비붐 세대는 다른 어떤 세대보다 높은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세대이다. 그들은 상실의 시대를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세대보다 질 높은 교육을 받았고, 매스 미디어를 통해 높은 수준의 문화와 세계 경험을 자유롭고 풍부하게 한 세대이다. 그 결과 다양한 선택에 길들여져 있고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을 만날 때까지 찾아다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베이비 부머를 대상으로 하는 목회는 이들의 이런 탁월성을 추구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베이비붐 세대에 있어 텔레비전은 그들의 의사소통은 물론 생활의 기준까지 형성시킨 미디어였다.³⁸⁹⁾ 미디어를 통해 제시된 오락 산업은 이들의 기대감을 한껏 올려놓아서 교회가 실행하고 제공하는 이벤트들(events)은 그것들과 비교하여 지루하고 뒤떨어진 것으로 비춰지기 일쑤이다. 그런 맥락에서 베이비 부머들은 잘 계획되고 준비되지 못한 예배나 준비가 부족한 주일학교나 교사들에 대해서 참고 기다려주지 않는다. 즉, 베이비 부머들은 생명력 없는 음악이나 자신의 삶과 관련이 없는 설교를 더 이상 의무감 때문에 앉아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또한,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은 현대인의 주의력을 극적으

389) Ibid., 79.

로 단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때문에 베이비 부머 지향의 교회들은 무엇보다 회중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잘 계획되고 연습된 예배가 있어야 한다. 부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예배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가혹해야 한다. 그런 평가의 철저함을 통해 목표하는 바의 예배가 되도록 매 주일 그것을 향상시켜야 한다. 그런 목표의 배후에는 만약 그렇게 잘 준비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베이비 부머들을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철저한 인식이 깔려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베이비 부머들은 자신들의 삶의 질을 우선시하고 탁월성을 추구하는 만큼 자녀들에 대해서도 높은 기대를 갖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인구통계학지에 따르면 결혼한 베이비 부머들 중에 약 76퍼센트가 아이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 의하면 한 자녀를 둔 부부보다 두 자녀를 둔 부부가 훨씬 많고, 또 자녀가 없는 부부들은 향후 아이를 갖고 싶어 하며, 한 아이만을 둔 부부들은 두 자녀를 가지려고 한다.³⁹⁰⁾

이런 현상은 많은 베이비 부머들이 그들의 삶을 추구하느라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갖는 것을 지연시켜 왔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자녀를 갖는 비율이 현저하게 높아지고 있다. 라일 샬러(Lyle Schaller)에 의하면, 25세 생일을 넘기고서야 그들의 첫 아이를 갖는 여성의 숫자가 1970년과 1982년 사이에 두 배 이상이 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첫아이를 갖는 연령이 현저하게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³⁹¹⁾

이런 상황에서 마침내 그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부모들은 그 아이들이 속할 장소나 환경에 대해 아주 높은 관심과 보호의식을 갖게 될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타임 잡지는 이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다. “확실히 인정해야 하는 것은 베이비 부머 부모들은 성이나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거의 강박관념처럼 집착하고 있다.”³⁹²⁾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교회에 데려왔을 때에도 그들의 자녀들에 대해 질 높은 보살핌과 대우를 받기 원한다. 즉, 그들은 잘 고안된 프로그램은 물론 갖추어진 교사들에 의해 보살핌과 함께 청결하고 안전하며 좋은 시설을 기대하는 것이다.

390) “The Big Chill Revisited,” American Demographics, September, 1985, 28.

391) Effectiveness Ministries Update, (Tampa, FL: December, 1988).

392) “The Baby Boom Turns 40,” Time, 19 May 1986, 23.

그런 맥락에서 베이비 부머 지향의 교회는 그들의 어린 아이들을 맡아주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사실 베이비 부머 부부들은 그들의 질 높은 생활양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배의 수입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6세 이하의 어린애를 가진 여성 베이비 부머 반 이상이 일터에서 일하고 있다.³⁹³⁾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베이비 부머들을 대상으로 하려는 교회는 홀로 자녀를 키우는 부머들을 위한 사역 뿐 아니라 일터에서 일하는 부부들을 위한 사역은 적극 시행해야 한다. 베이비 부머들을 위해서 낮에 그들의 아이들을 보살피는 사역은 아주 인기 있고 대중적인 필요가 있는 사역이다.

3. 평신도를 세우는 목회

베이비 부머들은 자의식과 자기실현의 욕구가 강하고 스스로의 참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의식을 소유한 세대이다.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동기를 이해하고 싶어 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 부머 지향의 교회는 계속해서 교회의 지향하는바 목적을 다양한 형태의 통로를 통해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부머 대상의 교회는 슬로건과 같은 간단한 문장으로 된 교회의 목적진술과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사명 선언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

그런 베이비붐 세대를 접촉하기를 원하는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혹은 교인들에게 죄의식을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그들은 그들의 영적 특징에서 보듯 죄의식에 의해서 동기화되는 세대가 아니다. 그들은 죄의식을 통해 동기화하려는 것에 아주 저항적이고 그런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그런 죄의식을 지극하거나 위협을 하는 대신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올 것인가 하는 긍정적인 진술에 더욱 반응한다. 그래서 강단을 통한 어떠한 압력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결과를 가져온다. 반대로 그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것이 옳다고 확신이 서면 그들은 스스로 동기화 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베이비붐 지향의 교회는 교인 스스로 세워지도록 해야 한다. 앞에서 살

393) Landon Jones, "Here Comes the Baby Boomers," U. S. News & World Report, 5 November 1984, 68.

핀 대로 베이비 부모들은 다른 세대들 가운데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세대이다. 그들은 그 과정에서 특별히 “왜?”와 “어떻게?”라는 질문을 하도록 프로그램 되어왔다. 이러한 사실은 이 세대가 자연스럽게 냉소적인 경향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결과 영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어떤 권위 있는 기관이나 지도자의 말을 받아들인다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그 대답을 발견하려는 욕구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베이비 부모들은 확실히 진리를 발견하는 것도 어떤 도그마적인 방법으로 강제로 먹여지기 보다는 자신들 스스로 그것을 발견하기를 좋아한다. 만약 이러한 그들의 영적 특징을 이해하고 그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예전과는 다르게 유용한 자료나 도구들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많다. 그래서 베이비 부모 지향의 교회는 그들이 스스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목회자들이 신학교에서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을 키우기 위해 가르침을 받듯이 교인들이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인들을 훈련하여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베이비붐 세대를 목회하려는 교회는 그 목회에 평신도들을 동력화해야 한다. 베이비붐 세대에게 있어 무엇에 가담하고 참여하는 것은 그들 영성의 열쇠가 되는 가치이다. 역사에 동참하여 이루어낸 경험이 풍부하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킴으로써 자신을 실현하는 것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이들을 목회하려면 이런 참여와 동참의 요소는 핵심적이다. 그러므로 베이비 부모 지향의 교회는 이 평신도들이 그런 참여가 가능하도록 그들을 세우고 구비하여 목회에 동참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런 베이비 부모형 교회들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는 목회를 강조하고, 교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은사들을 발견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물론, 그 발견한 은사들을 개발시키고 그것을 사용하도록 격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설령 그것들이 전통적인 방식의 교회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은사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은 많이 있다. 예컨대, 성가대나 주일학교 교사와 같은 봉사가 아니더라도 교회가 현대 사회를 향해 봉사할 수 있는 영역은 너무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부모 지향의 교회는 평신도를 목회에 참여시키기 위해 교회 내에서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훈련된 평신도들은 구체적으로

교회 내에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역의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준비된 평신도들을 교회의 전임(full time) 사역자로 채용하여 사역에 동참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4 소그룹과 네트워크

베이비 붐 세대는 어떤 세대보다 밀접한 인간관계에 목말라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세대이다.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전 세대와의 단절을 경험하고 전 세대가 줄 수 있는 유형, 무형의 관계로부터 단절한 그들의 의식 속에는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다. 살펴 본대로 이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의미 있는 관계의 부재가 가져온 결과물이었다. 그래서 이 세대에게 있어 열쇠가 되는 가치 중에는 하나는 친밀감이다.

그런 이유에서 이 세대와 관련한 목회를 검토할 때 소그룹은 아주 적절하고 인기 있는 사역이다. 이 소그룹은 다양한 기능을 목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어떤 그룹은 예배를 위해서 모일 수 있고, 어떤 그룹은 성경 공부를 위해서 모일 수 있다. 또한 개인적 성장이나 봉사, 선교나 목회적 보살핌을 위해 조직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모임의 배경에는 이들 사이에 좀 더 깊은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친밀함을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들 소그룹들은 베이비붐 세대가 갈구하는 가깝고 친밀한 관계 뿐 아니라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조직되어야 한다.³⁹⁴⁾ 예컨대, 멤버들의 필요에 초점을 두되 친교에 강조점을 두어 친교그룹을 들 수 있다. 이 소그룹은 그리스도인 사이의 관계를 형성해가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다. 아니면 그룹 원들 간에 영적 성장을 위해 모이는 성장그룹들을 형성할 수 있다. 영적 성장을 목표로 하되 자연스럽게 구성원들 간의 만남과 친밀감을 쌓아가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같은 그룹 내의 필요를 지원해 주는 돌봄 그룹들이 있을 수 있다. 이 그룹은 삶의 어려운 부분이나 필요한 부분에서 서로 연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독신자 사역과 같은 프로그램들은 아주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는

394) Gary L. McIntosh, *Three Generations*, 103.

그들 자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든 아니면 그들의 라이프스타일로 인해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 결혼하지 않았거나 서로 이혼하여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해 서로 간의 돌봄을 목적으로 소그룹을 형성하여 그들의 문제를 서로 나누다면 아주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 셀 교회(Cell Church)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셀 교회는 교인들의 가정에서 모이는 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셀 교회는 복음적인 소그룹을 사역의 핵심으로 두는 것으로 각각의 셀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것이다. 셀 교회는 한 명의 공동의 리더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셀 그룹들로 구성된 모임이다.³⁹⁵⁾ 이 셀 교회의 모델이 되고 있는 초대교회는 집들을 옮겨 다니며 모이는 작은 친밀한 공동체로 매일 교제를 나누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고 훈련하며 섬기고 기도하는 성령의 공동체였다. 이런 교회의 장점은 성도들이 서로 삶을 나누고 구체적인 교제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³⁹⁶⁾

물론 베이비 부머 지향의 교회가 반드시 이런 형태의 교회가 될 필요는 없겠으나 이런 소그룹이 주는 함축된 의미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서로가 함께 만날 수 있는 소그룹을 통해 서로의 문제와 필요를 나누고, 단절을 통해 이들이 경험한 상처와 욕구를 응답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함께 모이고 연결될 수 있는 네트워크(network)는 목회의 중요한 열쇠가 되어야 한다.

이런 소그룹과 네트워킹을 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주목하는 것이다. 그 소그룹의 사역이 그 목적에 맞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개인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성령의 역사를 위해 중요하게 받아들여져야 하고, 동시에 구성원들의 필요가 응답되는 능력의 통로로서 소그룹 사역에 있어 중요한 강조점이 되어야 한다.

제 2 절 패러다임의 선교적 적용

베이비붐 세대의 영적 패러다임을 살피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에게 용이하게

395) Ralph W. Neighbour, 셀교회 지침서, 정진우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0), 306.

396) Lawrence Khong, 신사도적셀교회, 최봉실 역 (서울: 한국강해설교학교 출판부, 2001), 13.

접근하기 위한 것이다. 즉 이 시대에 그들 세대를 선교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소유한 정신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었고, 그 필요가 그들의 영적 패러다임을 탐색하는 구체적 동인이었다. 이제 지금까지 탐색한 그들의 영적 패러다임을 통해 살필 수 있는 선교적인 적용의 가능성을 찾아본다.

1. 선교 대상의 분명한 설정

베이비 붐 세대를 선교하려는 교회는 그 선교 대상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그 선교 대상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현대의 어떤 교회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선교할 수는 없다. 과거처럼 막연히 모든 사람을 전도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방법은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가 선교할 대상을 정확히 설정하고 그 대상에 대해 집중하는 것은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베이비 부모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려는 교회는 그들의 구체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그들을 대표하고 전형이 될 수 있는 대상을 모델화하는 것이 유용하다. 선교 대상의 특성을 모두 합쳐서 한 사람의 가공인물을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캘리포니아에 베이비 붐 세대를 대상으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한 릭 워렌(Rick Warren)은 '새들백 샘'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설정하여 선교 대상을 분명하게 정의하였다.³⁹⁷⁾ 마찬가지로 일리노이 베링턴에 있는 윌로우크릭교회(Willowcreek)는 그들의 선교 대상을 '해리와 메리(Harry & Mary)'로 형상화하였다.³⁹⁸⁾ 그렇게 그 대상을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그들을 찾아내고 그들과 의사소통하는 것이 용이하였다.

대상을 모델화한 다음에는 접촉 대상인 베이비 부모들이 주로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부모들은 주로 편안한 생활과 높은 질의 생활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쾌적한 주거 환경을 추구한다. 주로 새롭게 조성되는 주거 단지이거나 편리한 아파트 생활이 보편적이다. 그리고 그들은 시기적으로 사회에 진출하여 이제 경제적인 기반을 잡아가는 연령들이기 새롭게 자신들의 집을 구입하거나 구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더 넓고 쾌적한 주거 공간으로 옮기는 시기이다. 따라서 부모에게

397) Rick Warren, 새들백교회 이야기, 김현희 · 박경범 역 (서울: 디모데, 1996), 193-195.

398) Lee Strobel, Inside the Mind of Unchurched Harry & Mary (Grand Rapid, MI: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3), 11-16.

선교하려는 교회는 그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과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은 부모들이 단순히 교회가 가깝다는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 교회와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도시나 근교에 사는 베이비 부모들은 다양한 필요를 따라 일정 거리를 운전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예컨대, 그들은 단순히 가깝다는 이유로 주변의 의사를 찾기보다는 자신들이 편안함을 느끼거나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의 강하게 추천하는 의사를 찾아간다.³⁹⁹⁾ 이러한 선택의 기준들이 교회를 정하는 것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부모들은 자신이 편하게 느껴지고 그들의 필요가 가장 잘 채워지는 교회에 참여하기 위해 가까운 여러 교회를 지나서 그곳으로 간다. 이것이 지역 선정과 함께 고려해야 할 포인트이다.

대상이 정의되고 그들의 위치가 파악되었다면 그들에게 교회를 알리고 접근해야 한다. 이 때 그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교회를 알리는 수단과 방식도 그들의 정서에 맞아야 한다. 그것이 어떠한 형태의 방법이든지 그 교회에 참여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인지가 명시되어야 한다. 부모 세대와는 다르게 베이비 부모에게 호소하려면 그들이 느끼는 특별한 필요를 응답하는 내용이 반드시 담겨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관련이 없는 조잡한 사진이나 그럴듯한 문구는 그들에게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과 정보가 담겨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만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⁴⁰⁰⁾

마찬가지로 부모들을 교회로 초청할 때에도 그들을 동기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초청하는 것보다 그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기회를 마련하고 참여했을 때 얻어지는 유익을 제시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동기가 부여되고 그들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배려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베이비 부모들을 선교하려는 교회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얻거나 접촉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많이 그리고 적절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선교와 관련하여 베이비 부모들을 생각할 때 매스 미디어의 힘을 주목해야 한다. 그들은 매스 미디어와 함께 성장하였고 그것들이 제공하는 기준을 따라 사고하며 가치를 형성하였다. 매스 미디어는 그들 생활의 일부이고 그 매스미디어를 통해 의사

399) Rick Warren, "New Church for a New Generation," 379.

400) William Easum, How to Reach Baby Boomers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91), 65.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베이비 부모에게 다가가려는 교회는 라디오나 텔레비전은 물론 신문이나 메일(mail) 같은 것을 통해 광고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 지역 케이블 방송을 활용하여 교회나 교회의 프로그램을 알리는 것은 물론 예배 실황도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된다. 또 도시 지역에서 베이비 부모들의 집을 방문하여 문을 두드리 는 것보다는 편지나 문자 메시지로 그것들을 대체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2 편리한 시설과 편안한 분위기

1987년 미국에서 실시된 연구에 의하면, 미국인들이 참을 수 없다고 답변한 첫 번째의 것은 불편함이었다.⁴⁰¹⁾ 이것은 베이비 부모들에게도 마찬가지여서 그들도 불편한 것들을 참는데 익숙하지 않다. 그들의 부모들은 자신들이 한 고생을 자식들에게는 경험시키지 않기 위해 스스로 불편을 감수했을 뿐 아니라 피 땀 흘려 자식 세대의 삶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부모들은 부모들의 그러한 배려와 성장기의 풍요로운 생활환경을 덕분에 편한 것, 편한 생활에 익숙해져 왔다.

그래서 베이비 부모를 선교하고자 하는 교회는 이 편리함의 문제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 교회는 그들이 방문했을 때 겪게 될 가능한 여러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예를 들어, 그들이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대비하여 편리한 주차장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 청결한 화장실과 어린이를 보살필 수 있는 갖추어진 시설도 준비되어야 한다. 방문자들에게 친절히 안내할 수 있는 안내데스크 등도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그들이 그들의 생활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번의 주일 예배는 기본이다. 사실 예배를 주일 오전 11시에 드려야 한다는 성경적인 전거는 없다. 그러한 의식은 농경문화가 일반화되었던 시절에 형성되어 내려오는 것이다. 따라서 베이비 부모들을 겨냥한 예배는 주일 아침 이른 시간에서 시작하여 여러 번의 예배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이제 5일 근무가 일반화되는 것을 감안하여 토요일 저녁 예배도 검토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배가 그들이 일상의 맥을 끊지 않으면서도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401) Rick Warren, "New Church for a New Generation," 377.

베이비 부머 선교와 관련하여 예배에 사용하는 음악도 아주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우리들의 경험에 의하면, 음악은 설교가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자주 감동시킨다. 지적인 장벽을 초월하여 메시지를 마음속에 와 닿게 할 수도 있다. 음악은 전도를 위한 강력한 도구인 것이다. 특히 베이비 붐 세대는 앞선 세대와는 달리 매스 미디어의 덕택으로 음악과 함께 살고 음악과 함께 성장하였다. 음악은 그들이 가치관을 형성할 때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그런데 그 음악은 사람들의 배경과 문화에 따라 그 기호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전도하려고 하는지를 결정하면 그 사람들에게 맞는 음악을 선택하고 그것을 유지해야 한다. 즉, 베이비 부머들을 전도하려면 음악을 교회의 선호도에 따라 결정해서는 안 되고 전도하려는 대상에 맞추어 정해야 한다. 주지하는 대로, 베이비 붐 세대는 팝이나 록 스타일의 현대 음악을 들으며 성장한 세대이다. 그들은 비교적 강한 박자를 가진 밝고 즐거운 음악을 좋아하며 그들의 귀는 강한 베이스와 리듬이 있는 음악에 길들여져 있다.⁴⁰²⁾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비트가 있는 음악을 선호한다.

그런 이유에서 베이비 부머들을 전도하고자 하는 교회는 파이프 오르간이나 피아노보다는 전자 피아노나 기타, 신디사이저, 드럼 같은 밴드로 바꾸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노래들도 동시대 사람들에게 의해 작곡된 음악을 사용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불려지기보다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어야 한다. 그럴 때 부머들은 평안함과 기쁨, 행복감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찾아오는 베이비 부머들에게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관건 중에 하나가 영접하는 분위기이다. 처음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두드러진 감정적 반응은 두려움이다.⁴⁰³⁾ 낯선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급한 일은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교회에서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야 한다. 가장 편한 위치에 방문자의 주차장을 마련해주고 미소 띤 얼굴로 그들을 맞아준다면 그런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또 교회 밖에서부터 밝게 인사하고 그들을 안으로 직접 안내해주고 궁금한 점을 친절히 알려준다면 교회에 대한 첫 인상이 좋아 그곳을 다시 찾게 될 것이다.

베이비 부머들에게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는 격식을 차리지 않는 비공식적인 분

402) 릭 워렌, 새들백교회 이야기, 318.

403) Ibid., 287.

위기를 연출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들은 확실히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것보다는 일상적이고 비공식적인 스타일을 선호한다. 복장도 정장보다는 평상복을 더 편하게 느끼고 의식도 딱 짜여진 공식적인 것보다는 자유로운 형식이 더 낫다. 부모들은 그렇지 않은데도 그런 척 가장하는 어떤 것도 피하고 싶어 한다. 그런 그들에게 긴장을 풀어주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친밀감이다.⁴⁰⁴⁾

또한 편안함을 주는 요인 중에 무엇보다도 용납의 분위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 베이비 부모들은 상실과 단절의 영성을 소유했기 때문에 다른 세대와 다른 자기 나름의 사고와 행동 방식을 취해왔다. 복장에서, 생활스타일에서, 사고방식과 가치관에서 그들은 그들 나름의 다름을 가지고 살아왔다. 그런 그들에게 그 다름을 받아들여줌으로써 그들이 죄의식을 갖지 않고 그들도 사랑받고 있고 이해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에게 용납의 분위기를 만든다고 하여 그들의 모든 것을 승인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들을 받아들임에 있어 용납하는 것과 승인하는 것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즉 그들의 죄악된 삶의 방식을 승인하지는 않지만 그들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한다. 따라서 베이비 부모 지향의 교회는 무엇보다 용납의 분위기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3. 현실적 필요에 응답하는 설교

베이비 부모들은 상실의 시대를 살면서 상처입고 낙심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기도 하였다. 단절의 과정을 겪으면서 홀로 남겨진 외로움과 함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기준을 갖지 못해 혼란스러움을 경험하였다. 치열한 경쟁의 와중에서 따뜻한 사랑과 용납과 격려에 목말라 있다. 그런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육체적, 정서적, 영적, 대인 관계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한다. 그들이 그런 필요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그들의 그러한 필요가 응답되어야 한다.

그들을 선교하려는 교회는 모든 문제의 쟁점과 출발을 그들로부터 시작해야 한

404) Rick Warren, "New Churches for a New Generation," 76. 1982년에 한 교회가 실시된 한 연구에 의하면, 교회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30퍼센트가 목사, 17퍼센트는 친절함, 15퍼센트가 프로그램, 12퍼센트가 위치라고 답변하였다. 즉 친절함과 목사의 요인이 교회 선택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그들과의 접촉점도 교회가 그들이 어떠한 것을 원하는 곳에서가 아니라 그들의 상처와 필요와 관심사에서 출발해야 한다.⁴⁰⁵⁾ 프로그램들도 그들의 절실한 욕구(felt needs)에서 출발해야 하지 성과가 좋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다른 어떤 출처에서 수입되어서는 안 된다. 베이비 부머 지향의 교회는 철저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베이비 부머들이 직면하고 있는 “지금, 여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베이비 부머 지향의 교회는 예수를 말할 때에도 현재 그들의 삶과 관련하여 전해야 한다. 그들은 전통적인 접근 방식인 지옥에서의 처벌이라든가 천국에서의 보상 같은 것보다는 현재, 여기서 그들의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분이 소유하신 차별성에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⁴⁰⁶⁾ 그들에게 있어 필요한 메시지는 개인적인 문제들, 즉 경쟁과 복잡한 삶의 현실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라든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것인가와 같은 것이다. 가정과 현실적인 삶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재정 문제나 상처받고 깨어진 사람들 사이의 인간관계도 듣고 싶은 주제이다. 그리고 얻고 싶어 하는 감정적, 육체적 건강이나 직업 세계에서 어떻게 잘 하나갈 것인가의 문제도 중요하다.

또한 앞에서 살핀 대로 텔레비전이 베이비붐 세대의 삶을 조건 지어 왔다는 사실이다. 텔레비전에 익숙한 그들 세대는 그들의 삶의 문제들이 빠르고 즉각적이며 단순하게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출석할 때에도 포인트를 재빨리 파악할 수 있고, 실질적인 행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메시지를 기대한다. 그런 의미에서 베이비 부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해야 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교이다.

그런 이유에서 그들을 위해 시리즈 설교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들의 삶과 관련된 주제를 연속적으로 다룸으로써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필 수 있고 바로 앞의 메시지와 연결되어 기대감과 함께 사람들의 입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광고 효과도 볼 수 있다. 즉 그들의 친구들의 필요에 잘 맞는 설교가 이루어질 때 친구들을 교회에 데리고 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 때 시리즈의 적당한 길이는 4주에서 8주가 적당한데 그것은 더 길어지면 교인들의 관심이 반감되기 때문이다.⁴⁰⁷⁾

이것과 함께 기술적인 문제로 설교의 내용과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 개요를 제

405) Rick Warren, “New Churches for a New Generation,” 377.

406) Ibid., 378.

407) 릭 워렌, 새들백교회 이야기, 335.

공하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 성경에 익숙치 못한 그들에게 성경을 찾느라고 느끼게 될 당혹감을 없애주고, 그들이 필요한 정보를 적어 넣거나 설교의 내용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듣는 것의 90-95퍼센트는 72시간 내에 잃어버리기 때문에⁴⁰⁸⁾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개요는 그들에게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된다.

또한 베이비 부모들을 선교하기 위해서는 성경 본문도 그들의 필요와 연관된 본문을 선택하고 그것을 현실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전해야 한다. 특히 설교 제목을 정할 때에도 그들의 필요와 고통과 관심사에 호소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야 한다. 아울러 이렇게 느끼는 필요를 중심으로 본문과 제목이 정해진 다음에는 확실한 성경적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 그들의 필요를 응답한다는 것이 복음을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기본적인 전제이다.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방식도 연사의 외침 방식보다는 개인적인 증거의 스타일이 더 자연스럽다. 부모들은 자연스럽지 못한 꾸민 목소리나 부흥사와 같은 의식적이고 소리 지르는 타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마치 개인적인 대화와 같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더욱 선호한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선포 방식이 위협적인 것보다 일상적인 유머가 있는 방식에 끌리는 경향이 있다.⁴⁰⁹⁾

4 선교에 대한 강한 비전

지금까지 교회에 다니지 않는 베이비 부모들은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전통적인 교회들에 대해 불만을 가져왔다. 특히 그들은 교회들이 사람들의 호주머니에만 관심이 있다는 불평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과거 전통적인 교회들에서 관행처럼 되어온 부흥사를 동원한 현금 모금 방식이 어느 정도는 왜곡되어 전달된 측면에서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또한 부모들은 그들의 정서 가운데 기존의 공식적인 기관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실망하였고 그런 것들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정서적 배경 아래서 교회가 돈을 끌어모으려 한다는 조그만 짐새만 있어도

408) Ibid., 333.

409) Rick Warren, "New Churches for a New Generation," 381.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거기에 만약 돈에 대한 압력이나 교묘한 방식으로 헌금을 모으려 한다는 인상을 받으면 그들은 곧 마음을 닫아버린다. 그러나 선교 공동체인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헌금이나 헌물에 대한 가르침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베이비 부모들에게 다가가려는 교회는 헌금과 물질에 대한 접근 방법도 효과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런 방법 중에 타당한 것이 바로 성경적 가르침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다. 즉 십일조나 여타 헌금에 대해서 청지기직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준다면 그들은 비교적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 정해 놓고 예산과 헌금에 대해 말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성경 말씀 속에서 가르쳐지는 것이 헌금 배후에 있는 동기에 대해 의심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다. 아울러 예배 시간에 단순한 방문자들은 헌금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공식적인 선포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러한 방법들은 베이비 부모들이 교회에 참여하려 할 때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돈을 요구할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베이비 부모들을 선교하고자 하는 교회는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과 활발한 참여를 강조해야 한다. 그들은 성장기에 대의를 가지고 불의에 항거하고 사회 변화에 참여했던 세대이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참여를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에 익숙한 세대이기도 하다. 게다가 그들이 중년이 되면서 스스로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자신들의 존재 의미를 찾으려는 욕구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물질적인 동기를 넘어서 삶을 위한 의미 있는 도전이라는 좀더 깊고 높은 목적이 필요하다.

베이비붐 세대는 그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이 교육받고 넓은 세상을 여행한 세대이기 때문에 더 많은 세계의식을 소유하고 세계 선교에 자신들을 노출하는 것에 익숙하다. 유학생으로, 여행객으로, 사업상 일로 해외에 나갔던 부모들은 해외 선교에 어떤 방식으로든 자원하여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에서 베이비 부모 지향의 교회는 단순히 선교에 대해 가르치는 것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사실, 재정 확보와 관련하여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들은 필요가 아닌 비전을 보고 헌금을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헌금을 내게 하는 것은 필요가 아닌 큰

비전이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의미 있다고 판단하는 비전에는 기꺼이 헌금을 낼 수 있다. 미국에서 이루어진 자신의 재정적 지원을 어떻게 할당하는지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전도 사역에 34퍼센트, 선교사 개인을 위해서 14퍼센트, 구제와 개발 프로그램에 12퍼센트, 학원 선교에 9퍼센트, 선교기관에 7퍼센트, 기타에 11퍼센트를 지원한다고 답변하였다.⁴¹⁰⁾ 이 연구는 부머 세대가 선교에 대한 목적에는 헌금을 기꺼이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베이비붐 세대의 선교에 대한 관심이 전통적인 해외 선교와는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이다. 크리스천 부머들의 경우 의미 있는 목적에 재정적으로 공헌하는 것에 열려있지만 그들의 직접적인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목적에 보다 더 관심이 많다. 단지 10퍼센트의 크리스천 부머들만이 직접적인 해외 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나머지는 정규적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해외 선교 단체를 방문하거나 지원하고, 자원자로 봉사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¹¹⁾

이것은 곧 베이비 부머 지향의 교회가 어떻게 그들을 동력화해야 하는지를 보여 준다. 즉 그런 교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이웃에 대한 복음 전도와 짧은 기간의 선교 사역, 봉사자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의 프로그램들이 그들에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선교에 관심이 있는 크리스천 부머들에게는 직업적인 해외 선교사로 참여하기를 기대하기보다 짧은 기간의 직접적인 선교 사역에 동참시키는 프로젝트가 바람직하다.

제 3 절 패러다임의 구조적 적용

선교를 통해 교회 안으로 들어온 베이비 부머들이 몸담을 교회는 하나의 구조이다. 포도주와 그것을 담는 가죽 부대처럼 교회에 들어오는 부머들과 그들을 담을 교회 구조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아서도 안 되고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베이비 부머형의 교회는 그들을 담을 수 있는 부머형의 그릇이어야 한다. 베이비붐 세대가 갖고 있는 영성을 기초

410) James F. Engel and Jerry D. Jones, *Baby Boomers and the Future of World Missions*, (Orange, CA: Management Development Associates, 1989), 29.

411) Ibid., 33.

로 그들을 담아낼 수 있는 구조의 모습을 모색해 본다.

1. 지역 필요 중심의 조직

기본적으로 베이비 부모들은 그들이 경험한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기성의 공식적 기구들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국가 기관이 주도한 여러 사건들을 통해 국가 기구는 물론 그것의 지도 아래 이루어진 여러 사회적 기관들에 대해서도 같은 인상과 불신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들은 그 기관들이 만들어내고 시행하는 제도나 활동에 대해서도 같은 태도를 견지하면서 성장해 왔다.

이러한 반 제도적, 반 기구적 정서는 그들의 교회에 대한 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즉 기존의 교회도 여타 다른 기성의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너무 자기 보호와 보존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기성의 교회가 오늘날 자신들의 필요와 문제들을 다루는데 적합하지 않은 다른 기존의 기관들과 똑같은 형태의 기관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베이비 부모들은 교회에 대해서도 교회가 기존의 제도적이고 기구적인 기관이기보다는 그것들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기를 원하고 있다.

이것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1998년 3월, 발족한 독립교회 선교단체협의회를 들 수 있다. “모든 교단과 교회들과 협력하면서도 독립된 교회 운영을 추구하는 교회들”⁴¹²⁾을 표방한 이 단체는 현재 580개 교회와 단체들로 조직되어 있다. 그 조직에 가담한 교회들과 단체들이 모두 그런 반 기구적 의식에 기인한다고만은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예전에는 교인들이 교단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이단시 한 것과 비교하면 그것은 확실한 변화임에 틀림없다.

이런 맥락에서 베이비 부모들을 받아들이는 교회들은 교단과 교단의식을 현명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교회에 들어오지 않은 베이비 부모들에게 교단의 소속감과 명칭은 별로 의미가 없고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과 연결되어 있다. 그 결과 그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에도 어떤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가와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현재적인 필요를 얼마나 충족할 수 있느냐를 주로 판단한다. 그러므로 부모들을 의식하는 교회는

412) 유영대, “독립교회연합: 모든 교단과 협력, 전 성도를 품안에,” 국민일보, 2004년 4월 20일, 34.

일단 그들을 끌어들이고 교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교단이라는 도구를 강조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에게 있어 교단과 연결되었다는 것은 자칫 전통적인 방식에 안주하는 교회라는 인상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프로그램을 막을 수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들은 교단이라는 이름에 끌리기 보다는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프로그램과 활동에 끌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부모 지향의 교회들은 교단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신중하고 현명하게 다루어야 한다. 한 조사에 의하면, 미국의 침례교는 지역에 따라서 그 선호도가 현격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미국 남부에서는 침례교가 45퍼센트의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고 있음에 반해 로키산맥이 있는 주들에서는 단지 6퍼센트의 호감을 얻고 있다. 반대로 루터교의 경우 남부 사람들은 8퍼센트가 좋게 보는데 반해 중서부 사람들은 21퍼센트가 루터교에 호감을 표시하였다. 장로교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나 젊은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없었고, 감리교는 히스패닉(Hispanic) 지역보다는 흑인들의 지역에서 선호도가 높았다.⁴¹³⁾

이런 정서를 반영하여 교회들은 교단과의 소속이나 연결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기 보다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 즉, 교회 이름에도 교단을 내세우기보다는 지역과의 연결을 강조하는 이름을 붙이거나(Community Church) 교회의 비전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이름을 붙인다. 예를 들어, 교회 이름에 ○○장로교회 혹은 ○○감리교회라는 교단의 명칭을 붙여서 사용하는 대신 교단 명칭을 제거하고 교회 이름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베이비 부모들의 거주지에 가까이 있어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는 인식을 주면서도 교단의 지배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을 준다. 또 기존의 교단에 속한 교회들이 그러했듯이 상·하 계층적 구조의 지배 아래 있어 지역의 필요를 채우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벗어나려 한다. 즉, 구도자에게 민감한 예배를 드리거나 그들에게 필요한 적절한 전도 행사나 특별한 봉사 활동 같은 것들이 가능하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베이비 부모 지향의 구조를 가진 교회는 그 태도에 있어서도 계층

413) Lee Strobel, *Inside the Mind of Unchurched Harry & Mary*, 68.

구조(hierarchy)에서 익숙한 '그것이 우리가 해왔던 방식이다'식을 버려야 한다. 대신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의 필요에 더 잘 응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그럴 때에 비로소 베이비 부모들이 높이 평가하는 탁월함, 창의성, 상관성, 의미 있는 참여 같은 가치들이 교회 내에서 활발하게 작동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부모들을 지향하는 교회는 조직 구성의 중심을 이제 교단이라는 기구적 구조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초점을 옮겨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반드시 교단의 교리나 선교, 목표들을 추구할 수 없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부모 세대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교단에 대한 충성도가 아니라 부모 세대의 필요에 부응하는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이다.

2 모델로서의 지도력

베이비 부모들이 모이는 교회의 리더십은 비전과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한다. 그들은 삶의 과정을 대의를 위해 싸우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참여하는 교회도 하나님이 원하는 분명한 목적을 실현할 수 있고 그것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는 공동체이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그들은 구체적인 계획의 지원을 받는 분명한 비전이 있는 교회에 매력을 느낀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조직을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력도 분명한 목적의식을 지니고 그들과 비전을 나눌 수 있는 지도자이기를 원한다.

이것은 그들이 성장 과정에서 커다란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관심 가졌던 것과 관련이 있다.⁴¹⁴⁾ 즉, 그들은 이제 중년이 되어 그 관심을 커다란 사회적 이슈에서 자신들의 구체적 삶으로 돌리면서 자신들의 삶과 연관된 지역에 주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의 그런 관심을 자신들의 지역에서 펼칠 수 있는 교회를 찾고 있는 것이다. 만약 그런 장을 그들이 교회에서 발견한다면 그들의 관심과 헌신을 끌어내는 것이 훨씬 용이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베이비 부모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는 부모들의 그런 욕구를 찾아내어 그것을 그들에게 선명하게 제시할 수 있

414) Lee Strobel, *Inside the Mind of Unchurched Harry & Mary*, 70.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한 설문조사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신은 일년 중 두 주일을 바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10명 중 6명은 '참여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는 비전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또한 그들을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교회의 리더십은 높은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물론 리더라고 하여 모든 것에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부머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는 투명해야 한다. 베이비 부머들은 진실과 경쟁력, 그리고 인격적으로 성실한 것을 존경한다. 과거 그들이 성장할 때 경험한 폭력과 거짓과 슬수와 불의를 대면하며 그것들과의 싸움에 젊음을 보냈던 그들로서는 “무엇보다도 이 세대가 갈망하는 것은 그 세대가 잃어버렸던 도덕적 리더십이다.”⁴¹⁵⁾

그런 의미에서 베이비 부머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리더십의 열쇠는 그것에 합당한 인격이다. 그들이 단순히 직책이 주어졌기 때문에 리더의 정당성을 인정하거나 그 직책을 보고 당연히 따라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베이비 부머들은 사람 사이의 관계에 기초하여 움직이고 리더와의 신뢰에 바탕을 두고 그들을 따른다. 베이비 부머들은 규칙이나 규정 혹은 정치적 슬수에 의해 움직이는 것을 정서적으로 싫어한다. 그들은 어디로 가야할지 분명히 아는 리더일 뿐 아니라 가슴속에 담겨진 진실로 그들과 관심을 나눌 수 있어 그들이 자발적으로 닮고 따를 수 있는 리더를 원한다.

이런 그들의 행태 배경에는 적어도 교회라는 곳은 조직체(organization)가 아니라 유기체(organism)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교회 공동체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와 같은 기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개념화되는 가족과 같은 곳이기를 바라고 있다. 그들이 경험한 기존의 공식 기관들이 보여주었던 차가운 기구적 행태에 실망한 그들로서는 그것은 당연한 반응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들은 공동체 안에서의 의사 결정 과정도 투표라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공통의 관심에 기초한 일반적인 동의를 통해 만들어지기를 원한다.⁴¹⁶⁾

부머 지향의 교회 리더십을 생각할 때 또 검토해야하는 것은 그들의 헌신과 관련된 특징이다. 부머들의 문화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떤 것에 소속하고 자신을 맡기는 것에 저항적이라는 사실이다. 부머들은 어디에 쉽게 가담하거나 자신의 것을 바쳐 헌신하기를 꺼려한다. 전 세대와의 관계에서 단절의 영성을 소유하고 자기 본위의 삶을 살아온 그들로서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타임은 “부머들은 타인에 대한 헌신을 피해 오고 지연시켜온 세대”⁴¹⁷⁾라고 지적하였다.

415) Brian Cronin, “The Rolling Stone Survey,” *Rolling Stone*, 7 April 1988, 38.

416) Rick Warren, “New Churches for a New Generation,” 383.

이렇게 소속과 헌신에 익숙지 않은 의식을 가진 부모들이 지역 교회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여전히 헌신에 저항적이다. 공식적인 멤버가 되거나 소속하는 것을 꺼려하고 헌신하는 것을 피하려 한다. 그런 현상은 설령 그들이 교회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경우에 따라 다양한 봉사와 헌금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교회에 나오고 헌금을 드린다 하더라도 멤버가 되어 교회를 위해 헌신하려고는 안하는 것이 그들의 성향이다.

그런 경우 그들에게 교회의 멤버로 참여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먼저 알릴 필요가 있다. 즉 그들에게 멤버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알려주어 선택이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그 코스에서는 교회의 목회 철학이나 전도 전략, 예배를 드리는 스타일, 교회 조직의 구조 등을 분명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그런 과정에서 그들은 교회에 소속하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으며, 동시에 어떤 책임이 있는지도 토론할 수 있다.

확실히 베이비 부모들은 헌신에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또한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목적과 동기를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⁴¹⁸⁾ 이때 교회의 리더십은 부모들이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가능한 선택들을 제공하여 그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어야 한다. 단순히 직책이나 그것에 따르는 권위가 아닌 부모들이 동의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지고 그들이 바라보고 따를 수 있는 모델로서 존재해야 한다.

3. 단순한 구조와 시스템

베이비 부모들이 몸담을 수 있는 교회의 구조를 생각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은 그들의 생활환경이 바쁘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60퍼센트의 중년 부모들은 가정을 갖고 있고, 부모 여성들의 70퍼센트가 가정 밖에서 일하고 있다.⁴¹⁹⁾ 그들 세대의 아이들은 방과 후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많은 부모 맞벌이 부부들은 그들의 가사를 직장이 끝난 시간이나 주말에 할 수밖에 없다. 이들은 이렇게 가정과 직장이라는 두 가지 일을 해야만 하고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417) "Baby Boom Turns 40," *Time*, 19 May 1986, 23.

418) Lee Strobel, *Inside the Mind of Unchurched Harry & Mary*, 69.

419) "The Big Chill Revisited," *American Demographics*, September 1985, 25.

그래서 부모들을 위한 교회는 그들이 교회 멤버로서 쓸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 그것은 곧 그들의 교인들이 교회 활동을 위해 매번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모든 교회 프로그램에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멤버들이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 죄의식을 갖지 않도록 배려해야 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기회를 활용할 것을 격려해야 한다.

실상 베이비 부모들이 모이는 교회들에는 점차 일하는 여성들이 늘어가고 있고 상대적으로 교회 활동에 헌신하는 여성들이 줄어가고 있다. 이럴 때 교회의 지도자는 그들의 헌신이 줄어든 것을 단순히 헌신의 부족으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베이비 부모들이 모든 활동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 시대가 그런 변화의 중심에 와있다는 인식을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교회의 모든 활동과 조직을 점검하고 필요 없는 직책이나 모임들을 새롭게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그것이 성공적이 아니라는 판단이 서면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교인들이 여러 번 참여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성 있는 것들로 함께 묶는 것도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한 교인들의 훈련을 위해서는 주말 수련회나 짧은 기간의 세미나로 대체해서 오랜 기간을 참여해야 하는 것을 줄여야 한다. 스케줄을 짤 때에는 차를 타고 멀리 오는 사람들과 일하는 여성들, 맞벌이 부부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부모 중심의 구조를 갖는 교회는 사람들을 헌신하게 할 때에도 교회의 필요에 맞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은사를 따라 행해야 한다. 헌신 기간도 긴 기간보다는 짧은 기간을 중심으로 계획해야 한다. 또한 그들의 동참을 끌어내기 위해 그들이 소유한 의식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 부모들의 참여도는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을 때 높아진다. 동시에 관심 있는 사람들 속에서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대표자가 되면 그 집단에 참여하는 정도는 물론 그 일의 성과도 훨씬 높게 나타난다.⁴²⁰⁾

또한 그들이 참여하고 싶은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더 관계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베이비 부모들은 공식 기관에 대한 반감과 불신을 가진 반 제도적 성향 속에서 성장하였다. 그래서 종교에 있어서도 조직화된 종교에 대해서는 그들의

420) Gary L. McIntosh, *Three Generations*, 102.

관심을 이내 접는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 지향의 교회는 교회의 기구적인 요소는 제거하고 좀더 관계의 요소를 살릴 수 있어야 한다.

국가가 삶의 모든 것을 조직하고, 인도하던 국가 중심의 삶을 살았던 부모들의 부모 세대만 해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런 기구의 능력과 효과를 신뢰하였다. 그러나 베이비 부모들은 국가로 대표되는 공식 기관들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그것 자체가 문제라는 의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러한 공식 기구 안에 만들어진 위원회나 여타 조직에 불신감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구조적인 관료제나 관료적 형식주의, 정치적 슬수를 필요로 하는 조직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베이비 부모들을 지향하는 교회는 많이 조직되어 있는 전통적인 위원회나 부서들, 선출된 직책들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정적인 이미지의 조직을 없애고 그들의 필요에 효율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단순한 조직으로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단순히 조직을 유지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쓰기보다 실제적인 사역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어야 한다. 오직 친밀한 관계를 만들고 지원하는데 필요하고 충분한 구조가 요청된다.

4 건물보다 첨단 장비

베이비 부모 지향의 교회의 구조를 생각할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람이 건물보다 중요하다는 관점이다. 부모형 교회는 교회 건물에 의해 좌우되거나 건물을 교회 성장의 관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 세대와는 다르게 베이비 부모들은 “건물 콤플렉스(edifice complex)”를 가지고 있지 않다. 미국의 수정교회(Crystal Cathedral) 같은 교회는 이전 세대를 위한 교회였지 부모 세대를 위한 교회는 아니었다.⁴²¹⁾ 그들은 건물이란 단지 목회도구일 뿐이지 기념비는 아니라고 간주하고 있다.

그래서 베이비 부모를 겨냥한 교회는 건물을 세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사람을 세우는 것에 주목한다. 그런 교회들은 교회 건물로 학교, 은행, 체육관, 극장, 지역 센터, 식당, 사무실, 심지어 자동차 극장이나 운동장을 사용하기도 한다. 베이비 부모 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회를 시작했던 교회들이 그런 예가 될 수 있다. 새들백교

421) Rick Warren, “New Churches for a New Generation,” 385.

회는 정착하기까지 15년 동안 79개의 장소를 옮겨 다니며 교회가 성장하였다.⁴²²⁾ 처음 극장 건물을 빌려 교회로 사용한 윌로우크릭교회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에서도 대학 강당이나 학교 체육관, 기독교 계통의 건물이나 그 밖의 공공건물을 교회로 사용하여 성장하는 여러 예들이 있다. 어떤 교회들은 교회 건물을 갖지 않는 것을 교회 비전으로 하는 교회들도 나타난다.

이런 교회들은 또 교회를 치장하고 장식하는 일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기본적인 시설로 만족하고 오히려 현대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필요한 고도의 장비들을 갖추는데 더욱 신경을 쓴다. 즉 베이비 부모들을 겨냥한 교회들은 하이테크(high-tech) 교회를 추구한다. 그런 교회들은 관리와 사무를 위해 컴퓨터나 팩스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콤팩트디스크(CD)나 신디사이저(Synthesizers) 같은 것들을 예배를 위해 사용한다. 또 성인이나 젊은이 사역에서 가르침을 위한 도구로 카세트 테이프를 활용한다.

이런 방법들의 사용은 베이비붐 세대가 영상세대라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텔레비전과 함께 성장한 부모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것만큼 보는 것도 익숙하다. 그래서 1980년대부터 시작된 스크린에 찬양 가사를 비추는 것과 같은 방식이 요즈음은 일반화되는 추세이다.⁴²³⁾ 이것은 베이비붐 세대의 참여 문화와 상관이 있다. 즉,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이 단순히 관객으로 있기보다 직접 참여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스크린을 쳐다볼 때에는 손을 자유롭게 든다든지 찬양을 크게 하면서 예배에 깊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베이비 부모형의 교회들 중 많은 교회들이 테이프 사역을 하고 있다. 설교를 녹음하거나 성경공부의 강의를 녹음하여 그것들을 다량으로 복사하여 뿌림으로써 주 단위로 복음을 전하거나 교인들의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은 베이비 부모들의 생활이 바쁘기 때문에 앉아서 책을 읽기보다 일을 위해 이동하는 동안 자동차 안에서 그것들을 듣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에서 테이프를 통한 사역은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 전파나 교육 전략으로 매우 유용한 부분이다.

422) 릭 워렌, 새들백교회 이야기, 58.

423) Gary L. McIntosh, Three Generations, 104.

6 장

결 론

이상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영적 패러다임과 그것의 목회 현장에서의 실제적 적용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서 “동일한 경험과 기억을 공유하는 동일 연령 집단의 규모가 절대 다수임”⁴²⁴⁾에도 불구하고 “아직 본격적으로 탐색되지 않은 소수 집단”⁴²⁵⁾으로 남겨져 있던 한 세대가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게 되었다. 또한 그들에 관한 연구 역시 “스케치하는 수준”⁴²⁶⁾에 머물러 있던 베이비붐 세대에 관한 정의는 물론 논의의 범주나 올바른 분석과 평가가 비교적 가능해졌다.

이러한 베이비붐 세대의 영적 패러다임을 통해 이제 그들 세대의 로드맵(road map)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즉 아직까지 분명하게 알려지지 않은 그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길이 생기고, 그들을 탐색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가늠자를 소유할 수 있었다. 동시에 그들이 앞으로 걸어갈 미래를 보여주는 이정표를 가지게 된 셈이다. 그것을 가짐으로 해서 베이비붐 세대에 관한 논의의 출발점을 찾는 동시에 그 논의의 방향도 더 본격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연구는 본격적으로 탐색되지 않은 베이비붐 세대 연구를 여러 가능성으로 인도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게다가 그들이 소유한 원형질과 같은 영성을 이해함으로써 그들이 견지하는 가치와 신념은 물론 그들의 전반적인 삶에 대해서도 이해가 용이해졌다. 영성은 그 특성상 삶의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자의식은 물론 그들이 맺는 인간관계, 일, 목표, 신앙 등에 관한 이해에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었다. 그 결과, 표피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의 본질을 알게 됨으로써 그들을 이해하되 왜곡된 이해가 아

424) 함인희, “베이비붐 세대의 문화와 세대 경험,” 245.

425) Ibid., 219.

426) Ibid., 245.

닌 실체를 포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그들의 내면에 자리한 영성이라는 밑그림을 파악함으로써 그들의 현재 삶의 스타일은 물론 그들이 살아갈 미래의 모습도 예측 가능한 길이 열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현재 살아있는 세대인 베이비 부모를 대상으로 그들의 영적 패러다임을 살피는 것이었다. 그 의미는 이 세대가 완결된 어떤 연구 대상이 아니라 지금도 형성되어 가고 변화하는 실체라는 말이다. 곧 그들은 한 시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 변하면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역사적 사건에 대하여 그들의 공유된 경험이 일정한 방향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연구는 성격상 처음부터 개정을 전제해야 하는 연구일 수밖에 없다.

아울러 이 연구는 현재까지 나와 있는 빈약한 자료에 의존해야 하고 일차 자료의 부족으로 인한 관련 정보의 입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자료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부족한 일차 자료의 수집을 위한 인터뷰나 현장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세대원들의 살아 있는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지 못하였다. 결국, 그러한 자료 문제는 현장감의 약화를 불러왔을 뿐 아니라 적합한 자료의 충분한 서포트가 부족하여 어떤 면에서 치밀한 논지의 전개가 어려웠다는 아쉬움도 남겼다. 이를 위해 향후에는 살아 있는 대상들에 대한 현장 조사와 개인적, 집단적인 인터뷰 같은 조사 방법이 아주 유용할 것이다. 이렇게 유용한 자료를 확보하는 일과 함께 이들 자료에 숨겨진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이론적 틀도 마련되어야 한다.

더불어 계층별, 도농별, 성별, 연령별 등 베이비붐 세대의 내부의 이질성에 주목하여, 이들 집단 내부의 다양성을 야기한 요인들에 대한 분석이 따라야 할 것이며,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필히 여타 세대와의 비교 작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⁴²⁷⁾

또한 미국이나 여타 나라와는 달리 아직 세대 논의에 대한 치밀한 방법론이 정립되지 않은 한국적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세대에 관한 연구 방법론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이유에서 이 세대를 규명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론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인 세대 연구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앞으로 이와 유사한 연

427) 함인희, "베이비붐 세대의 문화와 세대 경험," 245.

구에서는 문헌 비평 방법뿐 아니라 사회과학적 현장 조사 방법을 채용한 방법이 더해져 좀더 집중적인 연구가 나오기를 바란다.

또한 베이비 부머들의 영성 자체 뿐 아니라 그 영성에 대한 이해에 근거하여 본격적인 선교적 전략에 관한 연구가 나와야 한다. 여기서 다룬 시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더욱 본격적인 연구가 더해져 베이비붐 세대에 관련된 목회적, 선교적, 구조적 이해와 전략이 더욱 예리해져야 한다. 그러한 집적된 연구들을 통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 교회의 침체 현상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비약적인 진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서적

- 강상현, "현대사 다시 쓴다: 컬러TV방영," 한국일보, 1999년 10월 19일.
- 강 현, "고래사냥," 조선일보 1997년 11월 10일.
- 고 건, "인터넷·한류는 베이비붐 영향," 주간조선, 2003년 10월 21일, 130-131.
"고래사냥" 노랫말, http://www.windbird.pe.kr/no_goraesanyang.htm
- 고재학, "한국의 30대 그들은 어디에 서있나: 실용주의 사랑법," 한국일보, 1997년 4월 3일.
- 곽승호, "설득이 통하는 세대 vs 자극이 통하는 세대," <http://www.lgad.co.kr/webzine/030506/special/edition2.htm>.
- 권영민, "전후세대의 문화의식과 가치관," 안청시·최일섭 엮음, 전후세대의 가치관과 이념, 75-88, 서울: 집문당, 1987.
- 권태환, "전후세대의 사회의식," 안청시·최일섭 엮음, 전후세대의 가치관과 이념, 153-180, 서울: 집문당, 1987.
- 김경동 외, 한국사회 한 세대,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5.
- 김경훈, 한국인의 66가지 얼굴, 서울: 새로운 사람들, 1999.
- 김동국, "한국의 30대 그들은 어디에 서있나: 라이프스타일," 한국일보, 1997년 7월 14일.
- 김명섭, 1970년대 후반기의 정치사회변동, 서울: 백산서당, 1999.
- 김상우, "한국의 30대 그들은 어디에 서있나: 이민 또 하나의 선택," 한국일보 1997년 3월 6일.
- 김순덕, "신세대: 국제화," 동아일보, 1993년 11월 14일.
_____ "신세대: 동지족," 동아일보, 1993년 6월 27일.
_____ "신세대: 배낭여행," 동아일보, 1993년 6월 6일.
_____ "신세대: 자기증심주의," 동아일보, 1993년 4월 11일.
_____ "신세대: 직장인," 동아일보, 1993년 5월 2일.
- 김영철 외,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방향,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5.

- 김용삼. 베이비붐 세대의 대폭발 · 민주화 · 올림픽 · IMF(월간조선 1998년 11월호 별책 부록), 서울: 월간조선사, 1998.
- 김용철. "현대사 다시 쓴다: 광주민주화운동." 한국일보, 1999년 10월 12일.
- 김일철. 한국사회의 재구조화 과정,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9.
- 김인영. "미국에 차세대 교회 새바람." 한국일보, 1996년 9월 10일.
- 김정곤. "한국의 30대 그들은 어디에 서있나: 운동권 출신들." 한국일보, 1997년 5월 19일.
- 김진영. "현대사 다시 쓴다: 경제위기 발생과 IMF 구제금융신청." 한국일보 1999년 12월 27일.
- 김창남. 대중문화의 이해, 서울: 한울, 1998.
- 김 원. 잊혀진 것들에 대한 기억, 서울: 이후, 1999.
- 남경욱. "한국의 30대 그들은 어디에 서있나: 여가 없는 여가생활." 한국일보 1997년 3월 27일.
- 남도영.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 국민일보, 2000년 9월 25일.
- 동아일보. 현대 한국을 뒤흔든 60대 사건(신동아 1988년 1월호 별책부록), 서울: 동아일보사, 1988.
- 박길성. "왜 세대인가." <http://www.korea.ac.kr/%7Egspark/work/%BC%BC%B4%EB%B7%D001.html>
- 박근호. 한국의 경제발전과 베트남 전쟁, 서울: 수서방, 1993.
- 박이문. 문명의 미래와 생태학적 세계관, 서울: 당대, 1998.
- 박일근. "한국의 30대 그들은 어디에 서있나: 뛰는 여성들." 한국일보, 1997년 2월 6일.
- 박재홍. "한국사회의 세대문제: 질적 접근." 한국사회사연구회 편. 한국산업사회의 현실과 전망,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2.
- 박진도. "현대사 다시 쓴다: 이농과 도시화." 한국일보, 1999년 8월 3일.
- 박태호.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서울: 푸른숲, 1997.
- 이승재. "베이비붐." 동아일보, 1998년 2월 18일.
- 서병주. "TV 세대론." http://www.biscoasia.com/newsletter/03_05.htm
- 서사봉. "한국의 30대 그들은 어디에 서있나: 다시 띄우는 승부수." 한국일보 1997년 2월 13일.

- _____. "한국의 30대 그들은 어디에 서있나: 30대의 살림살이." 한국일보, 1997년 1월 16일.
- 송호근. 한국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3.
- 안익식. "30-40대 사망 전체 65%." 서울경제신문, 1995년 2월 17일.
- 안청시·최일섭 엮음. 전후세대의 가치관과 이념, 서울: 집문당, 1987.
- _____. "전후세대의 정치의식과 정치사회화." 안청시·최일섭 엮음. 전후세대의 가치관과 이념, 89-120. 서울: 집문당, 1987.
- 양성우. 겨울공화국, 서울: 화다출판사, 1984.
- 오철우. "베이비붐 세대가 최대 피해자." 한겨레신문, 1998년 3월 23일.
- 윤상철. "높은 개혁 열망, 분절화된 신뢰구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공개토론회자료집. 386세대의 가치관과 21세기 한국,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 외대진보개혁단. 신세대론: 그 혼돈과 질서, 서울: 현실문화연구회, 1994.
- 원용진. 대중문화의 패러다임, 서울: 한나래, 1997.
- 월간 정신세계 창간 준비팀. 새 천년을 여는 수련문화, 서울: 정신세계사, 1999.
- 유병률. "한국의 30대 그들은 어디에 서있나: 고민하는 증견교사." 한국일보, 1997년 8월 25일.
- 윤순환. "한국의 30대 그들은 어디에 서있나: 늦깎이 인생들." 한국일보, 1997년 7월 7일.
- _____. "한국의 30대 그들은 어디에 서있나: 일인다역 슈퍼주부." 한국일보, 1997년 3월 13일.
- 윤종호. 느리게 사는 사람들, 서울: 문학동네, 2000.
- 은기수. "사회적 약자의 이해와 서민적 연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공개토론회 자료집. 386세대의 가치관과 21세기 한국,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 이길상. "현대사 다시 쓴다: 중학 무시험 입학시험과 고교평준화." 한국일보, 1999년 8월 10일.
- 이길상 외. 한국 교육개혁의 종합적 평가, 서울: 정문연, 1995.
- 이동준. "한국의 30대 그들은 어디에 서있나: 자화상·타화상." 한국일보, 1997년 1월 1일.
- _____. "한국의 30대 그들은 어디에 서있나: 탈 권위의 가정." 한국일보, 1997년 2월 27일.
- _____. "한국의 30대 그들은 어디에 서있나: 개방적 소비문화." 한국일보, 1997년 6

월 2일.

이동훈. "한국의 30대 그들은 어디에 서있나: 질서외식." 한국일보, 1997년 7월 21일.

이만동 외. 그들은 우리를 475라 부른다. 서울: 피플475닷컴, 2001.

이상수. "동서 문명의 사상적 접점 어디인가?" 한겨레신문, 1999년 3월 29일.

이성희. 미래사회와 미래교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이완범. "현대사 다시 쓴다: 제1차 경제개발계획." 한국일보, 1999년 7월 23일.

_____. 1960년대의 정치 사회 변동. 서울: 백산서당, 1999.

이진동. "한국의 30대 그들은 어디에 서있나: 점보는 세대." 한국일보, 1997년 8월 4일.

_____. "한국의 30대 그들은 어디에 서있나: 정보화시대 주도." 한국일보, 1997년 5월 12일.

이태호. 최근 노동운동의 기록. 서울: 청사, 1996.

이태희. "한국의 30대 그들은 어디에 서있나: 범조계." 한국일보, 1997년 6월 9일.

이해영 편. 1980년대 혁명의 시대. 서울: 새로운 세상, 1999.

이희영. "한국 80년대 세대의 초상화: 독일 68세대와의 비교." 365-401.

이해영 편. 1980년대 혁명의 시대. 서울: 새로운 세상, 1999.

임희섭. "한국 문화의 변화와 전망." 임희섭 편. 『한국사회의 발전과 문화』
서울: 나남출판사, 1987.

장을병. 전환기의 한국정치. 서울: 범우사, 1987.

장을병 외. 우리시대 민족운동의 과제. 서울: 한길사, 1996.

장학만. "40대의 도전: 40대 인생들이여 될 준비가 되었는가?" 주간한국 2004년 1월 22일, 18-24

장혜경 외. 실업에 따른 가정생활 및 여성의 역할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
여성개발원, 1999.

전태일.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일기, 수기, 편지 모음. 서울: 돌베개, 1990.

정덕상. "한국의 30대 그들은 어디에 서있나: 다양한 책읽기." 한국일보, 1997년 5월 5일.

정상윤 편. 한국신교육백년사료. 서울: 서울문예사, 1974

정성진. "한국 경제의 사회적 축적구조와 그 붕괴." 6월 민주항쟁과 한국사회 10년 I
서울: 당대, 1997.

- 정영국, "현대사 다시 쓴다: 유신체제," 한국일보, 1999년 9월 14일.
- 정영일, "전후세대의 경제의식," 안청시·최일섭 엮음, 전후세대의 가치관과 이념, 121-152 서울: 집문당, 1987.
- 정장열,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 주간조선, 2001년 9월 13일, 20-24.
- 정진황, "한국의 30대 그들은 어디에 서있나: 소극적인 종교 활동," 한국일보, 1997년 6월 16일.
- _____, "한국의 30대 그들은 어디에 서있나: 청년그룹 결성 붐," 한국일보, 1997년 1월 30일.
- 조대엽, "386세대의 문화와 세대경험," 한국의 문화변동과 가치관, 249-280, 서울: 나남출판사, 2002.
- _____, "부풀려진 세대론, 껍질만 화려한 386," 신동아, 1999년 12월호, 348-355.
- 조영래, 전태일 평전, 서울: 돌베개, 1990.
- 중앙일보사 한국현대사연구팀, 한국현대사, 서울: 중앙일보사, 1999.
- 진성호, "복고풍의 노래 아련한 우리들의 추억," <http://best.korealife.com/200202/best06.htm>
- 청사편집부, 70년대 한국일지, 서울: 청사, 1984.
- 최영미, 서른 잔치는 끝났다,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4.
- 최윤필, "한국의 30대 그들은 어디에 서있나: 만학열풍," 한국일보, 1997년 1월 23일.
- _____, "한국의 30대 그들은 어디에 서있나: 아이 키우기," 한국일보, 1997년 7월 28일.
- _____, "한국의 30대 그들은 어디에 서있나: 이데올로기 전환," 한국일보, 1997년 1월 9일.
- 통계청, 인구주택 총 조사 보고서, 서울: 통계청, 1995.
- 한경혜, "한국 남성의 성인기로의 전이 유형의 변화," 한국사회사연구회 편, 한국 근현대가족의 재조명 121-171,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3.
- _____, "남성의 무모기로의 전이와 직업 역할: 전이 시기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4(2): 231-244.
- 한국 사회학회 편, 한국사회의 세대문제, 서울: 나남, 1990.
- 한국일보 편집부 편, 신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상, 서울 한국일보사, 1990.

- 한국일보 편집부 편, 신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하, 서울 한국일보사, 1990.
- 한국갤럽,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 서울: 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98.
-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 60년사, 서울: 한국방송공사, 1987.
-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의 세대문제, 서울: 나남출판사, 1990.
- 한국일보사회부 편, 신증년시대: 그들의 빛과 그림자, 서울: 한국일보사, 1992.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공개토론 자료집, 386세대의 가치관과 21세기 한국, 서울: 정신문화연구원, 2000.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현대사의 흐름과 한국 현대사, 서울: 정신문화연구원, 1998.
- 한도현, “현대사 다시 쓴다: 베트남 참전,” 한국일보, 1999년 7월 27일.
- 한림과학원 편, 21세기를 여는 한국인의 가치관, 서울: 소화출판사, 1997.
- 한상진 엮음, 386세대, 그 빛과 그늘, 서울: 문학과 사상사, 2003.
- 한수산, 단순하게 조금 느리게, 서울: 해냄, 2000.
- 한승헌 편, 유신체제와 민주화 운동, 서울: 삼민사, 1984.
- 함인희, “베이비붐 세대의 문화와 세대경험,” 임희섭 외, 한국의 문화변동과 가치관, 215-248, 서울: 나남출판사, 2002.
- _____, “세대갈등을 넘어 세대 공존을 향해,” 계간사상 2000년 봄, 188-209.
- 함인희 외, 중산층의 정체성과 소비문화, 서울: 집문당, 2001.
- 환경처, 환경백서, 서울: 환경처, 1990.
- 홍순호, “현대사 다시 쓴다: 88 서울 올림픽 개최,” 한국일보, 1999년 11월 22일.
- 홍장기, “아침이슬 세대의 통기타 문화,” <http://www.naeil.com/weeklynaeil/naeil/news/306/30653.htm>.
- 386세대취재팀, “한국의 주력 386세대: 갈라진 세상, 그 틈엔 설 땅이 없었다.” 조선일보, 1999년 3월 9일.
- _____, “한국의 주력 386세대: 거창한 이념보다 소박한 사회봉사 현장서 뛰다.” 조선일보, 1999년 8월 24일.
- _____, “한국의 주력 386세대: 대의를 위해 나를 던졌다.” 조선일보, 1999년 10월 26일.
- _____, “한국의 주력 386세대: 넥타이는 뺐어도 비판정신은 살아있다.” 조선일보

1999년 10월 26일.

_____, “한국의 주력 386세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조선일보 1999년 6월 1일.

_____, “한국의 주력 386세대: 시대의 어둠을 넘어...세상의 중심으로,” 조선일보, 1999년 3월 2일.

_____, “한국의 주력 386세대: 창업 꿈 안고 벤처로 뛰다.” 조선일보 1999년 4월 27일.

2 번역서적

마루야마 도시야끼, 기란 무엇인가, 박희준 역 서울: 정신세계사, 1999.

Chandler, Russell, 2001년을 향하여 경주하는 교회, 맹용길 옮김, 서울: 쿼란출판사, 1993.

Eco, Umberto · Martini, Carlo M.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세욱 옮김, 서울: 열린책들, 2003.

Gould, Stephen J. 외, 시간의 종말: 새로운 밀레니엄에 대한 4가지 논의, 문지영 박재환 역, 서울: 이플리오, 2003.

McLuhan, Mashall, 미디어의 이해, 김성기, 이한우 역, 서울: 민음사, 2002.

Naisbitt, John & Aburdene, Patricia, 메가트렌드 2000, 김홍기 역,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0.

Sansot, Pierre,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 김주경 역, 서울: 동문선, 2001.

Schwartz, Hillel, 세기의 문: 전환기의 역사, 이은희 옮김, 서울: 아카데미북, 1999.

Stewart, Babara 편, 이것이 윌로우크릭 커뮤니티교회이다, 강정진 역, 서울: 한국로고스연구원, 1996.

Thompson, Damian, 종말, 이종인, 이영아 옮김, 서울: 푸른숲, 1999.

Warren, Rick, 새들백교회이야기, 김현희 박경범 옮김,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1996.

Weber, Marx, 경제와 사회, 박성환 역,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7.

Zelinski, Ernie J. 느리게 사는 즐거움, 문신연 역, 서울: 물푸레, 2000.

3. 외국서적

- Anderson, Herbert, "The Death of a Parents: Its Impact on Middle-Aged Sons and Daughters," Pastoral Psychology 28 (Spring 1980): 151-167.
- Anderson, Leith, Dying for Change, Minneapolis: Bethany House Publishers, 1980.
- _____, A Church for the 21st Century, Minneapolis: Bethany House, 1992
- Barna, George, The Frog in the Kettle: What Christians Need to Know About Life in the Year 2000, Ventura, CA: Regal Books, 1990.
- Becker, Ernest, The Denial of Death, New York: The Free Press, 1973.
- Bell, James, Bridge over the Troubled Water: Ministry to Baby Boomers, A Generation Adrift, wheaton, IL: Victor Books, 1993.
- Bella, Mike, Baby Boorn Believers, Wheaton, IL: Tyndale House, 1988.
- Briggs, Kenneth A, "Baby Boomers: Boom or Bust for the Churches?" Progression, January, 1990, 4-8.
- Burtchæll, James, "In a Family Way," Christianity Today, June 12, 1987.
- Buts, W. and Ward, M, "The Baby Boom and the Baby Bust: A New View," American Demographics, September 1979.
- Byerly, G. and Richard R, The Baby Boom: A Selected Annotated Bibliography, Lexington, MA: D. C. Health and Company, 1985.
- Castro, Janis, "The Simple Life," Time, April 8, 1991.
- Chandler, Russell, "Customer Poll Shapes a Church," Los Angeles Times, December 11, 1989, A1 and A28-A31.
- _____, Racing Toward 2001: The Forces Shaping America's Religious Future, Grand Rapids, Mi: ZondervanPublishingHouse, 1992
- _____, Understanding the New Age, Grand Rapids, Mi: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3.
- Decter, Midge, Liberal Parents, Radical Children, New York: Coward, McCann & Geoghegan, Inc., 1975.

- Dolan, Babara, "Full House at Willow Creek: A Multimedia Appeal to the Unchurched Harrys," Time, March 6, 1989.
- Drane, John, Evangelism for a New Age: Creating Church for the Next Century, London: Mashall Pickering, 1994.
- Drucker, Peter, The New Realities,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 1989.
- Easum, William, How to Reach Baby Boomers,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91.
- Finzel, Hans, Help! I'm a Baby Boomers: Battling for Christian Values Inside Americans Largest Generation, Wheaton, IL: Victor Books, 1989.
- Folkenberg, Judy, "Suicide: A Future Boom for the Baby Boomers," Psychology Today, September, 1987.
- George, Carl F. Prepare Your Church for the Future, Grand Rapids, Mi: Fleming H. Revell, 1992.
- Gerber, Jerry; Wolff, Janet; Klores Walter; & Brown Gene, Lifetrends: The Future of Baby Boomer and Other Aging Americans, New York: Macmillan, 1990.
- Gitlin, Todd The Sixties: Years of Hope, Years of Rage, New York: Bantam Books, 1987.
- Glendinning, Chelliss, Waking Up in the Nuclear Age, New York: Beach Tree Books, 1987.
- Gottlieb, Annie, Do You Believe in Magic? The Second Coming of the 60s Generation, New York: Time Books, 1987.
- Goldstein, Ross, Fortysomething: Claiming the Power and the Passion of Your Midlife Years, Los Angeles: Jeremy P. Tarcher, Inc., 1990.
- Gray, Charlotte, "Baby Boom Women: High Hopes, Uncertain Prospects," Chateaine, August, 1983.
- Hebbard, Don W. The Complete Handbook for Family Life Ministry in the Church,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1995.
- Hoge, Dean R. and Johnson Benton, Banishing Boundaries: The Religion of

- Mainline Protestant Baby Boomers, Nashville, KY: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4
- Javna, John and Gordon, '60s,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3
- Jedeikin, Jenny and Love, Robert, "Maharishi's Magic Mountain," Rolling Stone, January 24, 1991,
- Jones, London, "Baby Boomers," Money, March 1983
- _____, Great Expectations: America and the Baby Boom Generation, New York: Ballantine Books, 1980
- Johnson, Robert L, "Protestant Hangups with the Counter Culture," The Christian Century, November 4, 1970, 1318-1319.
- Johnson, Siebold Judith, "Reaching Out to Yuppies," Leader in the Church School Today, Fall 1990, 28-30.
- Katchadourian, Herant, Fifty Midlife in Perspective, New York: W. H. Freeman and Co., 1987.
- Kaye, Tony, "The Birth Dearth," The New Public, January 19, 1987.
- Kenny, Charles and Turner, Robert L, "A Generation Adrift," The Boston Globe Magazine, September 3, 1989.
- Kiley, Dan, Living Together, Feeling Alone, New York: Prentice Hall Press, 1989.
- Kuhn, Thomas S,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0.
- Kung, Hans, Theology for the Third Millennium An Eccumenical View, translated by Peter Heinegg, New York: Doubleday, 1988.
- Levinson, Daniel J, The Season of a Man's Life, New York: Ballantine Books, 1979.
- Light, Paul C, Baby Boomer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90.
- Lipman, Joanne, "Played Out: The Going Gets Tough, and Madison Avenue Dumps the Yuppies," The Wall Street Journal, December 9, 1987.
- Maccoby, Michael, Why Work: Motivating and Leading the New Generation, New York: Touchstone Book, Simon & Schuster Inc., 1988.

- Makower, Joel. Boom! Takin' About Our Generation. Chicago: Contemporary Books, Inc., 1985.
- Maloney, L. and Doan, M. "How Churches Try to Woo the Yuppies." U.S. News and World Report, August 26, 1985.
- Manheim, Karl. Essay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2.
- Mcbee, Susan. "Here Comes the Baby Boomers." U. S. News and World Report, November 5, 1984.
- McIntosh, Gary L. Three Generations. Grand Rapid: Fleming H. Revel, 1995.
- Mcneill, Kirk and Paul Robert. Reaching for the Baby Boomers Workbook. Nashville: The General Board of Discipleship Resources, The United Methodist Church, 1989.
- Meyer, Michael. The Alexander Complex. New York: Time Books, 1989.
- Miller, Kraig, K. Baby Boomer Spirituality: Ten Essential Values of a Generation. Nashville: Disciple Resources, 1992.
- Monkemeier, Douglas W. "Nurturing the Mid-Life Spirituality of Baby Boomers" (D. Min. Dissertatio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1993).
- Morrow, Lance. "Old Paradigm, New Paradigm." Time, 14 Jan. 1991.
- Murren, Doug. The Baby Boomerang: Catching Baby Boomers As They Return to Church. Ventura, Ca: Regal Books, 1990.
- Naisbitt, John and Aburdene, Patricia. Megatrend 2000. New York: William Morrow and Company, Ins., 1990.
- Neugarten, Bernice L. "The Awareness of Middle Age." in Middle Age and Aging, ed Bernice L. Neugarte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8, 93-98.
- Peplau, Letitia Anne and Perlman, Daniel. Loneliness: A Source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 New York: John Wiley & Sons, 1982.
- Bemley, Anne. "From Obedience to Independence: The Great Parental Value Shift."

- Psychology Today, October, 1988.
- Rinehart, Paula, "The Pivotal Generation: Who Will Tap the Latent Idealism of the Baby Boomers?" Christianity Today, October 6, 1989.
- Roof, Wade C. A Generation of Seekers: The Spiritual Journeys of the Baby Boomer Generation. San Francisco: HarperSanFrancisco, 1993.
- Roselini, L., and Wells, S. "When a Generation Turns Forty." U.S. News and World Report, March 10, 1986.
- Roszak, Theodore. The Making of a Counter Culture. New York: Doubleday & Company, 1968.
- Russel, Cheryl. One Hundred Predictions for the Baby Boom: The Next Fifty Years. New York: Plenum 1987.
- Sample, Tax. U. S. Lifestyle and Mainline Churches: A Key to Reaching People in the 90'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90.
- Samuelson, Robert. "Baby Boom Talk." National Journal, February 3, 1979.
- _____. "Middle Aged America." Newsweek, July 27, 1987.
- Sciacca, Fran. Generation at Risk: What Legacy are the Baby Boomers Leaving Their Kids. Chicago: Moody Press, 1991.
- Schuman, Howard and Scott, Jacqueline. "Generation and Collective Memo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 (June 1989): 359-381.
- Seligman, Martin E. P. "Boomer Blues." Psychology Today, October, 1988, 50-55.
- Sheff, David. "Portrait of a Generation." Rolling Stone, May 5, 1988.
- Strauss, William and Howe, Neil. Generations: The History of America's Future, 1584-2069. New York: William Morrow and Company, 1991.
- Strobel Lee. Inside the Mind of Unchurched Harry & Mary.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3.
- Toffler, Alvin. Powershift. New York: Bantam Books, 1991.
- Thomas, Evans, *et. al.* "Growing Pains at 40." Time, May 19, 1986.
- Walsh, Kenneth T. "The New-Collar Class." U.S. News and World Report,

September 16, 1985.

- Warren, Richard D. "New Church for a New Generation: Church Planting to Reach Baby Boomers. A Case Study: The Saddleback Valley Community Church." D. Min. Dissertatio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1993.
- Weiss, Robert S. Loneliness: The Experience of Emotional and Social Isolation. Cambridge, Massachusetts: MIT Press, 1973.
- Wimber, John. "Zip to 3000 in Five Years." Wagner Peter, Sign & Wonder Today. Altamonte Springs, Florida: Creation House, 1987.
- Wolfe, Thomas. "The 'Me' Decade and The Third Great Awakening." New York, August 23, 1976, 26-44.
- Yankelovich, Daniel. New Rules: Search for Self-fulfillment in a World turned Upside Down. New York: Random House, 1981.

VITA OF CHON NOH KA

Present Position

Senior Pastor of Daybreak Presbyterian Church, Koyang, Korea

Personal Data

Birth Date : April 21, 1956
 Marital Status : Married to Jeom Hee Yang
 Home Address : Power Plaza #601 Tanhyon Dong 1575-6
 Ilsan Gu Koyang City, Kyonggi
 Denomination :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Ordained: April 30, 1990

Education

B. A. :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1985
 M. Div. :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Seoul, 1988
 Th. M. :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1990
 Th. M. :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Princeton, NJ, 1996
 D. Min. :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CA, 2004

Experience

2000 to present Daybreak Church, Senior Pastor
 1992 to 1995 Yongse Church, Education Pastor
 1990 to 1992 Yeoneng Church, Education Pastor
 1988 to 1989 Imoondong Church, Part Time Minister
 1986 to 1987 Kaebong Central Church, Part Time Minister

Books

2003 Success Paradigm from Bible
 2004 Baby Boomer Paradigm